

Learn to Read the Bibl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성서를
읽는법을 배우자!**



Workbook 학습 교과서

Korea Bible Education Centre
www.korbible.net

차례



제 1 단원 - 태초에 - 창세기 1, 2 -----	Page	4
제 2 단원 -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 창세기 3 -----	Page	20
제 3 단원 - 창조와 사시(사계절) -----	Page	30
제 4 단원 - 믿음 그리고 살인 - 창세기 4 -----	Page	33
제 5 단원 - ‘계보가 이러하니라’ - 창세기 5 -----	Page	38
제 6 단원 - 인간의 사악함이 극도에 다다르다 - 창세기 6-9 -----	Page	44
제 7 단원 - 여러 민족들의 기원 - 창세기 9, 10 -----	Page	50
제 8 단원 -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 창세기 11 -----	Page	52
제 9 단원 - 네 본토를 떠나라 - 창세기 11-13 -----	Page	60
제 10 단원 -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다 - 창세기 14 -----	Page	64
제 11 단원 - 하나님이 약속하시다 - 창세기 15 -----	Page	70
제 12 단원 - 들 나귀 같이 되리라. 창세기 16-----	Page	78
제 13 단원 - 하나님의 서약과 그 징표. 창세기 17 -----	Page	82
제 14 단원 - 여호와와 천사들- 창세기 18, 19 -----	Page	86
제 15 단원 - 아브라함의 여행과 둘째 아들 - 창세기 20, 21 -----	Page	90
제 16 단원 -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 창세기 22 -----	Page	94
제 17 단원 - 사라가 죽다 - 창세기 23 -----	Page	98
제 18 단원 - 이삭의 아내를 구하다- 창세기 24 -----	Page	100
제 19 단원 - 죽음 그리고, 가족간의 대립 - 창세기 25 -----	Page	106
제 20 단원 - 축복을 간청하다- 창세기 27 -----	Page	112
제 21 단원 - 야곱의 아내 - 창세기 28 - 36 -----	Page	118
제 22A 단원 -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 - 50 -----	Page	124
제 22 B 단원 -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	Page	132

TABLE OF CONTENTS



Section 1 In the Beginning - Genesis 1, 2 -----	Page 5
Section 2 Sin Entered the World - Genesis 3 -----	Page 21
Section 3 For Signs and for Seasons -----	Page 31
Section 4 Faith and Murder - Genesis 4 -----	Page 34
Section 5 These Are the Generations - Genesis 5 -----	Page 39
Section 6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 Genesis 6-9 -----	Page 45
Section 7 Origin of the Nations? - Genesis 9, 10 -----	Page 51
Section 8 The Whole Earth was of One Language - Genesis 11 -----	Page 53
Section 9 Get Thee Up From Thy Country - Genesis 11-13 -----	Page 61
Section 10 War Among the Kings - Genesis 14 -----	Page 65
Section 11 God's Promises - Genesis 15 -----	Page 71
Section 12 A Wild Man - Genesis 16 -----	Page 79
Section 13 God's Covenant and its Token - Genesis 17 -----	Page 83
Section 14 The Angels of the LORD - Genesis 18, 19 -----	Page 87
Section 15 Abraham's Journey and Second Son - Genesis 20, 21 -----	Page 91
Section 16 A Prophecy of Christ - Genesis 22 -----	Page 95
Section 17 Death of Sarah - Genesis 23 -----	Page 99
Section 18 A Wife for Isaac - Genesis 24 -----	Page 101
Section 19 Death and Family Conflict - Genesis 25 -----	Page 107
Section 20 Seeking the Blessing - Genesis 27 -----	Page 113
Section 21 A Wife for Jacob - Genesis 28 - 36 -----	Page 119
Section 22A The Life of Joseph - Genesis 37 - 50 -----	Page 125
Section 22B Joseph as a Type of Christ -----	Page 133

제 1 단원

‘태초’에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하늘과 땅)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가 어느 시기 인지에 관해서 성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서 속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날자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대의 과학이 말하고 있는 지구의 연대와, 성서에서 말하는 연대가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시기가 3절에서 31절 사이에 설명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시기보다 얼마간 앞선 시기라는 점이다. 덧붙여 중요한 점은, 이 시기보다 앞선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점이다(시편 90:1-2). 6일간의 창조과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태초’라는 상황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창조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지구의 처음 모습은 텅 빈 모습이었으며 물로 덮여있었는데, 이 물은 빛조차 스며들 수 없었다. *"하늘과 땅은" "혼돈과 공허"*하였다. ‘혼돈과 공허’를 말하고 있는 히브리 낱말은 ‘토후 보후’인데, 이 말은 ‘황폐한, 공허한, 혼란스러운, 질서가 없는’이라는 의미이다.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혹은, 취지 없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질서한 지구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의 과정을 시작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다.

창세기 1장의 연대가 언제인지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연대가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창조과정이 매일매일 진행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00째 날이니라"*(5, 8, 13, 19, 23, 31절)라고 날자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날자 기록은, 해가 지고 나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서 하루를 마치는 유대적인 날자 계산 방법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하루란, 대략 오후 6시경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하여 해가 뜨는 아침을 지나 다시 해가 지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6일 동안의 하루 하루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의 하루’라는 견해를 배척할 이유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활동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안식할 것을 율법으로 부여 받았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출애굽기 20:11, 31:17).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라는 말을 ‘말 그대로’ 확고히 믿고 계셨다. 마가 10:6; 13:19

성서의 기록에 의거하여 연대를 산정해보면, 7일간의 창조가 이뤄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대략 6,000년이 경과했음이 밝혀진다. 이 말은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사건은, 7일 동안의 창조 활동을 통해 지구상에 생명을 창조하시기 아주 오래 전(수십억년 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기록이 현대의 과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기록과 현재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은 서로 상충되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SECTION 1

In The Beginning

Gen.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NASB)*

We are not told when this beginning was. The bible does not provide us with a means of dating the point at which God first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so does not contradict scientific findings regarding the age of the earth. Importantly the "beginning" of Genesis 1:1 occurred some period prior to the specific acts of creation recorded in verses 3 to 31. Al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od existed before this point of time (Psalm 90:1-2). This "beginning" or initial act of creation prior to the 6 day process mentioned in the rest of the chapter provided the raw materials for the acts of creation that were to follow.

Our first view of the earth is of a planet, empty and covered with water where even light did not penetr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ormless and void."* The Hebrew words translated, "formless and void," are *"Tohu bohu"* which together mean desolate, empty, chaotic, utterly disorganized. In a spiritual sense, the significance is, *"without point, meaning, or purpose."* God then starts to bring order to the creative process upon the earth beginning with day 1 and the declaration, *"Let there be light."*

The chronology of Genesis 1 and the creation of Adam and Eve are much discussed issues among Bible students. At the end of each day's activity we rea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day"* (v 5, 8, 13, 19, 23, 31). This is the Jewish method of describing a day, from sunset through to the following sunset. Therefore the evening from approximately 6 p.m., through the next morning and up to the next sunset is the period spoken of.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the view that the six days are literal days of 24 hours. This is established by the Sabbath Law which God gave to Israel. We read: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Exodus 20:11; 31:17).

Also, a literal creation was firmly believed by Jesus Christ. Mark 10:6; Mark 13:19

Now based on Bible chronology we can derive that approximately 6,000 years have transpired from the 7 days of creation up until now. Importantly this does not mean that the universe is only 6,000 years old. As mentioned above, the events of verse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re likely to have occurred well before (billions of years) God specifically moved to create life on planet earth via the 7 days of creative acts detailed in the rest of Genesis chapter 1. Accordingly, science and creation need not be at odds. One may interpret Genesis 1 and the creation record on a sound scriptural basis without contradicting proven scientific fact.

첫째 날 (3절) 하나님께서는 빛이 비추어 어둠을 일소하도록 하셨다. 여기에서 ‘날(하루)’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설명되고 있으며, 다시 말하여 24시간의 시간 기간을 갖는 하루를 말하고 있다.

둘째 날 (6절) 하나님께서는 대기를 창조하셨다. "궁창"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히브리 낱말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창세기 1:26에서는 "공중"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 "궁창"에는 물이 존재하는데, 이 물은 하늘 위의 물(구름 층의 물)과 아래의 물(바다의 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날 (11절) 육지가 출현한다.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랐는데, 각각의 식물들은 후손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날 (13 절)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배치하여 지구에 빛을 주도록 하셨다. 천체와 지구간의 연관관계를 통하여 시간과 계절이 정해지게 되었다.

다섯째 날 (20절) 바다에 물고기들이 번성하였고, 공중에는 새들이 번성하였다.

여섯째 날 (24절) 육축과 파충류들과 짐승들이 창조되었다. 그 후 하나님의 형상과 심상, 다시 말하여 엘로힘 또는 천사들의 형상과 심상을 좇아 사람을 형성하셨다(1:26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다스렸다.

일곱째 날 (2장 2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활동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으로 번역된 원래의 히브리 낱말은 "새빔" 인데, 이 말에서 영어 "Sabbath(안식일)"가 유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축복’하셨다. 이러한 축복은 육신적인 노동을 그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서 오는 축복이며 장차 예언된 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안식"의 축복이며,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안식의 축복이다. (히브리서 3:7-19; 4:1-10)

성서의 원리: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맞이하기 위해,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5:45-49)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지니라"

창조를 설명하는 성서의 기록들은, 그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말하는 기록임과 동시에, 이 기록의 토대 위에는 여러 인물들과 비유들이 등장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

사람 -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성서 용어 사전에서 - ‘영’= "네페시(Nepesh)"를 찾아보자. 창세기 1:24에서는 이 낱말이 "생물"이라고 번역되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아담은 ‘생령 혹은 생물’이 되었다.

Day 1 (v3) God caused the light to shine forth to dispel the darkness. The first day, like all the others, is described as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i.e. a period of 24 hours.

Day 2 (v6) God created the atmosphere. The Hebrew for “expanse” is translated “air” in Gen. 1:26. God called this “heaven”. It divided the waters above (the cloud layer) from the waters beneath (the seas).

Day 3 (v11) The dry land emerged. It produced grasses, plants and trees, each possessing the power of reproduction.

Day 4 (v14) Sun, moon and stars were set in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Times and seasons were arranged according to the earth’s relationship to these heavenly bodies.

Day 5 (v20) The seas were filled with marine life and the atmosphere with birds.

Day 6 (v24) Cattle, reptiles and beasts were created out of the ground. Then man was form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hat is, the “elohim” or angels (1:26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Adam named the animals and fowl and was given dominion over every living thing.

Day 7(2:2) God completed His creative acts in 6 days and on the 7th day, He “rested” from all the works which He had made. The Hebrew word translated “rested” is “Shabath” from which the word “Sabbath” comes. This day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s, being “sanctified” or set apart by God. He also “blessed” this day. It was blessed in that blessings would accrue to man when he ceased from his physical labours and thought about God’s works; and it was also blessed in its prophetic significance pointing to the “rest” which would come in Christ, and the glorious rest of His millennial reign on earth (Heb. 3: 7-19; Heb. 4:1-10)

A Scriptural Principle: Natural Precedes Spiritual (1 Cor. 15:45-49)

“However, the spiritual is not first, but the natural; then the spiritual”. Although the account of Creation is a record of literal events, many figures and parables are later founded on this record.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Man - Gen 2:7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KJV).

Use a Concordance - Soul = “Nephesh” in Hebrew. Translated “living creature” in 1:24.

Adam became a living soul or creature when God provided him with the “breath of life”.

성서는 "영(Soul, 영혼)"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배고픔을 느낀다 - 잠언 19:15
- 먹을 것을 구한다 - 예레미야애가 1:11, 19
- 구덩이(무덤)에 간다 - 욥기 33:22, 28
- 음부(무덤)에서 나온다 - 시편 30:3
- 죽는다 - 에스겔. 18:4

신약성서를 살펴보면, 영혼이라는 낱말은 '숨을 쉬는' 동물 혹은 '지각력'을 가진 동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고보서 5:20과 계시록 16:3에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사람과 동물 모두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2:19), 생기를 부여 받아 삶을 영위한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동물과 달리 오직 사람만이 본능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인 논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26

인류는 이처럼 고귀한 숙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반응하여 창조자에게 순종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다.

여자를 창조하심

아담은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주위에는, 아담이 가까이 교류할만한 피조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음을 보셨고, 적절한 동반자가 필요함을 아셨다.

창세기 2:21-25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자신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일부임을 알아보았다. 둘 사이에는 마음의 교류가 있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서처럼 흙의 먼지에서 취하여 암컷을 만든 것과는 다른 경우였다.

창세기 1:31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의 기록은 신약성서에서 메아리 친다.

창세기의 기록은 마치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신약성서에 나타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제공한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는 모습을 예고하는 그림자이다. 계시록 19:7-8, 고린도전서 11:3. 첫째 아담이 깊이 잠들음으로서 하와가 만들어질 수 있었듯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죽음에 처하심으로서 그의 영적인 신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Souls” in scripture are:

- hungry - Prov. 19:15
- satisfied with food - Lam. 1:11, 19
- going to the grave - Job 33:22, 28
- coming out of it - Psa. 30:3
- dying - Ezek. 18:4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translated as soul is based on the same principle of breath and of animal sentience. As examples, James 5:20, and Revelation 16:3, refer to the death of souls.

Although both man and animals were formed out of the ground, (2:19), and both kept alive by the same breath of life, man alone had the ability to look beyond his instincts and understand moral issues.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sky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Gen. 1:26

So mankind has a higher destiny. God created a being who could respond to His love and who could, if he chose, obey His creator.

Creation of Woman

Adam was created superior to the animals. There was no creature with whom he shared a really close relationship. God recognized that he was alone and needed a suitable companion.

Gen. 2: 21-25 *“So the LORD Go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upon the man”. Removing a rib, he fashioned from it a woman and brought her to the man. Adam saw her as a part of himself; someone who would think and feel as he did. There was empathy and affection between them that would not have been the case had God created the woman directly from the dust, as with the females of the animal creation.*

Gen 1:31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Echoes of Genesis in the New Testament

This Genesis record provides a figure serving as an echo for New Testament teaching. The union of Adam and Eve foreshadows the coming union of Christ and his bride, the Church. Rev. 19:7-8, 1 Cor.11:3. As the first Adam was put to sleep, that Eve might be formed, so Christ, “the second Adam”, was put to death, so that his spiritual bride might be developed.

첫째 아담이 그의 아내를 보며,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며 사랑과 호감을 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사이에도 사랑의 교감이 존재할 것이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영적인 혼인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5:25-32, 요한복음 17:21.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에서의 맏아들이다. 고린도 후서 5:17, 갈라디아서 6:15, 베드로전서 1:23, 골로새서 3:9, 10 로마서 6:3, 4.

부록 I 진화 이론

진화론은 성서의 설명과 합치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화 이론의 장황한 설명에 빠지고 싶지 않으며, 성서가 선언하는 명백함을 선호한다. 한편 성서의 선언은 오히려 더 논리적이기까지 하다.

진화론은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화론은 인류가 수백만년의 기간을 거쳐 하등생명체에서 '진화'해왔다고 주장한다(시편 100:3 참조). 반면 성서는 밝혀 말하기를, 사람은 흙의 먼지에서 '창조'되었다고 한다.

창조자를 배제하는 이론을 따르면, 인간이 창조자에 대해 가질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또한 창조자를 거스르는데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부도덕함과 악함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1:20-28.

창세기 1장에는 다양한 '종(종류)'의 생물체들이 언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21절)" 그리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24절)" 창조하셨다고 한다. 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종' 또는 "종류"는 다른 종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한다. '종'들 간의 교배잡종은 보통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인위적으로 이종 교배를 시켜 얻은 후손은 불임이다. 이와 같이 '종'과 '종' 간의 융합은 자연적으로 방지된다.

진화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진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중간형태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달리, '종'끼리의 격차는 상당하다. 또한 육종가가 개입하여 '종'을 신중히 선별한다 하여도 '신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개과' 동물을 육종하는 육종가들은 여전히 '개과'의 동물을 생산할 뿐이다. 과일에 꼬이는 초파리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한해에도 수십번의 세대를 거치게 하는 실험을 해 보았지만 단지 기형 초파리들을 얻어냈을 뿐이었다.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진화론에 관한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들을 검토하지는 않으려 한다. 성서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창세기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관해 숙고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As the first Adam showed sympathy, love and affection for the wife whom he styled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o there is mutual empathy, love and affection between Christ and his Bride. In the coming day when this spiritual marriage takes place, they will be “one” as Adam and Eve were “one.” Eph. 5:25-32, John 17:21.

Jesus Christ is the firstborn of this new creation. 2 Cor. 5:17, Gal. 6:15, 1 Pet 1:23, Col. 3:9, 10, Rom. 6:3,4.

APPENDIX I The Theory of Evolution

Evolu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Bible account

We do not intend to dwell at length on the theory of Evolution, preferring to deal with the positive statements of the Bible. It is logical, at this point, however, to mention it in passing.

Evolution denies the Creator’s existence. It claims that man evolved over millions of years from lower forms of life (note Psa 100:3). Whereas the Bible reveals that man was specifically created from the dust of the earth.

A theory that does away with the Creator automatically removes mankind’s responsibility to Him. All restraint is removed. It is little wonder that we live in a world sunk in unchecked immorality and vice. The wisdom of the world is foolishness before God. 1 Cor. 1:20-28.

Genesis Chapter 1 refers to the various “kinds” of creatures, e.g., “Every winged bird after **its kind**” (v.21) and “beasts of the earth after **their kind**” (v.24). Biology confirms the very distinct gaps between the different “kinds” or “species” of living things. Interbreeding between species never occurs in normal conditions. Where interbreeding does occur the resulting hybrids are normally sterile - such is nature’s barrier to the merging of the species.

This picture is not that which evolution would predict. If evolution is occurring, then there ought to be evidence in nature of transitional forms between one species and another, but all the gaps are bigger than evolutionists could wish. Even where deliberate human selection is involved, a new species has never been produced. Canine breeders can produce only canines. Even fruit-fly breeders, who run through dozens of generations a year, have never bred anything but weird, misshapen fruit flies.

For your interest, we have included some suggested basic comments on Evolution in your workbooks but do not intend reviewing them. Our time together is better served by mutually considering what Genesis does say, rather than dwelling on theories presented by individuals who refuse to believe the Bible.

진화이론이 오류임을 보여주는 사실들

1. ‘종’ 끼리의 격차

진화론자들은 인간과 유인원사이의 격차가 그렇게 큰 것을 보면서 당황해 한다. 인간들이 추상적인 것들, 가령 수학이나 철학, 물리학 또는 시와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인간들만이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학습한 추상적 개념들을 세대를 이어 전파할 수 있는 것일까? 왜 인간들만이 도구를 개발하며, 자신의 두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머감각, 미술 및 음악의 재능, 미적 감각,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들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적자생존의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2. 화석상의 증거를 찾기에 실패하다

다윈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지리학적 연구가 계속되면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화석이 나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후 100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고 수백만의 화석이 발견되었지만, ‘종’간의 여전히 상당하다. 게다가 화석상으로 나타나는 ‘종’간의 격차는 현대의 생물이 보여주는 격차와 일치한다.

다음 생물체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 어류와 양서류
- 양서류와 파충류
- 파충류와 조류
- 조류와 포유류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했음을 말하는 화석상의 증거를 찾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고대의 화석인류도 여전히 ‘호모 사피엔스’이며, 이들은 직립하여 보행하였고, 또한 이들의 뇌의 용적은 현대 유럽인과 동일하다. 인간이 되기 전의 종이라고 주장되는 화석들은 그 증거들이 희박하며, 진화론자들은 점차로 신용을 잃어가고 있다.

만약 인간이 하등한 형태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면, 사람과 유사한 모습의 소위 ‘고대인’이라고 부를만한 존재들이 수천가지 존재하여야 할 것이 분명하다. 진화론자로서 유명한 ‘허슬리’는 말하길, 진화론은 화석 기록에 의거하여 수립되거나 아니면 화석기록에 의거하여 붕괴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화석기록들은 진화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3. 자연이 가진 복잡한 모습들

진화론은 설명하기를, 무수히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에서 관찰되는 특징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Facts Demonstrating the Theory of Evolution to be False

1. The Gaps Between the Species

The vast gap between man and the apes is the most embarrassing gap of all to the evolutionist. What was it that caused man to be able to think abstractly, so that he can be a mathematician, a philosopher, a physicist, a poet? Why has he alone a voice which enables him to communicate abstract ideas and pass on his learning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How did he develop unique hands which enable him to put his brain to best effect? What process of “survival of the fittest” gave man his sense of humour, his artistic abilities, his appreciation of music, his sense of beauty, his ability to appreciate moral issues?

2. The Failure to Produce Fossil Evidence

Darwin and his contemporaries had great hopes that geological research would eventually produce fossils showing gradual changes between species. After more than 100 years of such research and the discovery of millions of fossils, the gaps between species are still there. Furthermore the gaps in the fossil record correspond to the gaps in the living world today.

There is nothing to fill the gaps between:

- fish and amphibia
- amphibia and reptiles
- reptiles and birds
- reptiles and mammals

Evolutionists have desperately searched for fossil evidence of man’s evolution, but the earliest fossil men found are still **Homo sapiens** walking erect and with a brain as large as that of modern European man. Claims of supposedly pre-human fossils have been based on such scanty evidence as to bring the evolutionist into disrepute.

If man has descended from a lower form, there should b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intermediate hominoids (early “man”) fully preserved and readily classified as such. Huxley, an eminent evolutionist, said that evolution would stand or fall on the fossil record. The fossil records do not support the theory of evolution.

3. The Complexity of Nature

Evolutionary theory assumes that changes occurred on a “step-by-step” basis over countless ages. But numerous features found in nature can only be classed as “all or nothing”.

눈은 사물을 보는 기관이지만, 완벽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물을 볼 수 없다. 귀는 내부의 기관들이 모두 존재하여 모두 기능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다. 이러한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새들은 다음의 조건들이 갖춰져야 비행이 가능하다.

1. 깃털이 존재하여야 한다(깃털 자체도 매우 정교하다)
2. 신체가 가벼워야 한다
3. 날개의 근육이 강해야 한다

세 조건이 동시에 완벽하게 발달하고, 조류가 타 생물보다 유리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현상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가? 또한 각기 다른 갈래인 조류, 박쥐류 그리고 곤충류의 세 종류에 걸쳐서, 이러한 변화가 그것도 우연히 세번씩이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독사의 독 기관은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인 독을 생산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생산된 독을 안전하게 보관할 저장소가 있어야 한다
3. 독을 뱉을 수 있도록 정교한 독니가 있어야 한다.
4. 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능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5. 뱀 스스로는 자신의 독의 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어떻게 이러한 장치들이 ‘단계적으로’ 발달할 수 있겠는가?

자연계에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원리들로 가득하다. 이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시편 104:24)"

4.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들

진화론은 말하길, ‘간단한 세포’로부터 생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다는 세포조차도 간단함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간단하다고 일컬어지는 생명체는 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여러 단백질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핵산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진화의 결과로 바이러스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까? 첫째, 핵산이란 수천 및 수만가지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지극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백질도 역시 매우 크고 복잡한 분자들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핵산은 단백질 분자가 없다면 복제되고 변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이면서 가장 통렬한 비판을 하자면, 바이러스는 기생 생물체이며 자신보다 큰 어떤 다른 숙주 생명체의 체내에 생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The eye with all its finely balanced components does not see unless it is fully developed. The ear does not hear unless all its intricacies are present and operational. How can evolution explain these organs in terms of gradual changes?

A bird flies because:

1. its feathers (themselves very complex),
2. a lightweight body,
3. powerful wing muscles.

Did blind chance cause all these to develop simultaneously, given that a complete development of all three was required before the bird could take off and fly and so gain an advantage over its fellows? Furthermore, did blind chance cause this to happen not once, but three times, for the ability to fly must have evolved separately for birds, bats and insects?

The poison apparatus of a snake requires:

1. a chemical plant for making the venom,
2. a safe storage vessel for it,
3. an elaborate delivery system (fangs),
4. the instinctive skill to use the weapon effectively,
5. safeguards to ensure that the snake does not poison itself. How could such apparatus evolve in stages?

Nature is filled with such complexities that evolutionary theory cannot explain. The honest response is: "O Lord, how manifold are Thy works, in wisdom hast Thou made them all" (Psa 104:24).

4. The Problem of Life's Origin

Life was thought to evolve starting from "simple cells". But even the simplest life is far from simple.

The simplest living things are viruses which typically consist of one large nucleic acid molecule surrounded by some protein molecules. Could a virus have evolved? Firstly, nucleic acid is an extremely complex chemical with tens upon tens of thousands of atoms arranged in exactly the right order. Secondly, proteins are also very large and complex molecules.

Thirdly, nucleic acid cannot thrive and multiply without its protein molecules. Fourthly, and most devastatingly, a virus is a parasite and can only grow and reproduce when living inside the body of some living host much larger than itself.

진화 이론상으로 보면, 박테리아 같은, 아주 복잡한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발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묘한 일은 환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5. 진화론의 구성

최초의 진화론은 말하길, 우연한 습관적 사용으로 인해 어떤 형질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된 형질이 대를 이어가며 유전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의미가 없음이 드러났고, 해가 지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그 후에 등장한 이론이 "신 다윈주의" 이론인데, 이는 우연히 발생한 돌연변이가 '적자 생존'의 원리와 결합하여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돌연변이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가 고농도의 방사선 등을 쬌어 손상되어 일어나는 것으로서 후대에 유전되는 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돌연변이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며, 일어난다고 하여도 대부분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난다. 초파리를 대상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본 실험에 따르면, 꼬그라든 날개, 짧은 날개, 말린 날개, 그루터기만 남은 날개 등등의 쓸모 없는 변화만 초래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돌연변이는 이미 잘 조화된 동물에게 기형 또는 장애를 제공하는 혼란만을 가져온다.

진화론을 구성하는 근거가 빈약해지자, 진화 이론의 하나로서 계단을 넘어 - 즉 파충류의 후손에서 갑자기 깃털이 생겨났다는 것처럼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고 제안하는 진화론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진화론을 생각해낸다 할 지라도, 결국 생명을 지으신 분을 경외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진화 이론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2. 인류는 진화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 스스로를 섬기고 있다.
3. 예수님과 바울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으며 이를 가르치셨다.
4.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아주 좋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동물들의 우두머리로 만드셨고, 지성과 도덕과 영적 잠재력은 인간만이 가진다.
5.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형상화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신부인 교회(에클레시아)가 형성된다.
6. 결혼은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것으로서, 완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은 결혼을 통해 서로를 돕는다.

Evolution would require first the chance production of a far, far more complex one-celled creature, such as bacteria. The odds that this occurred are in the realm of fantasy.

5. The Mechanics of Evolution

At first evolution was thought to have occurred by changes acquired by habit, use, disuse or a change in environment being inherited by offspring. But after years of fruitless research, this theory has been largely abandoned.

Then came “neo-Darwinism” which explained change on the basis of random mutations coupled with the survival of the fittest. Mutations are basically changed offspring resulting from damaged genes in the parent caused by high level radiation. But mutations are most unlikely events and the vast majority of, if not all, mutations are harmful. Artificially induced mutations in fruit flies cause wilted wings, short wings, curled wings, stumpy wings - all useless to the fly. Mutations produce chaos, deformity and disability to already well-organized anim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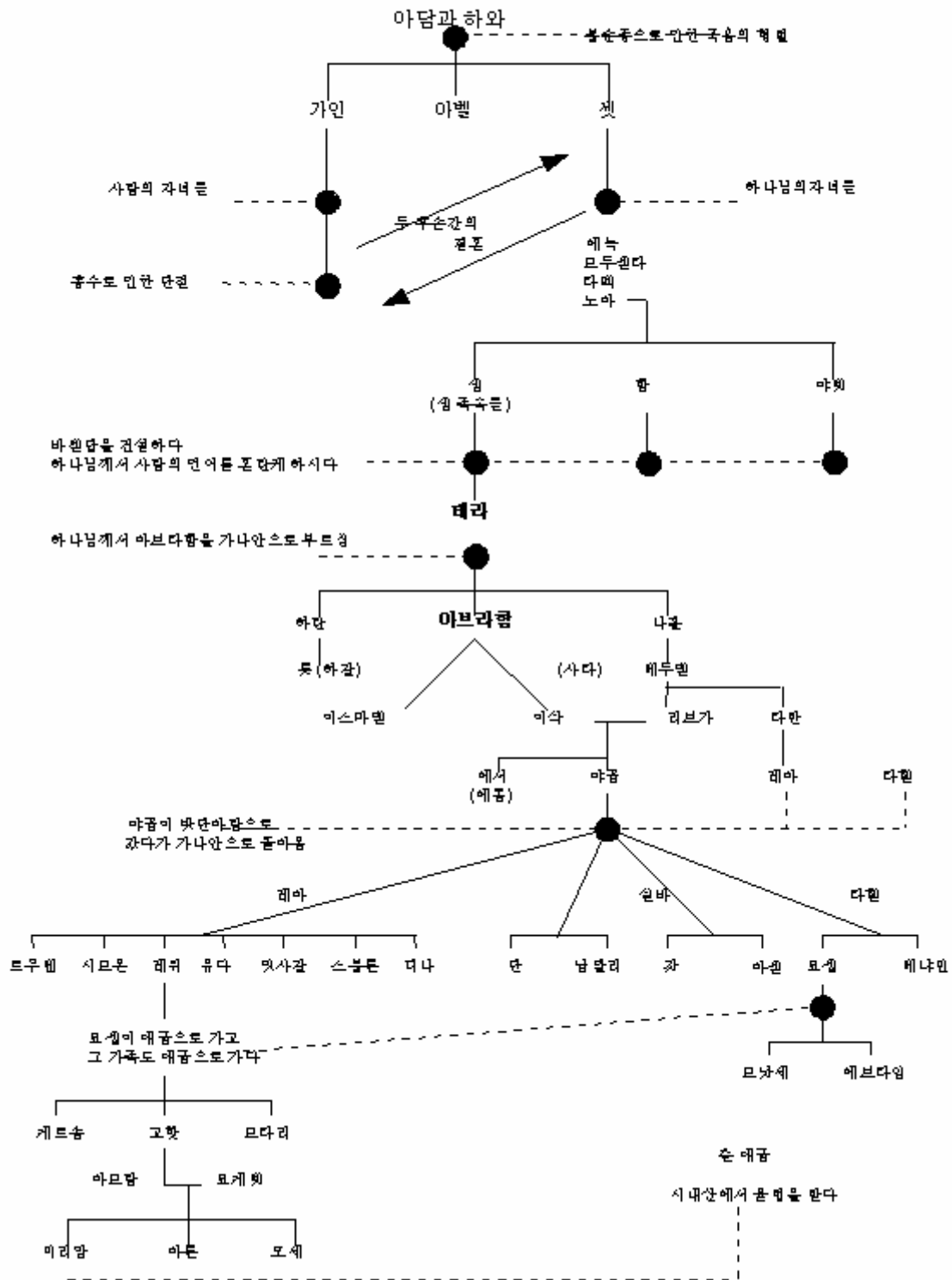
The lack of a mechanism for evolution has caused some evolutionists to suggest that evolution occurred in steps - e.g. a feather suddenly appeared on the offspring of a reptile. Men will do anything but turn in reverence to the One who made them!

LESSONS FOR US

1. Evolution and Creation cannot be harmonized, for Evolution is contrary to God's words.
2. In accepting the theory of evolution, mankind has rejected the reality of God and now serves himself instead.
3. Both Jesus and Paul believed in creation and taught accordingly.
4. God created mankind “very good”. Placed at the head of the animal creation, they alone possessed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potential.
5. In the creation of Eve, Go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on Adam’ - an experience which prefigured Christ's own death, out of which is formed his bride, the church (ecclesia).
6. Marriage was instituted by God as a permanent relationship, with each partner being a help to the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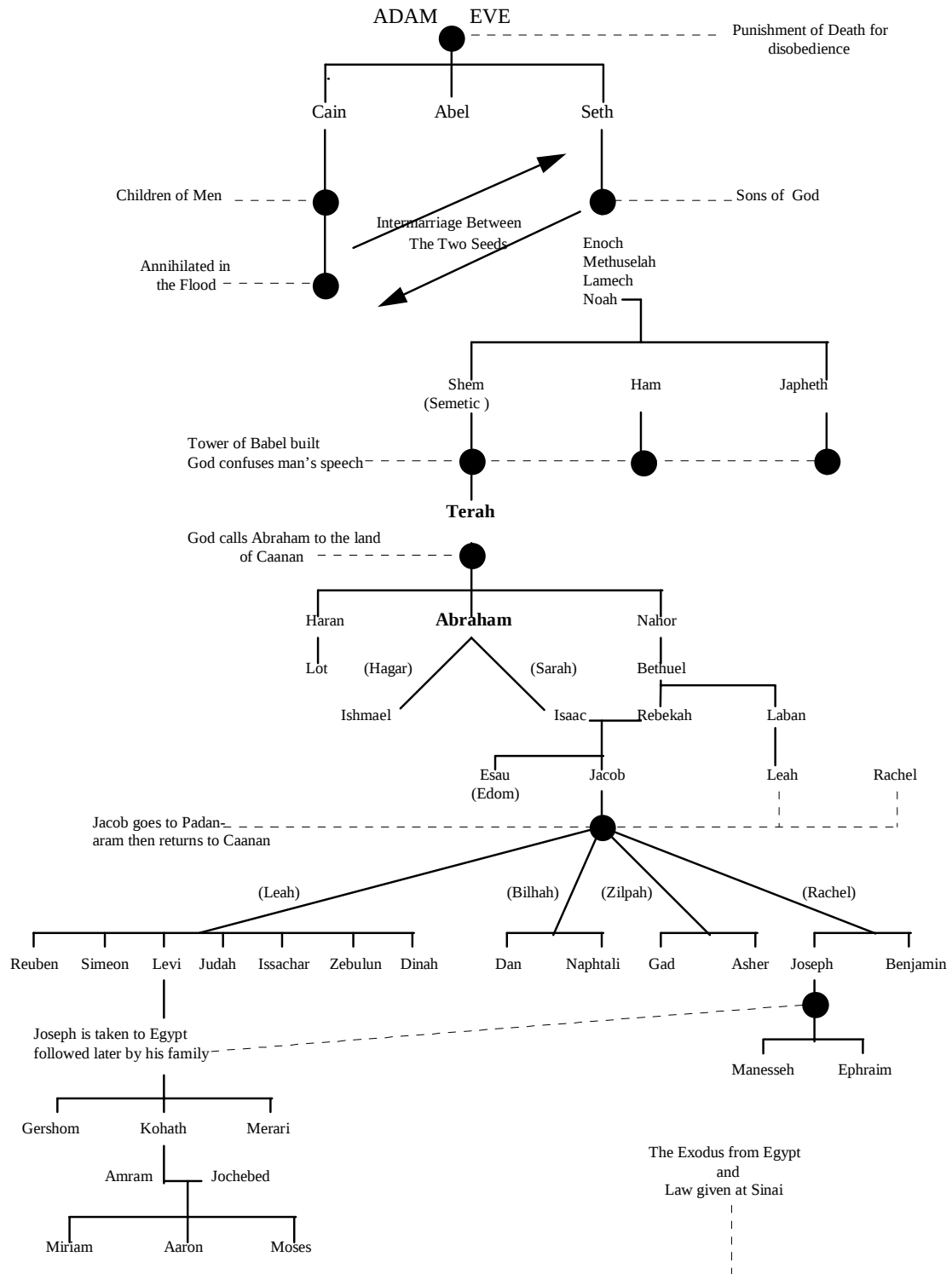
부록 II . 창조에서 모세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사건에서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APPENDIX II From Creation to Moses

FROM CREATION TO MOSES



제 2 단원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여 모두,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성품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셨지만, 이는 그들이 성장하여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후에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즐거움을 쫓아가려는지를 선택받는 시험에 놓여있었다.

율법을 부여받았다 (창세기 2:15-17)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아주 단순한 율법을 부여 받고 있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다.

결과에 대한 경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약 그들이 죄를 범한다면, 그들은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고, mortal(죽는 속성의 존재)가 되게 되었다. 그들이 그 실과를 먹던 날,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다. 즉,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라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유혹

창세기 3:1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이 나타난다. 뱀은 말을 할 수 있었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뱀은 동물적 수준의 논리만을 가지고 있었다. 뱀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왜 창조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뱀은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뱀은 자신이 가진 동물적 본능에 따라 판단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결론을 내렸다.

뱀은 하와에게 제안하기를, 하나님이 믿으라 명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뱀은 자신이 보고 들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4절)"*는 결론을 내렸다. 뱀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말한 뒤, 얼마간의 진실을 섞어 다시 말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5절)"*. 뱀은 선과 악을 아는 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금지한 것일거라 추론하였다.

이와 같은 잘못된 추론을 들으며, 하와의 마음에는 새로운 욕망,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자만심이 솟아났다. 하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접근하여 실과를 살펴보자, 그녀의 마음에 또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SECTION 2

Sin Entered the World

All that God made was physically “very good”, including the man and the woman. But Adam and Eve’s characters had yet to be developed.

God desired their love and willing obedience, but this could only be displayed if they could choose to either obey or disobey Him. Only by being placed under trial, could they show whether they would remain faithful to Him or would seek their own personal pleasure.

Placed under Law (Gen.2:15-17)

Adam and Eve were given a very simple law to obey in the Garden of Eden. *“From any tree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They had freewill to choose their course of action.

Warning of consequences

“Fo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 (literally) “dying thou shalt die” (see margin). If they sinned, they would become mortal or dying creatures, subject to death. In the day that they ate the fruit, they would be as good as dead. That is, death would be the inevitable result of disobedience.

The Temptation

Then follows in Gen. 3:1 the introduction of the serpent who was more subtle (shrewd) than any of the creatures whom God had made. He was able to speak and had the power of reasoning. But his reasoning was on purely an animal level - he could not understand moral issues, e.g. why Adam and Eve should be required to obey their Creator. He couldn’t discern right from wrong. So his animal instincts led him to conclusions which were opposite to the truth.

The serpent suggested to Eve that all was not as God would have them believe. Reasoning from the things he had seen and heard, he concluded *“You surely will not die!”* (v.4) This was the first lie told, but it was deceptive when mixed with some truth: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v.5) The only reason for the prohibition which the serpent could see, was that God did not want Adam and Eve to become equal in knowing good and evil.

This false reasoning, initiated by the serpent, aroused new feelings in Eve, - pride and a desire to be “equal with God”. With these thoughts in mind she approached the tree, and when she saw the fruit, other feelings stirred within her.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3:6)."

하와는 육신적 욕망에 이끌려 타락하였고, 후에(성서의 메아리)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요한 1서 2:16)

- "육신의 정욕과"(먹을 것)
- "안목의 정욕과"(눈의 즐거움)
- "이생의 자랑"(지혜로와지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나무)

하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과정을 경험하였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14)."* 이같은 욕심의 과정은 여호수아 7:21에서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여자는 꾀에 빠졌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 디모데전서 2:14. 그러나 아담은 마음으로 하와와 깊이 결합하고 있었기에 고민에 빠졌으며, 결국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눈은 밝아졌으나, 하와가 기대한 것처럼 *"지혜롭게"* 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고, 수치를 느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덮개를 만들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진정한 땃땃함을 가질 수 없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고, 하나님과의 사이는 소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선고를 내렸다. 창세기 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속성에 관한 변화가 일어났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12; 고린도전서 15:21, 22. 이들은 이제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mortal)'에 처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들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나게 되었고 죄에 빠지는 속성을 갖게 되었다.

로마서 5:12을 자세히 살펴보자

바울은 말하길, 네 가지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1.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행동양식의 기본으로서 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죄는 인류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2.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부여하셨다.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desirable to make one wise, she took from its fruit and ate; and she gave also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3:6)

Eve was led astray by fleshly desires, which later, (Bible echo) the apostle John termed: (1 John 2:16)

- "The lust of the flesh".....(good for food)
- " The lust of the eyes".....(delight to the eyes)
- "the boastful pride of life".....(desirable to make one wise)

She experienced the process now common to all men -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he is carried away and enticed by his own lust (unlawful desires)". James 1:14* See also Joshua 7:21 for an example of this process.

Although the woman was deceived, Adam was not. 1Tim.2:14. But his strong emotional tie with Eve entered the conflict, and finally, *"she gave also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Consequences of Sin

The eyes of the man and woman were opened, but not to *"make one wise"* in the sense Eve had imagine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and were filled with shame; and tried to avoid their shame by making a covering of fig leaves. No longer did they have a pure conscience before God. Fear crept over them. They were now estranged from God and tried to hide from Him.

God carried out the death sentence. Gen. 3:19 - *"By the sweat of your face You will eat bread, Till you return to the ground, Because from it you were taken; For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Thus the condition of Adam and Eve's nature was changed. Death entered the world because of sin. Rom. 5:12; 1 Cor. 15:21, 22. They were now mortal and subject to death. As their descendants, we suffer the effects of their sin - Mortality and a nature prone to sin.

A Closer Look at Romans 5:12

Paul says that four things happened:

1. *"Sin entered into the world"*. When Adam sinned, sin as a principle of human action came into existence. From then on, Sin reigned like a king over mankind.
2. *"And death through sin"*. Death was the penalty imposed by God once sin had become a fact.

3.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의 몸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행한 운명일 뿐이다. 모든 것들이 죽음과 썩어짐을 맞게 되었다. 아담에게 주어진 벌칙이, 이제는 모든 것들의 속성이 되었다.

4.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지는 속성을 갖게 되었다. (예레미아 17:19, 마가복음 7:21-23) 이 같은 죄에 빠지기 쉬운 속성에 따라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이르도록 하였다.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서는 이와 달리 밝히고 있다. 성서는 죽음이란 희망이 없는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 생각과 활동과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다. - 시편 6:5; 30:9; 88:10-12, 전도서 9:5, 6, 10; 이사야 38:18, 19.
- 적막한 상태이다. - 시편 115:17.
- 썩어지는 상태이다. - 사도행전 13:36.

성서는 또한 밝히기를,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였다. 또한 성서는 말하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할 것이라" 하였다." (고린도전서 15:1-19)

구속하리라는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뱀에게 벌하시면서,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하셨다. 뱀은 "배로 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다. 창세기 3:14, 15.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 즉 '에덴동산에서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내(하나님)가 너(뱀)로 여자(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두 부류가 나타난다
 - 뱀과 그의 후손
 - 여자와 그의 후손
2. 두 부류 사이에 적대관계가 형성된다
 - 두 부류는 서로 지속적으로 다툰다.
3. 이 분쟁은 마지막에 가서 종결될 것이다
 -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치명적이고도 영원한 상처, 즉 그 머리에 상처를 가할 것이다.
 - 그러나 이 와중에,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일시적인 상처, 즉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3.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Adam's descendants inherited from him a body which is mortal. This is not our fault, but is our misfortune. Thus all are subject to death and corruption. What was a penalty to Adam, became to all others a law of their nature.
4. *"Because all sinned"*. Adam's descendants inherited not only mortality from him, but also a nature prone to sin. (Jer. 17:19, Mark 7:21-23). This proneness to sin is so strong that men, left to themselves, will inevitably sin. So it is quite just for God to make them all subject to death.

Mankind is Mortal

The serpent told Eve, *"You surely will not die!"* But this is not what the Bible reveals. The Bible reveals that death is a state of hopelessness:

- The cessation of life, thought, and action - Psa 6:5; 30:9; 88:10-12; Ecc. 9:5, 6, 10; Isa. 38:18,19.
- A state of silence - Psa. 115:17
- A condition of corruption - Acts 13:36

The Bible also reveals that Christ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2 Tim 1:10). The Bible shows that apart from the resurrection,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1 Cor.15:1-19).

The Promise of Redemption

When God punished the serpent, He cursed him above every other animal. The serpent was to spend his days *"upon his belly"* groveling in the dust of the earth. Gen. 3:14, 15. But something further was added, and it was this that constituted God's first great covenant with mankind - the Edenic covenant.

"I (God)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 on the head, And you shall bruise him on the heel."

The important points of this promise are:

1. Two parties will be involved
 - The serpent and his seed,
 - The woman and her seed
2. There will be enmity between them
 - The two parties will be continually in conflict with each other.
3. The conflict will finally be resolved
 - "The seed of the woman" will inflict the "serpent" with a fatal and permanent wound i.e. a wound in the head.
 - But while this is taking place, the "serpent" will inflict a temporary wound, i.e. a wound in the heel of the "seed of the woman".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의 발로 뱀의 머리를 습격하여 결국 뱀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발이 뱀의 머리를 짓이기기 전에,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어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말한다.

창세기 3:15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

뱀은 그릇된 가르침 즉, "육신적인 생각"을 내뱉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뱀은 죄 곧 인간의 속성을 상징한다.**

뱀의 후손은 뱀의 속성 즉, 육신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마태복음 3:7; 23:33; 로마서 8:7,8.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상징한다. 그녀(하와)는 처음에 진리를 말했다. 창세기 3:2, 3.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였으며, 예수는 항상 그의 아버지의 생각과 그의 방침, 그리고 그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처녀를 잉태케 하셨다 (누가복음 1:35; 이사야 7:1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예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죄와 싸우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여기에 관해 말하길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았노라고 하였다(로마서 8:3). 그러나 예수는 한번도 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억제하고 복종시킴으로서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 곧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히브리서 2:14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셨다'라고 하여 죄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히브리서 9:26을 보라)

성서 용어 색인 - "마귀" (1228 -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에덴동산에서 이루어진 속죄(죄를 가리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난 후,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져다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옷으로 삼고자 하였다(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안한 죄 가리개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대신에 "*가죽 옷*"을 마련해 주셨다 (21절).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하나의 가르침을 주신다. 성서에서 말하는 벌거벗음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계시록 16:15). 죄를 가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려면 인간이 마련한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The picture presented in these words is that of a man's foot about to descend upon a serpent's head, in order to crush it to death. But before the man's foot crushes the snake's head, it injures his heel, causing him to suffer pain, but only for a limited time.

The figurative meaning of Gen. 3:15:

The serpent uttered the false teaching, in which he expressed the "thinking of the flesh", as opposed to God. Thus **the serpent represents sin** (human nature).

The seed of the serpent represents those who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pent - those who speak and act after the flesh. Matt. 3:7; 23:33; Rom. 8:7, 8

The woman represents the truth of God's word, which she initially spoke. Gen. 3:2,3

The seed of the woman is, in the first instance, Jesus Christ. God was his Father and he always displayed the mind, ways and character of his Father. The term "*seed of the woman*" implies that he was not to be the seed of the man. In fact, God caused a virgin to conceive through His Spirit power (Luke 1:35; Isa 7:14). In this way it was foreshadowed that God would have to be involved in human salvation.

The most important conflict of all time was the struggle between Christ and Sin. Although He had human nature, or in the words of Paul, was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Rom. 8:3), He never once yielded to sin. He gained the victory over sin by subduing His natural human desires, and, instead, obeyed God. So it can be said that Christ destroyed that which has the power of death, i.e. SIN. Heb. 2:14 expresses this concept using the word "devil" as a personification of Sin. (See Heb 9:26)

Concordance: - "Devil" (1228-False accuser, slanderer)

The Atonement of Eden (covering for sin)

When Adam and Eve sinne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and in their shame, they sought to cover their sin by clothing themselves with fig leaves(v. 7). But God rejected this humanly devised covering, and provided them instead with "*garments of skin*" (v21). This required the slaying of animals. In this God was teaching a lesson. Nakedness in Scripture symbolizes the state of sin (Rev. 16:15) For sin to be covered and fellowship with God restored, a sacrifice provided by God is required.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eb. 9:22.

Adam and Eve were taught that the pathway back to friendship with God required a life of sacrifice to God in which the serving of self is put aside.

에덴 동산에서 동물이 희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희생의 어린양”(계시록 13:8)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모형이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일하실 일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우리 인간들은 죄에 빠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죄의 가리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침례는 이러한 가리움을 제공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갈라디아서 3:27). 또한 우리가 죄의 길을 단절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가리움을 받는다. 로마서 4:7.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되다 (창세기 3:22-24)

하나님께서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고 하시고, 또한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셨다. 아담은 동산에서 내쫓긴 뒤, 자신의 근원인 흙을 갈게 되었다. 한편, 에덴 동산의 동편에는 “그림들과, 두루 도는 화염벽”이 배치되었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차단되었다.

하지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절대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은 차단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 그 나무에 다가가는 길이 마련되었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계시록 2:7에 메아리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하와는 뱀을 대면한 뒤, 뱀이 주장하는 논리에 빠져 기만당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불타올랐다.
2. 계명을 어긴 결과는, 수치스러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죄에 빠지는 속성이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에 빠지는 속성을 물려받았다.
3.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함’이 훼손되었다.
4.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시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5.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와중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죽음을 맛보아야 했다.)
6.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동안까지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그 후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하심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생활가운데서 죄를 억압하여야 한다.
7.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를 멸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 때에 뱀의 후손은 완전히 패할 것이다.

From the fact that Jesus Christ is styled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Rev. 13:8: KJV) it is clear that the animal slain was a lamb and that it was intended to point forward to him as the "Lamb of God".

What happened in Eden, therefore, foretold the work of God in Christ. We have natures prone to sin and are in as great a need of covering for sin as Adam and Eve. Baptism provides that covering. When we are baptized into Christ, we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Gal. 3:27). Then renouncing sinful ways, our sins are covered by God's grace. Rom. 4:7

Adam and Eve Excluded from the Garden (Gen. 3:22-24)

God said, *"Behold, the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There was the danger that Adam might *"stretch out his hand, and take also from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So he was sent from the garden, to till the ground from whence he was taken.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God placed *"the cherubim and the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direction to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But even in that there was hope. Adam and Eve were barred at that time from the tree of life, but the way to it was preserved so that, through the later work of Christ, believers could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Rev. 2:7 (echo).

LESSONS FOR US

1. When confronted by the serpent, Eve was deceived by its reasoning. The pride of life, and the lusts of the flesh and eyes were inflamed.
2. The consequences of the transgression were shame, mortality, and a nature prone to sin. As Adam's descendants, we are mortal, and inherit this nature.
3. Through the disobedience of Adam and Eve, sin and death entered the world, thus marring God's creation.
4. In Eden, God promised that the power of sin would eventually be destroyed by "the seed of the woman" (that is, Christ).
5. But in destroying sin, "the seed of the woman" would be bruised in the "heel by "the seed of the serpent" (Christ would suffer death himself, but only for a time).
6. By believing God and being baptized, we are forgiven our past sins. We must then put down sin in our own lives, though forgiveness of sins is available to us through Christ.
7. Christ is returning to eradicate sin from the world. Then the victory over the serpent's seed will be complete.

제 3 단원

창조와 사시(사계절)

창세기 1:14-19절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취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빛
2. 낮과 밤
3. 창조 - 스트롱(Strong) 성구사전에 따르면 깃발 혹은 햇불이라는 의미이다
4. 사시 (사계절)
5. 일자 (하루하루)
6. 연한 (햇수가 바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태양력** :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36초이며, 이를 4로 나누어 4계절로 한다.

B) **음력**의 1년은 달이 12번 변화하는 것을 1년으로 하지만, 이 기간은 태양력의 1년에 비하면 조금 짧다. 음력의 1년은 354일, 8시간, 48분 36초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A) 평 달(30일)과 긴 달(31일)을 둔다.

B) 윤년에는 하루를 더한다

SECTION 3

For Signs and For Seasons

In Genesis 1:14-19 we read: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and it was so. God made th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God placed them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and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and to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a fourth day."

What are we to take from this? They are to be:

1. Light
2. Day and Night
3. Signs - Strongs = a flag or beacon
4. Seasons
5. Days
6. Years

If we look at these more closely we have:

- A) **Solar Year** 365 days, 5 hours, 48 minutes, 36 seconds and this is divided into four seasons.
- B) **Lunar Year** of 12 months but this is shorter; 354 days, 8 hours, 48 minutes and 36 seconds.

This gives us a difference of 10 days, 21 hours to deal with.

Our calendar does this with

- A) Longer months
- B) An extra day in leap years

유대의 달력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며칠을 더하는 방법, 그리고 19년 동안에 7번 달을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축일이 잘 지켜지도록 달력을 신중히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출애굽기 12:1-2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 출애굽기 13:4을 보면 이 달은 ‘아빍’ 월이다
- 역대하 2: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유대에는 종교력과 민간력 두 가지가 있다. ‘아빍’월 혹은 ‘니산’월은 성스러운 달력(종교력)에서 말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최초의 달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티쉬리(Tishiri)’월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달력(민간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의 달력에서 유월절 혹은 새해의 첫날은 해마다 일정하지 않다.

창세기 1:14의 말씀은 다음의 성서 구절에서 메아리되어 울린다.

사도행전 1:6-7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5:1-3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위의 두 구절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 사건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A) 나라를 회복하심 (사도행전 1:6)

B)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데살로니가 전서)

별들과 지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서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 이사야 40:22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영어성서는 ‘지구의 원’에 앉으시나니라고 번역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욥기 38:31 묘성(일곱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플레아데스 성단)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 욥기 38:31 삼성(오리온자리의 삼태성)의 띠를 풀겠느냐?
- 욥기 38:32 북두성(큰곰자리의 북두칠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 욥기 38:33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 시편 8:3-4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성서는 점성술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지만, 이 내용은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발달한 점성술보다 앞선 기록이다.

The Jewish calendar did it by using extra days in some years and extra months 7 times in 19 years.

The months were carefully observed to enable Israel to keep God's laws and feasts on time. For example:

- Exod. 12:1-2 *"It is to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o you"* .(Abib see Exod.13:4)
- Exod. 13:4 Abib
- II Chron. 2:4 *"Behold, I am about to build a house for the name of the LORD my God, dedicating it to Him, to burn fragrant incense before Him and to set out the showbread continually, and to offer burnt offerings morning and evening, **on sabbaths and on new moons and on the appointed feasts of the LORD our God**, this being required forever in Israel."*

Abib or Nisan was known to start the **sacred calendar** at the new moon and therefore was the first month, but there was also a civil calendar starting with **Tishri**. This is why the dates of the Jewish Passover and the new year etc. varies every year.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re are **echoes** of the wording in Gen. 1:14 in the following prophetic verses:

Acts 1:6-7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I Thess. 5:1-3 *"Now as to the times and the epochs, brethren, you have no need of anything to be written to you. For you yourselves know full well tha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just like a thief in the night."*

If you check the context of the above verses, you will note they refer to:

- A) The **restoration** of a kingdom (Acts 1:6)
- B) The return of Christ (1 Thess 5.)

A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stars and earth is shown by the following:

- Isa. 40:22 *"He who sits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The earth is round).
- Job 38:31 PLEIADES (the seven stars)
- Job 38:31 ORION
- Job 38:32 ARCTURUS (the bear)
- Job 38:33 The ordinances of heaven
- Psalms 8:3-4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ordained; What is man that You take thought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This does not mean the Bible is teaching astrology but rather predates the myths of astrology which probably started in Egypt and Babylon.

제 4 단원

믿음 그리고 살인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향해가는 속성을 받은 채, 수고와 고통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죄를 향해가는 인간의 성향은 그들 바로 다음 세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질투와 시기와 살인이, 인간의 오랜 역사가 되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서로 달랐다.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창세기 2:2)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형과 동생이 준비한 모습들은 서로 전혀 달랐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피흘림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가리개를 물리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아벨은 하나님의 요구를 잘 이해한 토대 위에서 행동하였고,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히브리서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은 이와 반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경배하기를 원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고자 하는 논의를 거부하였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배하는 자세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충분치 않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4:23과 17:3을 읽으라.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경배하여야 한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였다.

영적인 원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원리로서 가장 근본은, 인간의 변명을 늘어놓기 이전에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가 아니었으므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드리는 제사였으므로,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동생을 살해하였다. 여기에 대해 그가 받은 죄의 벌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 땅이 다시는 충분한 소산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 땅에서 피하여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SECTION 4

FAITH AND MURDER

Genesis 4

Adam and Eve had been driven from the Garden of Eden to commence a life of toil and suffering, under sentence of death; with a nature that was bent away from God, and prone to sin. How strong this proneness to sin was, became abundantly clear in the next generation. Jealousy, hatred and murder began the long history of man.

Cain and Abel pursued different occupations. *“Abel was a keeper of flocks, but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 (Gen. 4:2). The difference between the brothers became even more apparent when they came before God in worship: *“Cain brought an offering to the LORD of the fruit of the ground. Abel, on his part also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portions”*. God had made it clear that He required an offering which involved the shedding of blood. This was plain from His rejection of the fig leaf covering and the provision of coats of skin to cover the nakedness of Adam and Eve. Abel acted on the basis of what he understood and knew to be right. *Heb. 11:4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through which he obtained the testimony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ying about his gifts, and through faith, though he is dead, he still speaks”*.

Cain, on the other hand, wanted things his own way. He thought he could worship God any way he liked, and stubbornly rejected any argument to conform to God's way.

It's not enough that men should recognize that God exists, but that they should worship Him in truth and in the right spirit. Read John 4:23; and 17:3. A person may desire to worship God, but he must do it in the right way. Cain thought God should be pleased merely because he worshipped Him.

A Divine Principle

This raises a first principle of the doctrine of man's reconciliation to God: that God's law must be obeyed before pardon can be extended. Because God's will was not obeyed, Cain's offering could not be accepted. But the same standard applied to Abel's offering meant that God's ways had been acknowledged, and mercy could be extended to him.

Instead of repressing his anger and acknowledging that God was right and just, Cain brooded and finally killed his brother. His punishment is stated in v. 12:

- The earth would no longer yield to him its full increase;
- He must wander in the earth as a fugitive and vagabond.

하나님께서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이름의 다른 아들을 주셨다. ‘셋’은 그의 형 가인과는 다르게,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다. 이처럼, ‘셋’으로 대표되는 참 경배자들과, ‘가인’으로 대표되는 거짓 경배자들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이 두 부류는 서로 적대하는 관계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부류를 말한다. 오늘날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창세기 4:16-24의 기록은 하나님을 벗어난, 가인의 후예에 관한 기록이며, 반면 창세기 5장의 기록은 여자의 후손, 즉 ‘셋’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다.

창세기 4:15-24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후손은 세상을 추구하며 향락과 폭력을 따랐던 반면, ‘셋’의 후손은 장차 그들이 안식을 취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이다. 창세기 4:25, 26; 창세기 6:2.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1.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여야 한다.
2.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만, 그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다.
3. 아벨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였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에 둘 사이엔 적대감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이러한 ‘적대감’이 존재하게 될 것을 미리 지적하였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적대감’이 존재한다.
4.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셋’이 일어난 모습은, 악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God gave another son to Adam called "Seth" who took Abel's place. He worshipped God in truth, and obeyed God's commandments in contrast with his elder brother Cain. Thus commenced two classes of people; the true worshippers of God represented by Seth and the false, represented by Cain. These represent two opposite and antagonistic classes of men - the seed of the woman and the seed of the serpent. These two classes of people exist to this day..

Gen. 4:16-24 records the deeds and godlessness of Cain's descendants while Gen. 5 lists the descendants of Seth, the seed of the woman.

As we've noticed, Cain's line was noted for worldliness, pleasure and violence, Gen 4:16-24 but Seth's line preserved God's way realizing that their future rested in Him. This line formed the "sons of God". Gen. 4:25, 26; Gen. 6:2

Lessons For Us

1. It's not enough to merely worship God; we must worship Him correctly.
2. Only when we honour God's way, will He extend mercy to us.
3. The enmity arose between Cain and Abel because one worshipped God correctly and the other did not. This illustrates that "enmity" which God said would exist between the "seed of the woman" and the "seed of the serpent". This antagonism exists today between those who follow God's way, and those who follow the flesh.
4. The killing of Abel by Cain and the raising up of Seth point forward to the crucifixion of Jesus at the hands of wicked men, and his subsequent resurrection.

제 5 단원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5 장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경우

어떤 생각이나 모습이 성서에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생각이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기를 원하니, 특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미세한 메아리로 반복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메아리의 음성이 아주 강력하여 실수 없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창세기 5장의 첫 부분 두 구절은 창세기 1:26, 27의 강력한 메아리이다.

창세기 5장의 첫 두 구절

앞선 구절로부터의 메아리

- | | |
|---------------------------------|---------------------------------|
| • 5:1 “(창조하실) 때” | 2:4; 2:7; 3:5 |
| • 5:1 “창조하실 (때)” | 1:1,21,27; 2:3 |
| • 5:1 “하나님의 형상대로” | 1:26 |
| • 5: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 1:27 |
| • 5:2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 1:22,28; 2:3 |
| • 5:2 “그들의 이름을 사람(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 2:19,20,21,23; 3:8,9,17; 4:1,25 |
| • 5:2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 2:4 |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창조에 관여하였음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심상을 좇아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셨다. 사함이 가진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배경이며,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명백히 한다. 창세기 5장은 이러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창세기 5장, 죽었더라’ 를 언급한 장

성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몇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몇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성서구절들을 대하게 된다. 이처럼 문장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특정한 햇수의 삶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다시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깊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그가 ... 죽었더라”라는 부분이 이 구절들의 요점이다.

SECTION 5

THESE ARE THE GENERATIONS

Genesis 5

Repetition in scripture

Whenever scripture repeats a thought or idea, it is to emphasize that thought or idea. It is as if God is saying, "I want to make a special point of this, so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Sometimes the repetition is in the form of a faint echo, other times the sound of the echo is so strong as to be unmistakable.

The first two verses of Genesis 5 have unmistakable echoes of Genesis 1:26,27.

Phrases in Genesis 5:

Echoes from earlier chapters:

- | | |
|---|-------------------------------------|
| • 5:1 "in the day" | 2:4; 2:7; 3:5 |
| • 5:1 "God created" | 1:1,21,27; 2:3 |
| • 5:1 "in the likeness of God" | 1:26 |
| • 5:2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 1:27 |
| • 5:2 "and blessed them" | 1:22,28; 2:3 |
| • 5:2 "named them Man" | 2:19,20,21,23; 3:8,9,17; 4:1,25 5:2 |
| • 5:2 "in the day when they were created" | 2:4 |

The student is repeatedly reminded in a variety of ways of God's direct involvement in the creation of all thing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His creation of man in His image and likeness. This sets the tone for all of God's subsequent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s with men and women and emphasizes their dependence on Him for all things. It clearly establishes His superiority to our first parents and to all ensuing generations, including ours. Genesis 5 lends its support to that continuing theme.

Genesis 5, the chapter of death

The student is struck by the repetitious use of several phrases relating to the life and death of mankind; such phrases as "he lived x years", "became the father of ____", "and he died". These repetitive statements force the student to accept the facts of creation; that man was created by God, he lives a certain number of years, he is to have children and "return to the dust" in death. It is this last point which is given the greatest emphasis in the phrase "and he died".

창세기 5장에서, “그가 ... 죽었더라”라는 구절은 여덟 번 반복된다! 망자(亡者)들이 각각 얼마의 나이를 살다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아담	930세	(5절)
셋	912세	(8절)
에노스	905세	(11절)
게난	910세	(14절)
마할랄렐	895세	(17절)
므두셀라	969세	(27절)
라멕	767세	(31절)

아담에서부터 홍수 시기까지의 시대에 인간의 수명은 아주 길었으며, 평균적으로 900세 이상을 살았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속히 단축되었다. (1단원 후반의 도표를 살펴보자) 각 구절마다 족장들의 마지막 나이가 기록되었고(에녹은 예외이다) “그가 ... 죽었더라.” 라는 구절이 반복된다. 창세기 5장은 이러한 이유로 “죽음”에 관한 ‘장’이라 불리며, 그들이 아주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에녹은 독특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볼 가치가 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족장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평가된다. 22절에 따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좋게 기록되었다. 24절에 다시 이 말을 반복한 것은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 어떤 성서 번역본은 “동행하였다”라는 말 대신에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구절로 번역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히브리서 11:5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에녹을 평가한다. 개인에 대한 평가로서 더 이상 훌륭한 평가가 어디에 있겠는가?

처음 아담과 둘째 아담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죽음이 임한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째 아담(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기록과 둘째 아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로마서 5:21 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Genesis 5 repeats "and he died" eight times! This cold comment includes the ages of the deceased individuals at their death as follows:

Adam	at 930 years of age (v5)
Seth	at 912 years of age (v8)
Enos	at 905 years of age (v11)
Kenan	at 910 years of age (v14)
Mahalalel	at 895 years of age (v17)
Methuselah	at 969 years of age (v27)
Lamech	at 767 years of age (v31)

Life spans from Adam to the time of the flood were very long, averaging over 900 years! Following the flood, they rapidly declined. (See the chart at the end of section 1) In every verse that speaks of the final age of the individual patriarch (excepting Enoch) there is the repetitive phrase "and he died". This is why chapter 5 has been styled "The Chapter of Death" for it impresses on our mind that despite very long lives, each one died.

Enoch "walked with God"

In contrast to the other individuals listed in Genesis 5, there is a unique description of Enoch which is worth a comment. None of the other patriarchs enjoy a similar evaluation. The delightful description of Enoch is in v22; Enoch "walked with God". For emphasis, it is repeated in v24. Some translations substitute the word "pleased" for "walked" and the verse reads "Enoch pleased God".

It is this expression which the Apostle Paul uses in Hebrews 11:5 to describe Enoch *"...he for he obtained the witness that he was pleasing to God"*. What a lovely evaluation of an individual!

The first and second Adam

The death of Adam and of his descendants is discussed by the Apostle Paul in Romans 5:12-14: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death reigned over them".

This emphasis on death is in stark contrast to the life that is to found in the second Adam, Jesus Christ our Lord. Romans 5:21: *"so that, as sin reigned in death, even so grace would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아담의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죽음의 선고아래 있었으나, 이러한 선고 아래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처음 아담의 계보에서 둘째 아담의 계보로 옮겨, 그리스도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습문제

학생들은 처음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관련한 성서를 읽고 이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보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에녹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 히브리서 11:5,6 의 구절에서, 요점이 되는 낱말은 무엇인가?
-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성서 구절을 읽어보면 위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모스3:3; 창세기 17:1; 창세기 26:5; 창세기 48:15; 시편 86:11; 에베소서 2:8-13.

학생들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전해 보기 바란다.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어떤 것인가?
-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마무리 설명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기뻐하지 않거나의 양자를 택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는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미가 6:6-8.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도전장을 내민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가 ... 죽었더라.”라고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금의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Men and women from Adam's time to ours are all under the death sentence but there is no need to remain under that sentence. We can move from being in the line of the "**first Adam**" to the line of the "**second Adam**" and receive the benefits of his triumph over death and the grave.

An exercise for the student

The student is encouraged to read and meditate on how to move from being in the first Adam to being in the second Adam.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assist in this mini study.

- What was it about Enoch which pleased God?
- What is the operative word in Heb 11:5, 6?
- What is meant by "walking with God"?

Suggested references to develop your answer; Amos 3:3; Genesis 17:1; Genesis 26:5; Genesis 48:15; Psalm 86:11; Ephesians 2:8-13.

The following personal questions are intended to challenge the Bible student.

- What is it which gives God pleasure?
- Am I pleasing God?
- Am I "walking with God"?

Final comments

God is capable of being pleased or displeased. He expects us to please Him and He has given us the means, the tools to please Him. Micah 6:6-8.

Genesis 5 challenges us with the issues of death and of life. What will b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me? Is it "And he died", or is it "that he should not see death"? We make the answer now.

제 6 단원

인간의 사악함이 극도에 다다르다

창세기 6 장 - 9 장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4:26)”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오랜 동안 분리된 관계로 지냈다. 가인의 후손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부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이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처하곤 했다. (창세기 4:17-24)

하지만 점차로, 두 부류의 사람들 간의 구별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인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4:26)”,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들”의 생활상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두 부류 간의 분리는 점차로 사라져갔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 어떤 이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그들과 결혼하였다 (6:2). 이와 같은 연합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 결국 그 후손을 볼 수 없는 불행이 초래되었다 (6:5).

당시에 지구상에는 “거인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체격이 큰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여 악한 일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모든 부분에 악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다 (5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悖 어그러질 패, 壞; 무너질 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1절). 그들의 부패가 널리 퍼져 극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을 멸절하실 것을 결정하셨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창세기 6:7).

노아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있다. 노아의 성품과 행실이 9절에 기록되어 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에녹의 행실이 여기에 다시 메아리 된다). 그의 주변에는 온통 사악함만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옳은 길을 따랐고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보시고 그를 받아들이셨다. “이 세대에 내가 의인을 보았노라.”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의 악함이 널리 퍼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120 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두셨다(3 절)

SECTION 6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Genesis 6-9

For a long time the descendants of Seth, “men” who “*beg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4:26), maintained their separateness from the descendants of Cain, self-centered men who cared nothing for the worship of God. They were very successful in their pursuit of wealth and fleshly pleasure: and very brutal in their treatment of whoever stood in their way. (Gen. 4:17-24)

But, gradually, the separateness between these two groups disappeared. There was a rapid population increase; “*me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land*” (6:1) and as men began to spread over the earth, the “sons of God” came to look enviously at the life-style of the “sons of men”. Little by little, the separation diminished. Some of the “sons of God” were seduced by “the daughters of men” and married them, (6:2). The alliances proved disastrous: the “sons of God” were completely drawn away into worldly ways (6:5).

In those days, there were “giants” in the earth: not necessarily men of large physique, but individuals who were power hungry, wishing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They are termed “*mighty men of renown*” (6:4), famous for their wickedness. Wickedness came to abound on every side. Men’s hearts were full of rebellion and evil (v. 5). “*Now the earth was corrupt in the sight of God,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v. 11). So widespread was the corruption that God determined to bring that civilization to an end.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land, from man to animals to creeping things and to birds of the sky;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Gen. 6:7)

Noah

Alone in that world of ungodliness, “*Noah found favour in the eyes of the LORD*” (v. 8). His character and conduct are stated in verse 9: “*Noah was a righteous man, and blameless (upright, perfect) in his time; Noah walked with God*”. (echo - Enoch) Though surrounded by wickedness on every side, he maintained his righteous ways, and God looked on him with favour and accepted him: “*you alone I have seen to b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time*” (7:1)

Heb. 11:7 “By faith Noah, being warned by Go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reverence prepared an ark for the salvation of his household, by whic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an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according to faith.”

Yet even in the face of the wickedness of the vast majority of men and women and His impending judgment, the long-suffering of God stands out. He determined to give the people of the world 120 years to repent by acknowledging their sin, confessing it and turning to Him (v.3);

베드로전서 3: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관한 지시를 받고(13절), 이를 전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다 (베드로후서 2:5).

하나님께서서는 노아를 명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피난처를 삼으라고 지시하였다. 이 방주는 현대적 기준으로 보아도 거대한 크기의 배이다. 그 길이가 대략 150미터에 달하고, 폭은 25미터이고 높이는 15미터이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모와 치수를 자세히 지정하셨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잣나무를 사용하여 만드되 구획을 나누어 방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도록 하였다. 창문과 문이 있었으며 3층의 구조로 되어있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지시한 지침을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생명을 보존해야 할 모든 동물과 새들의 암컷과 수컷이 방주에 들어갔다. 그들이 방주라는 갇힌 곳에서 먹고 지내기 위한 양식 또한 마련되어 저장되었다.

방주는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노아는 여전히 굳건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노아가 했던 경고를 점차로 무시하였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징조는 무시한 채 자신의 육신적 즐거움을 쫓는 데로 향한다. (마태복음 24:36-39) 역사는 이처럼 반복된다.

대홍수

“노아가 ...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 노아는 홍수가 닥치기 전에 세상에서 구출되었다 (7:4). 이것은 노아의 구원에 있어서 신비로운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부르실 것이다. (이사야 26:20,21; 데살로니가 전서 4:16,17; 마태복음 24:31). 여호와께서는 방주에 “그를 담아 넣으셨다.” (16절).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퍼부었고, 바다의 물이 일어 땅의 가장 높은 산들조차도 물에 잠겼다. 물은 150일 동안 세상에 가득하였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7:23).

방주에서 나오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고 “깊음의 샘”을 닫으셨고, 바람이 불어 물이 감해지게 하셨다. 물은 점차로 줄어들어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었다. 물이 점차로 줄어들어, 10월의 첫날에는 산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다. 40일이 더 지나고 나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여” 방주로 돌아왔다. (9절).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날려 보내자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뜯어 물고” 돌아왔으므로, 노아는 물이 가라앉았음을 알 수 있었다.

1 Pet 3:20 *"the patience of God kept waiting in the days of Noah,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ark, in which a few, that is, eight persons, were brought safely through the water."* Noah, having been instructed about the coming judgment (v.13), proclaimed God's word. Thus he became *"a preacher of righteousness"* (2Pet. 2:5).

God commanded Noah to make an ark in which they could find shelter. The ark was a very large boat even by modern standards. Its size would have been around 150 metres long, 25 metres broad, and 15 metres high. Notice that the details and measurements of the ark were laid down by God. It had to be made of gopher wood, with rooms, pitched inside and out with pitch. It was fitted with a window and a door and constructed with three stories. Noah, and later generations were being taught that salvation is offered **only if** the instructions God has laid down are closely followed.

Every living thing was to die, except those that entered the Ark of Safety. In order to preserve life, representatives of all kinds of animals and birds, male and female, were to be led into the ark, with Noah and his family. Food also was prepared and stored there for the long period they would be shut in.

The years passed as the ark took shape. Noah remained resolute throughout it all. But as time went on, without the flood coming, the people worried less and less about what Noah was saying - just as people today ignore the signs of Christ's return and devote themselves to selfish pleasures. (Matt. 24:36-39) History will repeat itself.

The Deluge

Noah was taken out of the world before the flood came (7:4), because it is said of him *"according to all that God commanded him, so Noah did"* (6:22). This is the secret of Noah's success. In the same way, the friends of Jesus Christ will be gathered out of the nations before God judges the world. (Isa. 26:20,21; 1Thess. 4:16,17; Matt. 24:31). The LORD then "shut him in", and in so doing, shut all the others out.

It poured rain and ocean water rushed onto the land for 40 days and 40 nights, so that even the high mountains were covered. The waters prevailed upon the earth for 150 days, and *"Thus He blotted out every living thing that was upon the face of the land, from man to animals to creeping things and to birds of the sky, and they were blotted out from the earth; and only Noah was left, together with those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7:23)

Released from the ark

God stopped the rain and the *"fountains of the deep"* (8:2), and caused a wind to pass over the earth which caused the water to abate. They gradually diminished, so that on the 17th day of the 7th month, the ark came to rest on the mountains of Ararat. On the first day of the 10th month, the mountain tips could be seen. Forty days later, Noah opened the window and sent forth a raven and a dove to see if the waters were abated. The raven didn't return, but the dove did, finding *"no resting place for the sole of her foot"* (8: 9). Seven days later, the dove was sent out again, and returned *with "a freshly picked olive leaf,"* so Noah knew the waters had subsided.

또다시 7일이 지난 후,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 보냈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 물은 해가 바뀐 첫 달, 첫 날에 말랐다. -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짐을 메아리로 말하는 것일 것이다.

노아는 1년 이상 방주에 머물렀었다. (7:11과 8:13,14를 비교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과 새들에게 방주를 떠날 것을 명하시고, 지구상의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징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희생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하셔서, 앞으로는 지구를 저주하여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 곧 새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8:22). 에덴 동산에서의 저주 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라는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창세기 9:1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무지개는 비가 내림과 더불어 해가 비침에 의해 형성된다. 무지개는 일곱 개의 색이 있으며, 이 일곱 개의 색을 더하면 태양 빛인 흰색이 된다.

성서에서 말하는 상징언어로 살펴보면, **태양은** 예수, 즉 “*의로운 해(말라기 4:2)*”를 말하며, **구름은** 성도들을 말한다. (히브리서 12:1). **비**는 지구에 내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신명기 32:2). 그러므로 무지개에 담긴 징표는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을 알 때가 올 그날을 상징하는 징표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빛나며, 그가 다스리는 땅에 순전하고 완전한 영광이 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침례가 상징하는 것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20에서,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침례에 견주어 말한다. 그리스도를 믿음과 더불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 (마가복음 16:15,16; 사도행전 22:16).

노아시대에, 홍수가 일어나 세상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있었다. 침례는 새 생활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이다. (로마서 6:4).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갈라디아서 3:27).

예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마태복음 24:37-39)*”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는다. ‘**노아**’라는 낱말은 ‘**숨**’을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시려 심판하실 그 날에, 믿는 자들이 ‘**숨**’을 얻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19).

After a further seven days, the dove was sent out a third time, but did not return. The waters were dried up on the “first” year, in the “first”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 surely an echo of a new beginning - a new start.

Noah was in the ark for over a year, (Compare 7:11 with 8:13,14). God then commanded him to take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and birds, and leave the ark, to make a new beginning on the earth. His first act was to build an altar and offer burnt offerings to God in gratitude for His deliverance.

The symbol of God’s Covenant

God accepted Noah’s sacrifices. He made a covenant and declared He would not again curse the earth as He had done, destroying all living creatures. The language of the covenant indicates a new creation, a new world, *“While the earth remains, Seedtime and harvest, And cold and heat, And summer and winter, And day and night Shall not cease”*. (8:22) The Edenic curse upon the ground, by which it yielded “thorns and thistles” would remain, but never again would God send a universal flood. (Gen. 9:11)

As a token of this covenant, God set His rainbow in the cloud. A rainbow is formed by the sun shining through falling rain. There are seven colours in a rainbow, and when these seven colours are combined, they make the white light of the sun.

In Bible symbology, the **sun** speaks of Jesus, the “Sun of righteousness” (Mal. 4:2); the **cloud** speaks of the saints (Heb. 12:1); the **rain** speaks of the teaching of God falling on the earth (Deut. 32:2). Thus the token of the rainbow looks ahead to the time when all flesh shall come to know God. The glory of the Lord Jesus Christ will then be seen through the saints in various ways, all combining to show the pure and complete glory of his reign on earth.

The figure of baptism

Peter (in 1Pet. 3:20) likens the salvation Noah experienced in the Ark, to baptism. By belief in Christ and baptism in water, our sins are washed away. (Mark 16:15,16; Acts 22:16)

So, in the days of Noah, the waters of the flood washed away the sins of the old world, that a new world might begin. Baptism signals the commencement of a new life (Rom. 6:4). By baptism, we enter a new life in Christ (Gal. 3:27), who is **our** ark of safety.

Because we are “in Christ”, we will be saved when God’s judgments are poured out on a wicked world - a world which Jesus said would be *“just like the days of Noah”* (Matt. 24:37-39). The word “**noah**” means “rest”, and in the day of judgment when God establishes a new order in the earth, there will be “rest” for the faithful. (Heb. 4:9).

제 7 단원

여러 민족들의 기원 - 창세기 9:18-28 그리고 창세기 10

홍수가 지나고 다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지구는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으로 인해 다시 번성하였다. 창세기 9: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로 인해 모든 문명을 멸해지고 단지 8명만이 살아남은 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8:21).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였다. 노아의 아들인 ‘함’과 그의 후손인 가나안의 모습에서 곧바로, 인간의 부도덕성이 나타났다.(9:22-25). 가나안의 후손들은 부도덕함에 더욱더 빠져들었다. (레위기 18:2-3).

가나안 족들이 거하기로 결정한 장소는 우리의 흥미를 이끈다. (창세기 10:15-19).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지역은 추후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과 그들의 후손이 이주하여 거한 지역들을 설명한다.

야벳은 유럽인들과 아일즈인(Isles; 그리스인 고멜인, 도갈마인, 아스그나스인, 메데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10:2-5)

함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으나, 그의 두 아들 - 가나안과 구스(쿠시)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로 갔다.(10:6-20). 함의 후손으로 유명한 사람은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며, 8절-11절에서 언급된다. 그가 수립한 ‘나라’는 왕국으로서, 성서에서 최초로 나라라는 낱말이 사용되는 장면이다. 니므롯은 시날 땅에 바벨(바벨론)을 건설하였으며, 앗수르(앗시리아)로 가서 니느웨를 건설하였다. 그가 바벨을 건설한 사실은 유의해 보아야 할 점이다.

셈은 중동 지역에 머물렀으며, 그의 후손은 셈족이라 불린다.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고한 후(9:25), 그는 셈에게 주의를 돌려 이번에는 반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축복하였다(26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셈의 계보를 통하여 영적인 선택의 과정을 시작하셨으며, 이 선택은 결국 아브람(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스라엘)으로 이어진다.(1 단원의 후단에 첨부된 도표에 함, 셈, 야벳의 후손들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실행하실 것을 성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단원 9에서 단원 15까지에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전파되었음을 명시하면서 끝맺는다. 창세기 10:32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성서의 주석(관주)을 참조하여,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이 이름이 나타나는 성서의 구절을 찾아보는 성서공부는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SECTION 7

The Origin of Nations - Genesis 9:18-28 and Gen. 10

After the Flood, a new beginning was made. The earth was repopulated by the sons of Noah and their wives: Shem, Ham, and Japheth. Gen. 9:19 *"These were the three sons of Noah, and from them came the people who were scattered over the earth". (NIV)*

But even after the destruction of that whole civilization, with only eight persons alive, God was moved to say, *"the intent of man's heart is evil from his youth". (Gen. 8:21)* Human nature was still the same. This was displayed almost immediately by Ham and his son Canaan who showed signs of immorality (9:22-25). Canaan's children sank further into immorality with successive generations. (Lev.18:2-3).

It is interesting to note where the Canaanites chose to dwell.(Gen.10:15-19). The "cursed" people lived in the land which was later promised to the "blessed" people - Abraham and his seed! Chapter 10 indicates where each of the three sons of Noah and their offspring migrated.

Japheth was the father of the Europeans and the Isles (Greeks, Gomer, Togarmah, Ashkenaz, Medes) Gen. 10:2-5.

Ham drifted down to the African continent with the exception of two of his sons - Canaan and Cush (Egyptians, Philistines) v. 6-20. Ham's other most noted descendant was Nimrod, son of Cush, mentioned in v. 8-11. The word "kingdom" is used here for the 1st time. He built Babylon in the land of Shinar, and also went into Assyria and built Nineveh. Particular notice is drawn to the fact that he built "Babel" (Babylon).

Shem stayed around the Middle East, and his offspring are known as the Semites. After pronouncing a curse on Canaan (9:25), Noah turns his attention to Shem and pronounces quite the opposite and in v. 26 Noah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God, through Noah, is beginning the selection process through the line of Shem which, in time, narrows to Abram (Abraham), to Isaac and then to Jacob (Israel). (The chart at the end of section 1 traces the descendants of Ham, Japheth and Shem.)

The Bible clearly teaches that God had a special purpose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a matter which will be discussed in Sections 9 through 15.

Genesis 10 closes with the global statement that all nations are descended from Noah through one or another of his three sons. Gen.10:32 *"These are the families of the sons of Noah, according to their genealogies, by their nations; and out of these the nations were separated on the earth after the flood.."*

It is a fascinating Bible study project to follow the marginal references beside the name of each child or to look up the name of the child in a concordance and then look up all the Bible passages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at child.

제 8 단원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창세기 11 장

창세기 10장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의 몇 대 손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1장에는 이들의 행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11장은 “온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한다. 이는 지구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다. 성서 상에서 ‘지구-땅’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언서에서 그렇다. (미가서 1:2).

성서 용어 색인 사전을 사용한 숙제

학생들은 자신의 색인 사전을 사용하여 “지구, 땅”이라는 낱말을 찾아보고, 성서가 종종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서, 보통 사용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서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의미의 파악이 가능하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에 에덴동산이 위치했다는 것은 지난주의 학습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을 보면 두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되어있다. 강은 동쪽을 향해 흐르고 있는데, 영어 KJV 성서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옮겨왔다”라고 한다. 그러나 몇몇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그들이 동쪽 곧 문명의 요람이라고 알려진 지역을 향하여 움직여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개역성서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번역한다. 역자 주. 11:2)

국수주의적(이기주의적)인 사회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가운데, 특히 4절을 살펴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그들의 사회가 국수적 사회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삶에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뒷전으로 내모는 경우에, 자신이 우선되는 태도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에 기초한 계획을 세우고, 이기적이며 자만에 빠진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모는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SECTION 8

The Whole Earth was of One Language

Genesis 11

Chapter 10 provides the student with broad brush stroke information of the several generations which followed Noah and his three sons, Shem Ham and Japheth. Chapter 11 follows by filling in the details of their behaviour.

Chapter 11 describes the activity of the "*whole earth*"; an obvious reference to the people of the whole earth and not to the earth itself. The Bible often refers to the earth when in fact it is speaking of the peoples of the earth.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prophetic books, e.g. Micah 1:2.

A mini assignment using a concordance

The student is encouraged to use his/her concordance and look up the word "earth" and prove this point to himself because i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Bible often uses one thing to describe another. The context of the verse usually gives a clue for correct understanding.

In last week's class, Eden was placed toward the headwaters of the Euphrates and Tigris rivers. However, the activity and places described in Genesis 11 occurred toward the mouth of these rivers. The direction from the headwaters to the mouth of those rivers is easterly which appears to contradict the KJV (v2) which reads "*they journeyed from the east*". The seeming contradiction is cleared up in the margin of several versions and in the text of several other versions where it is stated they "*journeyed eastward*" into the area commonly known as the cradle of civilization.

A selfish society

Beginning with verse 3 through to verse 7, the student is encouraged to circle every time the words "**us**", "**they**" or "**we**" are used. The predominant use of these three words in the conversation of the people betrays the fact they were self-centered. "*They said one to another*" is a phrase which excludes God; they had no room for Him in their lives. They shared the same objectives and ideals among themselves, but they had the wrong focus to their lives. Whenever mankind pushes God into the background, or worse, excludes Him all together, the peoples aims and objectives become selfish and a "me first" attitude is displayed. The peoples plans were based on "*us...ourselves...we...ourselves*", evidence of their egotistical and proud attitudes. This attitude is evident in an increasing segment of today's society as God is pushed further into the background.

성서의 메아리

그들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3절 구절을 보면, 성서가 정확한 기록임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해준다. 그들이 머물던 지역에서는 건축 재료로서 돌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한편, 벽돌은 사람이 만든 재료이고,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축 재료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달리 말하는 바가 있다.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위(돌)위에 지어지며 돌을 사용하여 건축된다는 것이다. (시편 18편 1-3절, 시편 62편 1-2절, 시편 78편 12-14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재료를 사용하여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인간을 위한 목표를 세우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그릇된 결과를 낳는다. 역사적 증거를 통해 보면, 사람들의 그릇된 초점이 그릇된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번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것만이 올바른 초점이고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앞부분에도 “뜻이 ...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삼아야 할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렇지 않았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었다. (6절)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9:1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다. 그러나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 지면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다. (4절).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취하며 한정된 지역에 머무르기를 의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것에 반대되는 자신의 의도를 과시하기 위하여, 높은 탑을 쌓아 기념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신 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경이로운 방법을 취하셨다.

창세기 11:7에 있는 두 가지 기적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땅의 온 사면에 흠으셨다.

첫 번째 기적은 그들의 언어가 분리된 것이다. 사람들을 흠는데 있어서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온 지구상에 흠어지기 시작하였다.

질문 -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답은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보아라.

Bible echoes

Bible accuracy is found in verse 3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e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s as brick and slime. This was necessary because no other suitable building materials such as stone were available in this region. But beyond this fact, another emerges when it is recognized that brick is a man made material and stone a God made material; but they used brick. The Kingdoms of men are made of man made material, but the Kingdom of God is built on and of rock (Psalm 18, verses 1-3, psalm 62, verses 1-2, psalm 78, verses 12-14). But these people intended to use their man made materials to "*build us a city, and a tower, whose top may reach unto heaven*"! When man sets his own goals for himself and leaves God out of it, he has it all wrong. History testifies to the fact that man often has the wrong focus and wrong result. It is only when men and women focus on the revealed will of God in His Word and make God's will theirs, is there the right focus and result. After the opening salutation in the Lord's Prayer follows the statement "*Thy will be done*". This should be the focus and objective of the student of God's Word. But this was not the focus of the people described in Genesis 11.

The people is one and they have one language (v. 6)

Genesis 9:1 contains God's clear instruction to Noah, his sons and their offspr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but by the time chapter 11 occurs, the people were taking steps to prevent being spread over the earth. They said "*let us make for ourselves a name, otherwise we will be scattered abroa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v4).

Instead of taking to themselves the name of God and showing His divine characteristics, they intended to make their own name and to stay in a confined area. The tower was to serve as a visual reminder of their declared intentions to oppose God's clear instructions to their forefathers. God saw this disobedience, recognized He was not central in the minds of the people and took steps to accomplish His purpose by miraculous means

The two miracles of Genesis 11:7

God instructed His angels ("*let us*") to "*confuse their language*" (v7) causing them to be scatter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Miracle #1 occurred when, instantaneously, the people spoke several languages, a condition which exists to this day. There is no more effective way to disperse people than to disrupt their communications. And so the people began to spread out over the earth as God had intended in the first place.

Question - on what occasion was communication improved by a single message being heard in several languages? Look up the answer in Acts 2.

두 번째 기적은 사람들이 원래의 언어를 잊은 것이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후 모두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였는데, 두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였다. 사람들은 이웃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 갔다.

바벨

수백 년 동안 실제로 존재하였던 옛 도시가 발견되었다. 그 도시의 이름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바벨이라고 불렸는데, “혼란, 소란”을 의미한다. ‘혼란’이라는 말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1. 복잡한 소리, 특히 사람들의 말소리
2. 시끄러운 조직체
3. 혼란스러운 상황

그 도시의 이름은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목적 또는 의도”라는 의미이다.

바벨론은 도시였으며, 나중에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는 셈의 자손(즉, 히브리족, 유대민족)들과 적대하였다.

그러한 적대관계는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되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 4장에,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왕국의 운명 및 그 이후의 나라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꿈을 통해 전달받는 내용을 읽어보기 바란다.

인간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적대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마침내 굴복할 것이다. 다니엘서 4:37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존재하심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고생 가운데 이 교훈을 얻었는바, 세상의 모든 왕들도 조만간 이와 동일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서중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바벨론이라 불리는 말세의 권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바벨론은 어떤 지역에 위치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적대하였던 바벨의 권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계시록 18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바벨론의 권력에 관해 말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계시록 18:3-10).

Miracle #2 occurred when the people's memory of their original language was wiped out. Individuals were unilingual before the miracle and they were unilingual afterwards too, but it was a totally different language! They could not communicate with their neighbor and as a result the people scattered into other lands.

Babel

A city was founded at that time which existed for centuries as a real city. Later, the name of that city stood for those who oppose God. It was first called Babel, which means "confusion" as the student will note from the margin. This word has found its way into our language and means:

1. a confused noise, especially of voices
2. a noisy assembly
3. a scene of confusion

Later it became known as Babylon, meaning that which "voices plans or purposes in opposition to God".

Babylon as a city and later as a nation was in opposition to the sons of Shem (the Semites, the Hebrews, the Jews).

That conflict has continued through the ages. The student is encouraged to read the first four chapters of the prophecy of Daniel in which the King of Babylon receives a dream about the fortunes of his kingdom and of several Kingdoms which will follow his.

The kingdoms of men have always been in opposition to God's will but in time they too will succumb to God's almighty power. Daniel 4:37 closes with a reformed King Nebuchadnezzar declaring the omnipotence of the God of Heaven: *"Now I, Nebuchadnezzar, praise, exalt and honor the King of heaven, for all His works are true and His ways just, and He is able to humble those who walk in pride"*. King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learned this lesson the hard way and soon the kings of the earth will learn the same lesson the same way.

The last book of the Bible, Revelation, speaks of a latter day power called Babylon. It is not a literal city with a geographic location, but it is a power which is in opposition to God in the same way as Babel of old was in opposition to Him. Revelation 18 describes this latter day Babylon as a power which is interested in material things *"Woe, woe, the great city, Babylon, the strong city! For in one hour your judgment has come. And the merchants of the earth weep and mourn over her, because no one buys their cargoes any more-- cargoes of gold and silver and precious stones and pearls and fine linen and purple and silk and scarlet, and every kind of citron wood and every article of ivory and every article made from very costly wood and bronze and iron and marble, and cinnamon and spice and incense and perfume and frankincense and wine and olive oil and fine flour and wheat and cattle and sheep, and cargoes of horses and chariots and slaves and human lives."* (Rev. 18:10-13)

이들이 추구하는 권력들은 삶의 참된 주제들 즉,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것들에서 벗어난 물질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과거의 역사속의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장차 있을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2).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10절 - 32절)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은 경배할 건축물을 만들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렸다. 이들의 의사소통이 붕괴되고 민족들로 나뉘어 흩어진 사건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다. 이 사건에 뒤이어, 삶의 초점을 달리한 사람들의 계보가 11장 후반에 이어진다.

당신은 성서의 족보 기록을 읽으면서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영감을 받을 일이 없다고, 혹은 아마도 의미 없는 기록일 것이라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족보, 특히 이 장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

10절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다가 끝부분에 가서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아브라함)’이 소개된다. 창세기 11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1-6, 그리고 누가복음 3:22-38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에서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후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듯이, 이 족보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이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려 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의 반석으로 인도하신다.

다음 단원에서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향하여 바벨탑을 등진 여정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The whole focus of this power is material things to the neglect of the real issues of life; moral and spiritual matters. But as Babylon of old fell, so will the Babylon of Revelation fall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Rev 18:2).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Shem (v. 10-32)

Following the record in verses 1 through 9 of how mankind turned away from God, built their own edifice for worship, had their communication disrupted and were scattered - negative aspects of man's history, we are introduced in the balance of the chapter to a line of men which had an opposite direction and focus to life.

Often genealogies are considered boring reading, quite uninspiring and perhaps useless. But that should not be said of the inspired Word of God, especially in respect of a chapter like this one!

Verse 10 onwards tell us of a line of individuals that by the end of the chapter introduces us to Terah and his son Abram (Abraham). By associating Genesis 11 with Matthew 1:1-16 and Luke 3:22-38 it is clear that Jesus Christ is of the lineage of Shem through Abram (Abraham). And in leading us to Christ, it also leads us to God. In Genesis 11 the people built the Tower of Babel of man made substances and failed. But Jesus Christ leads us to the divinely provided Rock of our salvation, the God of heaven and earth.

The next section, Section 9 will deal in greater detail with those whose lives were different than those associated with Babel. Chapter 12 introduces us to a people who turned their back on Babel and journeyed to a land that God had provided.

제 9 단원

네 본토를 떠나라

창세기 11:27 에서 13:18 까지

아브람은 유브라데스 강변에 위치한 유력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 저명한 고고학자 L. 울리(Woolley)경은 그의 책 “갈대아의 우르”라는 책에서, 우르는 진보된 문명의 도시였으며 거대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인다. 또한 그 도시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으며 달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곳의 문명을 떠나도록 아브람을 부르셨다. 사도행전 7:2을 보면,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람이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곳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히브리서 11:8을 보면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한다.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형제 나홀, 조카인 롯, 그리고 그의 아내 사래와 함께 우르를 떠났다. 아브람은 유브라데스 강의 흐름을 따라 북서 방향으로 길을 떠나, 마침내 하란에 도착했다. 지도상에서 하란을 찾아보기 바란다. 아브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를 받는다. 그는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에 함께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길을 찾았다.

두 번째 부르심

하란을 떠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벨론을 단번에 영영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 멀리 떠나왔지만, 최종적인 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아브람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던 중에 데라가 죽었다.

데라의 죽음이 있는 후, 아브람은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힘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게다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있어서 거스름을 주는 자신의 일족도 제거하였다. 그는 그의 일족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했다. 그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단지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만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12:5).

SECTION 9

GO FORTH FROM YOUR COUNTRY

Gen. 11:27 to 13:18

Abram lived in Ur of the Chaldees, an important city, but a centre of idolatry, on the bank of the Euphrates River. The noted archaeologist Sir L. Wooley, in his book, "Ur of the Chaldees" has shown that the city had great libraries and an advanced culture. It had a massive temple and it was the headquarters of the worship of the moon goddess.

When God called Abram from there, he had to leave a civilization sunk in idolatry. It's clear from Acts 7:2 that the first call to leave Babylon for the land of promise came to Abram in Ur, before he came to Haran. When God called him to leave, He gave him certain promises. Rather than interrupt the narrative of Abram's life, we will consider these promises all together a little later.

We are told in Heb. 11:8 that Abram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Abram left Ur, with Terah his father, Nahor his brother, Lot his nephew, and Sarai his wife. He travelled in a north-westerly direction along the course of the Euphrates River, and eventually came to Haran. Find where Haran is on a map. Here Abram received further instruction from God, and he sought to instruct and influence those there to join him in his entry into the land to which God was leading him.

The second call

To leave Haran and cross the river Euphrates into Canaan was to quit Babylon once and for all. There are those who will go so far in leaving behind the world of sin, but will not make the final break. So it was with Abram's family. It appears that they were reluctant to go any farther. Then Terah died.

This seemed to give the impetus to keep going toward the land to which God was leading Abram. He owed no patriotism to Babylon, the land of his birth. Further, family ties must not restrict his obedience to God. He had to leave his *"relatives"* and go into the land that God would show him. Of his immediate family, only his wife Sarai and his nephew Lot followed him. They took with them *"all their possessions which they had accumulated, and the persons which they had acquired in Haran,"* (Gen. 12:5.)

순례여행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간 후,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 (14장 13절) 이라고 불렸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이다. 아브람은 약속된 땅에 이르기 위하여 바벨론을 떠나 강을 건넜다. 그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사건은 그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물을 건너 것과 신자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명령은 상호 연관이 있으며, 이 주제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아브람의 영적인 발달 과정을 유의하여 살펴보아라.

1.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
2.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등지고 떠날 준비에 착수하였다.
3. 그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았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였다. (히브리서 11:8,9)

그 땅에 들어간 후, 아브람은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그곳을 통과하여(창세기 12:6), 벰엘로 가고, 다시 남쪽으로 브엘세바를 향해갔다. 그는 기근과 한발을 맞아 애굽으로 향했다. (10절).

애굽에서 지낸 일들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롯을 축복하시어 그들은 부유하게 되었다. 기근이 사라지자, 그들은 북쪽으로 벰엘을 향해 나아갔고, 아브람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12:8과 13:3).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다

아브람과 롯이 기르는 양떼가 커지고 양떼를 기를 땅에 관한 경쟁이 생겨났고, 양떼를 치는 목자들 간의 다툼은 필연적 결과가 되어, 그들이 갈라서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아브람은 연장자이며 인도자였으므로, 자신이 먼저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그네였던 아브람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 땅은 롯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약속된 땅이었으므로, 롯은 삼촌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며 양보하여야 했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롯에게 그가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신은 그 나머지를 취하였다.

롯은 요단의 들을 자신의 살 곳으로 정했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롯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난과 황폐함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창세기 13:10-18에서 차례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아라.

1. 그는 물이 넉넉한 들을 바라보았다. 10절
2. 그는 그 들의 부유함을 선택하였다. 11절
3. 그는 동쪽으로 옮겨갔다. 11절
4. 그는 소돔을 향해 자신의 천막을 쳤다. 12절
5. 그는 소돔에서 거했다. 14장 12절
6. 그는 소돔에서의 재앙을 받아 거의 거꾸러졌다. 19장

Abram the pilgrim

Having entered the Land of Promise, he became known as "*Abram the Hebrew*" (Gen. 14:13). The word Hebrew means "A crosser over". He had crossed over from the land of Babylon to the Land of Promise. The symbol of his changed state was his crossing over the River Euphrate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braham crossing the water and the command to be baptised, a subject which will be developed later in this workbook.

Notice the process of Abram's spiritual development:

1. Living in an idolatrous city.
2. He hears the call of God and sets out to leave the world behind him.
3. He comes to the land of Promise, where he lives as a stranger and pilgrim, relying on God's care of him. (Heb. 11:8, 9)

Having entered the land, Abram travelled through it to Shechem (Gen. 12:6) where God renewed His promise (v. 7), to Bethel (v. 8), and then south again towards Beersheba (v. 9). Famine and drought then drove him into Egypt (v. 10).

The time spent in Egypt is not stated, but while there, God blessed Abram and Lot, so that their wealth increased greatly. The drought over, they journeyed north to Bethel, where Abram had built an altar (12:8 and 13:3).

Separation of Abram and Lot

Their greatly increased flocks and herds had to compete for scarce grazing land, and inevitably strife and contention between their herdsmen resulted, and it became clear that they had to separate.

As the elder and the leader of the party, Abram could have commanded Lot to obey his directions, but as a true pilgrim, he was not one to insist on his rights. The land had been promised to Abram, not Lot, and Lot should have deferred to his uncle's judgment, but he did not. So Abram invited Lot to take the land of his choice, and he would take what remained.

Lot chose the plain of Jordan, and he suffered as a consequence. Lot's choice started a chain of circumstances that led him to poverty and near ruin. Follow this train in your Bible in Gen. 13:10-18:

1. He LOOKED toward the well-watered plain v. 10
2. He CHOSE the luxury of the plain v. 11
3. He JOURNEYED east v. 11
4. He MOVED HIS TENT toward Sodom v. 12
5. He LIVED in Sodom 14:12
6. He WAS ALMOST DESTROYED in Sodom's disaster Ch. 19

제 10 단원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다

창세기 14 장

포로로 잡힌 롯을 아브람이 구출하다

이 장에는 소돔의 왕과 고모라의 왕이, 시날(바벨론)의 왕과 이웃의 세 왕과 연합한 연합세력과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있다. 이 전투에서 소돔 지역의 왕이 패하고(14:11), 자신의 거주민들과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다 (14:12). 그 거주민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도 포함되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14:13), 자신이 거느리던 구성원 중에서 군대를 조직하여 롯을 구하려고 출발하였다.

아브라함은 적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은 물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승전하여 돌아오자, 소돔의 왕은 기쁘게 맞으며 전리품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제공하려 하였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받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자신은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므로, 이 전리품 중에서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이 있고 난후,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14:13), 히브리인이란 말의 뜻은 “강을 건너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이 이야기 중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이야기 가운데 3개의 성서구절이 중간에 튀어나오면서, 이야기의 전체 흐름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이다.

멜기세덱

이 사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떡과 포도주가 성서에 등장하는 첫 부분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였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의 족보가 어떤지 혹은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 후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은 더 이상 없다. 이 구절은 또한 예루살렘 (살렘)이 성서에서 언급되는 최초의 구절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18-20)

SECTION 10

WAR AMONG THE KINGS

Genesis 14

Abraham rescues Lot from captivity

This chapter gives an account of a battle between the kings of Sodom and Gomorrah, the cities of the plain, and the king of Shinar (Babylon) with three other neighbouring kings. The kings of the area of Sodom were beaten (14:11), and all the inhabitants, their possessions and food were taken. Now this would include Lot, Abraham's nephew, (14:12), who now lived there, with all his family and possessions. When Abraham heard of this (14:13) he quickly organized an army from his own household, and started off to rescue Lot.

He succeeded in destroying the enemy and returned Lot and all the others to their own places. The king of Sodom was so grateful that he went out to meet Abraham and offered him all the spoil for himself. Abraham refused, saying he wouldn't even take a shoelace, so that the king of Sodom couldn't say that he had made Abraham rich. It is on this occasion that Abraham is described as an "**Hebrew**" (14:13). That word had not been used to describe anyone before, but now Abraham and his offspring are identified as Hebrews, meaning "**one who crosses over**".

But the interesting part of this story is the introduction of a man, interjected in 3 verses right in the middle of the narrative, breaking the sequence of thought, seemingly having nothing to do with this story.

Melchisedek

This man, Melchisedek, is described as a priest of the Most High God, and King of Salem. He and Abraham have a meal of bread and wine (the first mention of bread and wine in the Bible) together, and as great as Abraham is, Melchisedek blesses Abraham. Abraham gives tithes to Melchisedek. No mention is given as to Melchisedek genealogy or how he came to be a priest, or what happened to him afterwards. This is the first mention of Jerusalem (Salem).

"And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now he was a priest of God Most High. He blessed him and said, 'Blessed be Abram of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And blessed be God Most High, Who has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 He gave him a tenth of all". (14:18-20)

이 장면의 막이 내려지고, 그 후로 1000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편 110편에서 다윗왕은 내려진 막을 다시 올렸다. 이 시편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은 “메시아에 관한 시”라고 불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죽보, 서열, 순서)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였다.

메아리 - 창세기의 3개 구절들이 (창세기 14:18-20) 시편 110편에서 메아리가 되어 다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44; 마가복음 12:36, 누가복음 20:42,43; 사도행전 2:34,35,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 1:13에서 다시 나타난다. 다른 곳이 있는지 관주를 찾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죽보, 서열, 순서)’를 좇은 제사장이다. 즉,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다시 말해 레위족속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제사장은 하나의 족속 즉 아론(레위)의 족속에서만 배출되도록 되어있으며(민수기 18:1), 아론의 족속임을 검증받아야 하였다. 또한 레위족의 제사장 신분규정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 하도록 되어있다.(민수기 8:25).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나이 한계가 없으며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직을 수행한다.

다윗 이후에 또 다시 1,000년이 흐르고 나서야, 새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한다. 히브리서 7장에 여기에 관한 설명이 들어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 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라 말한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또한 ‘살렘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서 7:2).

성서는 기본 원리로서, 의로운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평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21)
- “의의 공효(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17)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히브리서 7:3)

멜기세덱은 그의 족보 혹은 부모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의 족보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얻은 족보이다.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였다. (베드로전서 2:9)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히브리서 7:3)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이 태어난 기록과 그의 죽음의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있다. 물론 그도 인간임에 따라 죽음을 맛보았을 것이나, 성서가 그에 관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Then the curtain is drawn. We hear no more of this man until 1,000 years later. King David in Psalm 110 lifts the curtain again. This psalm is one of the "**Messianic psalms**", which prophesy about the coming Messiah. We know from many other passages that it is talking about Jesus Christ.

Psalm 110 verse 4 reads: *"The LORD has sworn and will not change His mind, "You are a priest forever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Echoes - The three verses (Gen. 14:18-20) are picked up in Psalm 110, which in turn is picked up in the New Testament; Matt 22:44; Mark 12:36; Luke 20:42,43; Acts 2:34,35 and particularly in Heb. 1:13. The student may have other references in his margin which should be looked up.

Jesus Christ is to be a priest after the "**order**" or "**arrangement**" of Melchisedek. That is, not of the order or arrangement of the priests of the tribe of Levi under the Law of Moses. Those priests were restricted to being of that tribe, and then of one family - that of the family of Aaron, (Num. 18:1), and they had to prove their genealogy from Aaron. Also under the order of the Levitical priesthood, they performed their services from age 30 to age 50 (Num. 8:25); the High Priest had no age limit, but of course death would terminate his service anyway.

But it's not till another 1,000 years had passed, before we get an understanding of what this new order or arrangement of priesthood was all about. Hebrews 7 gives an exposition of this. This chapter presents Jesus Christ as even greater than Melchisedek, who was greater than Abraham.

Firstly the meaning of his name is given - King of Righteousness; then the meaning of the phrase King of Salem - King of Peace. (Hebrews 7:2)

This is a Bible Principle: That there is no peace till righteousness reigns.

- *"There is no peace, says my God, for the wicked"* Isa. 57:21
- *"And the work of righteousness will be peace, And the service of righteousness, quietness and confidence forever".* Isa. 32:17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genealogy" (Heb. 7:3).

But with Melchisedek's order no genealogy was established, for there is no mention of his parents, though of course he would have had some. So, therefore, his "order" includes King-priests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 (Rev. 5:9,10). The believers of Peter's day are called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Heb. 7:3)

Concerning Melchisedek, no mention is made of his death in the Genesis record, so he stands in the Word of God as an eternal priest. Of course he literally died, as all men do, but what the Scriptures did **not** say about this man speaks loud and clear.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히브리서 7:3)

멜기세덱에 관한 성서의 기록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의 모습은 장차 메시아가 가질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히브리서 7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제사장 직이 일반적 제사장 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 4 절-10 절 일반적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뒤를 따랐다.
- 11 절-19 절 레위족속을 대체하였다.
- 20 절-22 절 ‘맹세(하나님의 서약)’를 통해 제사장이 되었다.
- 23 절-25 절 제사장 직이 영원하다.
- 26 절-28 절 대제사장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made like unto the Son of God” Heb. 7:3)

By this is meant that the record that Scripture has of this man's life, brief though it may be, contains all that is necessary to set Melchisedek out as a type of the priesthood of Messiah. (Mostly by what it does **not** say).

The rest of Heb. 7 continues the exposition of the change of priesthood to Jesus Christ.

- v. 4-10 Inherent greatness of Melchisedek above other priests.
- v. 11-19 Levitical priesthood superceded
- v. 20-22 Christ appointed priest by oath
- v. 23-25 His unchangable priesthood
- v. 26-28 Christ's fitness as High Priest

제 11 단원

하나님이 약속하시다

창세기 12, 13, 15 와 22 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2,3 - 최초의 약속은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이루어졌다.

-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창세기 12:7 -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땅 '세겔'에 들어갔다. "네 자손"이라는 말과,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장소가 이곳이다. 아브라함은 다음 약속을 받았다.

- 아브라함은 가나안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14-17 - 아브라함은 벰엘에서, 롯이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여 떠나간 후, 다음 약속을 받았다.

-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창세기 15장 -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따에서, 당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자손을 갖게 되리라는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응하셨다.

-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과 서약하셨다.
- 약속의 땅의 경계를 명확히 하셨다. (18 절 - 21 절)

창세기 15:13-16은 아브라함의 바로 뒤의 후손에 관한 말씀인데, 그들이 가나안과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것임과 또한, 그렇게 4대가 지나고 나서 모세가 그들을 구출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창세기 22:16-18 -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고 있는지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보응하셨다.

- 그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는 원수를 상대로 하여 승리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시편 110:1; 이사야 60:12; 창세기 3:15)
-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를 통해 확증되었다. (히브리서 6:13)

SECTION 11

GOD'S PROMISES

Genesis 12, 13, 15 & 22

THE PROMISES TO ABRAHAM

Gen. 12:2,3: At UR and HARAN the initial promise was made:

- Abraham was promised that he would become a great nation and that his name would become great.
- God would bless those who blessed Abraham and curse those who cursed him.
- God promised that in Abraham all families would be blessed.

Gen. 12:7: At SHECHEM, after Abraham left Haran and had crossed the river Euphrates and entered the land of Canaan. There, mention is made for the first time of "his seed" or "his descendant", and the "land of promise". Abraham was promised that:

- He would have children who would inherit Canaan: *"Unto thy seed will I give this land" (KJV).*

Gen. 13:14-17: These details were given at BETHEL, following his unselfish attitude towards Lot.

- Abraham and his seed would inherit the land **forever**.
- He is told for the first time that his **seed** would be **multitudinous**.

Gen. 15: Following his implicit faith in God's promise of a multitudinous seed, though at the time, he was childless, Abraham was rewarded at HEBRON:

- **God made a covenant** by sacrifice with him.
- God **defined the boundaries** of the land of promise (vv. 18-21).

Note that Gen. 15:13-16 relates to his immediate descendants, to their affliction in Canaan and Egypt, and also to their deliverance under Moses in the fourth generation.

Gen. 22:16-18: In the **Land of Moriah**, after Abraham showed how great his trust in God was, when called on to sacrifice his beloved son Isaac, God rewarded him as follows:

- His seed would **possess the gates of his enemies**, that is, be victorious over his enemies. (Psa. 110:1; Isa. 60:12; Gen. 3:15)
- **In his seed**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 The promise was confirmed by an **oath** (Heb. 6:13).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관한 설명

아브라함의 참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이 완성된다. 마태복음 1:1과 갈라디아서 3:16을 보라. 아브람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약속 증서의 명의인은 그 두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갈라디아서 3:26-29).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말하며, 침례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임이라”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다수의 무리의 모습을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특질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한 자녀(갈라디아서 3:7-9)가 가지는 “특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자녀들을 온 민족 가운데서 부르신다. (사도행전 15:14)

다음 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임을 부인하고 어떻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아라.

- 침례 요한 - 마태복음 3:9
-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8:33-40
- 바울 - 로마서 9:6-13

아브라함에게 하신 서약에 담긴 축복은 무엇인가?

-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 또는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8; 사도행전 3:25,26)
-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약속의 소망**을 유업으로 받는다. (창세기 13:14-17; 갈라디아서 3:29, 마태복음 5:5; 계시록 5:9,10; 로마서 4:13,14).

서약이 성취되기 위한 기본 요소 -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새 삶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서약이 성취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부활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부활을 통하여 받는 유업을 통해 성취된다고 말하는 다음 구절들을 참조하라.

EXPLANATION OF THE PROMISES

The true seed of Abraham

Jesus Christ is the promised seed of Abraham through whom the blessing will be fulfilled. See Matt. 1:1 and Gal. 3:16. The land was specifically promised to two people, Abram and his seed, Christ, (Gen. 3:15),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hey were given what we would call today "title deeds". The question is, how can others share the promise?

By baptism into Christ we can become part of the "**body of Christ**". So, since Christ is Abraham's seed, we too can become hi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Gal. 3:26-29). Baptism constitutes one "**in Christ**", who is in turn Abraham's seed, and the terms of the promise are "**in thy seed** shall all nations be blessed". Abraham's seed has a singular aspect, referring to Christ, and also a multitudinous aspect - those baptized into Christ.

The natural seed of Abraham

Fleshly descent from Abraham does not confer upon one the right to inherit the land. Faith was the great quality of Abraham's life which commended him to God. Faith and obedience then, are the "family characteristics" which link Abraham with his children (Gal. 3:7-9). These children are drawn from all nations (Acts 15:14).

Notice how the following three reject the notion that fleshly descent from Abraham entitles one to inherit the promise:

- John the Baptist - Matt. 3:9
- The Lord Jesus - John 8:33-40
- Paul - Romans 9:6-13

What is the blessing of the Abrahamic Covenant?

- The **blessing** relates to the **forgiveness of sins** or **justification**, for all those who are baptized into Abraham's seed, the Lord Jesus Christ. (Gal. 3:8; Acts 3:25,26).
- Those who are so justified will inherit the **hope of the promises** which entails eternal life in the Kingdom of God (Gen. 13:14-17; Gal. 3:29; Matt. 5:5; Rev. 5:9,10; Rom. 4:13,14).

The basic element of the covenant - Resurrection

Resurrection from death to life is the main teaching, without which the promise could not be fulfilled. Resurrection is "taught" by promising something that necessitates it; how can mortal man be promised an eternal inheritance without being brought from the grave and given eternal life? Refer to the following quotations about the fulfillment of these promises (the Abrahamic Covenant) which imply that inheritance is through the resurrection:

- 히브리서 11:12-16, 35, 39,40
- 사도행전 26:2-9
- 누가복음 20:36-38
- 로마서 4:13

이 약속에 담긴 정신

이 서약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것은 일을 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다. 그 땅에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라 하셨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함에 기초하여 주어진 것이다. 또한 이 약속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에베소서 2:6-8).

이 약속은 서약과 맹세로서 확증되었다

고대 성서시대에 두 사람 간에 서약을 하려면, 희생제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간 뒤, 그 제물을 나눠먹는 방법으로 하였다. 서약은 매우 중대한 약속이므로, 변경할 수 없었다. 만약 서약이 파기된다면, 파기의 잘못이 있는 측은 실질적으로 희생제물이 되고, 갈기갈기 찢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서약하였다. 창세기 15:9-18; 시편 50:5-8; 예레미야 34:8; 이사야 42:6; 마태복음 26:28; 마태복음 24: 51.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 Testimony는 이러한 서약을 말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서약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와 관련한 맹세를 덧붙이셨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가장 확고하고 엄한 방법으로 확증되었던 것이다. 히브리서 6:13-18; 창세기 22:16; 미가서 7:20; 시편 105:8,9.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는 그 서약은 실질적으로 확증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서약은 완성되었다. (로마서 15:8).

이 서약의 내용은 성취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으로서 그 서약은 성취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 말이 틀린 말임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 그 서약의 내용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히브리서 11:13,39; 사도행전 7:5)
-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서약이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였다. (사도행전 3:20,21; 24-26)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준 것이 그 서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장래에 그 서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 성서구절들과 비교해 보라.

- 미가 7:20 은 가나안땅에 들어간 후 1300 년 이후에 쓴 구절이다.
- 누가복음 1:72,73 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2000 년 이후에 쓴 구절이다.
- 로마서 15:8 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2050 년 이후에 쓴 구절이다.

- Heb. 11:12-16, 35, 39, 40
- Acts 26:2-9
- Luke 20:36-38
- Rom. 4:13

The spirit of the promise

The Covenant was a spontaneous **gift** from God. It was not earned, for what could any man do to deserve an eternal possession of a land? God said, *"I will give the land to thee for ever"*. The promise was given to Abraham on the basis of his faith and obedience. It was not obtained by **works of law** but by **grace**, so that "no flesh might glory" in God's presence. (Eph. 2:6-8).

The promise confirmed by covenant and oath

In ancient times a covenant was made between two parties by each passing between them pieces of a sacrifice and then eating together. Covenants were very serious matter, being unchangable. If broken, the guilty party would in turn virtually become the sacrifice and be "cut asunder". To assure Abraham of the promises, God made a covenant with him. Gen. 15:9-18; Psalms 50:5-8; Jer. 34:8; Isa. 42:6; Matt. 26:28; Matt. 24:51. (Testament = covenant)

To His covenant God added an oath, which involved His very existence. Thus the promises were confirmed in the most solemn and binding way possible. Heb. 6:13-18; Gen. 22:16; Mic. 7:20; Psalms 105:8,9. It was not until the Lord Jesus came, that the covenant was in reality confirmed, for only through his death could it be fulfilled. (Rom. 15:8)

The covenant has not yet been fulfilled

Some say that when Israel inherited the land of Canaan under Joshua, the covenant was fulfilled. That this is not true can be seen from the following:

- Its terms have **never** been fulfilled. Heb. 11:13,39; Acts 7:5
- God's prophets declare that fulfillment will be at Christ's return. Acts 3:20,21; 24-26.

There would be no mention made of a future fulfillment after Joshua caused th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f he had in fact fulfilled the terms of the covenant. Compare:

- Micah 7:20 written 1300 years after it was given.
- Luke 1:72,73 written 2000 years after it was given.
- Rom. 15:8 written 2050 years after it was given.

여호수아에 의한 유업 분배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하여 받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하나의 징표이자 모형이다. 세부적으로 볼 때, 창세기 15:13-16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이스라엘 족은 단지 나그네이자 여행자에 불과하였으며, 그 땅을 팔 권리가 없었다.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는 명의”를 갖지 못했다. (레위기 25:23; 로마서 4:13)

이 약속은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다. 창세기 26:3,4; 28:3,4,13,14; 히브리서 11:9)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았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믿음을 요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할 때 은혜는 다가올 수 있다.
-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서약으로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셨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역사가 이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srael and the inheritance under Joshua

It is clear that the promise was not fulfilled by Joshua. There was, however, a token or typical fulfillment. In particular the terms of Gen. 15:13-16 were fulfilled. Also under the Law of Moses, the land remained God's and the Israelites were merely strangers and sojourners, having no right to sell His land. They did not possess the "title deeds", which were promised Lev.25:23; Rom4:13.

The promise was also made to Isaac and Jacob

The same promise was made to Isaac and Jacob, Abraham's descendants. Gen. 26:3,4; 28:3,4,13,14; Heb. 11:9.

Lessons For Us

- Abraham, believing God, looked for a future inheritance in the land of Canaan.
- We can become Abraham's seed by faith in Christ, and baptism.
- We cannot earn God's gift of salvation. God **gave** Abraham the promise and so rewarded faith. Grace can operate only when we come to God in humble trust.
- God has given the greatest assurances possible that He will fulfill His word to Abraham - a covenant and an oath. World history is headed in this direction as can be seen today by the restoration of the Jews to the land of Israel.

제 12 단원

들 나귀같이 되리라 - 창세기 16 장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손이 없었다.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은 쇠퇴하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라는 점차로 초조해지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풍속대로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을 그 몸종을 통해서 얻으려 하였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갈은 자신이 사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사라의 하갈을 학대하였으며(6절) 하갈은 이를 피해 도망쳐야만 했다. 천사는 광야로 도망한 하갈을 찾아가 그녀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했다. 천사는 그녀의 아들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하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일부 번역본은, ‘앞에서’) 살리라 하니라*”고 하였다 (6절).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하였고, 이 이름의 뜻은 그녀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녀는 사라에게로 돌아왔으며, 곧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사랑했으며,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창 17:18).*”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약속된 자손은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나올 것이라 하였다.

이스마엘이 열네살 되던 해, 약속된 자손 이삭이 태어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척 당황하였다. 이삭이 젖을 땔 무렵 (창 21:8,9),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다고 기록 되었다. 갈라디아서 4:29에 보면 “*핍박*”하였다고 하였다. 두 이복 형제간에는 애초부터 불화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비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20-31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평하였다. 그는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손(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난 자손(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간의 차이점에 대해 말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손만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갈 3:29, 4:28, 창 21:12)

아브라함 집안의 불화

하갈과 이스마엘(하나님께서서는 이들도 아브라함의 씨라 하셨다. 창 21:13)은 아브라함의 집안을 떠나야 했다. 이들이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찾아왔다. 천사는 그녀에게 샘물을 보여주면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은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임을 반복하여 말하며 위로하였다. 그 이후로 이스마엘은 광야에 거하게 되었다.

SECTION 12

A Wild Man - Genesis 16

The birth of Ishmael and Isaac

Years passed and Abraham still did not have a son. His faith in the promise of God that his descendants would be as many as the stars of heaven and the sands of the sea, did not wane, but he waited patiently for God to work. But Sarah grew impatient, and as the custom of the day was, gave her handmaid to Abraham to perhaps obtain the promised seed through her.

Hagar became pregnant, and immediately trouble developed in the household. Hagar considered herself better than Sarah. This was unacceptable behaviour for a handmaid, and Sarah *"treated her harshly"* (v6), and Hagar ran away. An angel found her in the wilderness, reprimanded her, and spoke of the coming son of hers who would be born. He told her that he, too, would become a great multitude, *"He will be a wild donkey of a man,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one, And everyone's hand will be against him; And he will live to the east of all his brothers."*, (v. 12). He was to be called "Ishmael" meaning "God shall hear" because God had heard her affliction.

She returned to Sarah, and in due time, Ishmael was born. Abraham loved the child, and once was moved to say, *"O that Ishmael might live before you!"* (Gen. 17:18). But God then explained that the seed promised would come from both Abraham and Sarah.

When Ishmael was fourteen years old, Isaac, the promised son was born, much to the consternation of Hagar and Ishmael. When Isaac was weaned, in 21:8,9, we read of Ishmael *"mocking"* the child; but in Gal. 4:29, the word *"persecuting"* is used. Obviously there was conflict between these two half brothers from the very beginning.

An Allegory

In Gal. 4:20-31, Paul gives a commentary on this incident. He calls it an allegory - an illustr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ue seed of Abraham (the spiritually minded person) and the natural seed of Abraham (the fleshly minded person). It is the true seed who will inherit the promises. (Gal. 3:29; 4:28; Gen. 21:12)

Conflict in Abraham's house

Hagar and Ishmael were sent away from Abraham's household (with God's approval Gen. 21:12). The angel again found her wandering in the wilderness, starving and thirsty. She was shown a well of water, and comforted with a repetition of the

promise that he, too, would become a great nation. Ishmael dwelt in the wilderness from then on.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두 민족을 보게 된다. 그 하나는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는 아랍민족이다. 두 민족은 그 땅을 서로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두 소년들이 다투던 모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땅은 누구의 소유인가?

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라 하였다.(레위기 25:23. 그 땅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 및 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인 참 자손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1000년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 유대민족,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한 아랍민족들이 모두 다 평화롭게 그 땅에서 거할 것이며, 백성들은 주께 경배할 것이다. (에스겔 36:28; 37:25,26; 이사야 42:11; 60:7)

Today we see two peoples, both descendants of Abraham, whom we call Jews and Arabs - in constant conflict with each other - each claiming the land as their own. The conflict that began in Abraham's household between the two boys has carried on ever since.

Whose land is it?

As a matter of fact, neither owns it, God says in Lev. 25:23, "*the land is mine*". The title deeds are held by the true seed, Jesus Christ and those who are baptized into him. But in the Kingdom of God during the 1,000 years of reign of Christ, both the natural seed of Abraham, the Jews, and the Arabs through Ishmael, will live at peace with each other, and their worship (as mortal people) will be accepted. (Ezek. 36:28; 37:25,26; Isa. 42:11; 60:7)

제 13 단원

하나님의 서약과 그 징표

창세기 17 장

할례

14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약을 다시 반복하였고, 여기에 추가하여 다른 하나를 더했다. 아브라함은 그 서약의 징표를 받았다.

창세기 9:13에 이것과 비슷한 징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리라는 서약을 노아에게 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도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육체에 표시를 하는 것이었는데, 남성에게 할례(포경수술)를 행하는 것이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사도행전 3:25)라는 말씀에 나오는 자손이라는 식별표지였다.

할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하는 징표를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11에서 “그가 받은 할례의 표적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가졌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 또한 의를 인정받게 하려 함이요”라고 설명한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의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즉,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자하는 자신의 마음을 단절함으로, 그리고 그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창세기 15:6).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구약성서에서 명백히 다시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신명기 10:16). “유다 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4). 할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겉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징표였다. 오늘날도 이와 같지 아니하겠는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은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또한 침례를 통해 자신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임을 밝힌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에 참여한 사람이다. 골로새서 2:11, 12, 13을 보라.

SECTION 13

GOD'S COVENANT AND IT'S SIGN

GENESIS 17

Circumcision

Fourteen years later, when Abraham was 99 and Ishmael 14, God again repeated the covenant He had made, and added another dimension to it. Abraham was given the “**sign**” of the covenant.

A similar idea is found in Gen. 9:13 when the rainbow was to be the visible “**sign**” of the covenant God made with Noah, that never again would He destroy all flesh with a flood.

The sign of Abraham's covenant was to be a visible thing also. It was to be a mark in the flesh of all Abraham's descendants - a cutting off of a part of the flesh through the act of male circumcision. This, was to identify them as being “*the sons of the prophets and of the covenant which God made with your fathers, saying to Abraham, 'and in your seed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 (Acts 3:25).

But it was to mean more than that. It was to be the sign of that which had already been made. Paul explains it this way in Rom. 4:11 “*And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 seal of the righteousness of the faith which he had while uncircumcised, so that he might be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without being circumcised,*” It was given, because Abraham had firstly, circumcised his heart, that is he had “**cut off**” the natural thinking of the flesh, and believed God with all his heart (Gen. 15:6). Everyone who would inherit the promises with faithful Abraham must be circumcised in heart also.

This is made plain in the following Old Testament passages: “*So circumcise your heart, and stiffen your neck no longer*” (Deut. 10:16). “*Circumcise yourselves to the LORD and remove the foreskins of your heart, men of Judah and inhabitants of Jerusalem, Or else My wrath will go forth like fire...*” (Jer. 4:4). It was to be an outward sign of an inward godly way of life. But is the same true today?

Any man, Jew or Gentile, believing what Abraham believed, and with the same result on his disposition and conduct is also circumcised of heart; and when he identifies himself with the true “**seed of Abraham**” in baptism, takes part in the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골로새서 2:11 – 13: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음의 신약 성서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에 하는 할례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6: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고린도전서 7: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로마서 2:28, 29: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Col. 2:11-13: *"and in Him you were also circumcised with a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in the removal of the body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 which you were also raised up with Him through faith in the working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When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He made you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us all our transgressions"*

And we're told quite plainly in the New Testament that physical circumcision of the flesh is no longer required for spiritual reasons to those "in Christ Jesus" as the following verses testify:

Gal. 6:15: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availeth anything, nor uncircumcision, but a new creature."*(KJV)

1 Cor. 7:19 *"Circumcision is nothing, and uncircumcision is nothing, but what matters is the keeping of the commandments of God".*

Rom. 2:28,29 *"For he is not a Jew who is one outwardly, nor is circumcision that which is outward in the flesh. But he is a Jew who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that which is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the letter; and his praise is not from men, but from God."*

제 14 단원

여호와와 천사들

창세기 18 장

시간이 흘러, 평야에 위치한 도시 소돔을 심판하시고, 약속의 자손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렀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앞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라 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찾아온 천사들이었다. 이 천사들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차이점이 없었고 하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아무런 단서도 보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은 방문객인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13:1, 2절에 언급되었듯이(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서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말해주는 하나의 본보기였다.

천사들이 첫 번째로 전한 소식은, “**기한이 이를 때에 ...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 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마친 후, 이들은 일어나 소돔으로 향했다. 이들은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닥쳐올 심판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천사 둘은 떠나고, 한 천사만이 아브라함에게 남았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 도시에 거하고 있었고 그 도시의 일상사에 관여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롯의 안전이 염려된 나머지 롯을 대신하여 천사에게 간청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은 말하시기를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이 적어도 50명은 있을 것으로 보았으므로, 처음에 50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 수만큼 없었다. 이 에피소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심과 더불어, 롯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8에서와 같이, 롯을 의인으로 판정하셨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지라)

소돔 성이 멸망하다. (창세기 19장)

천사 둘은 밤이 되어 소돔 성에 도착하였는데, 그 때 롯은 **소돔성의 주요한 위치인 성문에 앉아있었다**. 롯은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손님들을 내어주라고 요구하였다. 롯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의 아내는 겁을 먹었다.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이끌어 들인 뒤, 에워싼 무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SECTION 14

THE ANGELS OF THE LORD

Genesis 18

The time had come for God to judge Sodom and the cities of the plain, and to extend His mercy to Abraham in providing the promised seed. Suddenly one day, **“three men were standing opposite him”**. They were God’s angels or messengers. The angels could not be distinguished from men and women and had given no clue as to their heavenly mission, yet Abraham provided them with his generous hospitality. This is an example of the hospitality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Heb. 13:1,2) as being highly recommended to God’s children in every generation.

Their first mission was to assure Abraham that *“at this time next year Sarah your wife will have a son.”* (v. 10). Once their mission with Abraham was completed, the angels rose up and went toward Sodom. Because of his faithfulness they told Abraham of the impending judgment of Sodom and Gomorrah. Two of the angels set out together while one remained with Abraham. Lot, Abraham’s nephew, and his family had lived in the city of Sodom for some time now and had become involved in daily affairs there.

Abraham feared for Lot’s safety, and proceeded to plead with the angel on Lot’s behalf. *“Would You also destro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God said that the city would be spared if there could be found 50, 45, 30, 20, and finally as few as 10 righteous persons in its midst. It seems as if Abraham was reasonably sure there were 50 righteous people in the city, otherwise there was no point in beginning his negotiations at that number. It is evident that there was nowhere near that number of people acceptable to God when judged by His standards. This episode is an example of God’s fearsome judgments on wickedness and at the same time of his mercy towards Lot and his family. God judged Lot to be righteous according to 2 Peter 2:8.

Sodom destroyed (Genesis 19)

It was evening when the two angels arrived in Sodom, and Lot was sitting **“in the gate of Sodom”** - a place of prominence in the city. He knew how wicked the men of Sodom were and tried to protect his guests from evil. The men of Sodom massed outside his house, demanding that he deliver his guests to them for immoral purposes. He refused and his life was threatened. The angels pulled him inside, and struck his attackers blind.

천사들은 집 안에서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사들이 재촉하자, 롯은 친척들에게 오늘 밤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친척들은 듣지 않았다. 동이 트자 천사들은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17절)* 라고 천사들은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심판하시면서도, 큰 자비를 보여주시는 분이셨다. 2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 수 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이 갑자기 쏟아졌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 성과 그 땅에 내렸다. 그 땅은 황무지로 변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의 유혹에 빠져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경고하셨다. (누가복음 17:32).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누구든지 하늘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전의 생활 모습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스겔은 소돔에서 벌여졌던 죄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에스겔 16:48,49). 소돔엔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가난이 병존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셨다 (누가복음 17:28-30).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뒷전에 밀려난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세상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육신적 만족만을 충족하도록 한다. 우리가 지금 주의 재림의 전 날 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한 믿음이다.

창세기 19장은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게 되는 계교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다. 이 두 딸들의 후손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었다. 이 두 민족은 사해의 동 남쪽 지역에 거주하였다.

Once inside, the angels told Lot that the city would be destroyed. Urged on by the angels, Lot gathered together all his relatives, and pleaded with them all night to leave, but to no avail. With the coming of dawn, the angels insisted that he should leave immediately with whoever would go with him. *"Escape for your life! Do not look behind you, and do not stay anywhere in the valley; escape to the mountains, or you will be swept away"* (v. 17). While God is a God of judgment on wickedness, he is also a God of great compassion, notice His patience in v. 22: *"I cannot do anything until you arrive there"*.

Suddenly, God's terrible judgments rained down. Fire and brimstone poured upon the land and cities. It was reduced to a barren wilderness. The attraction of Sodom proved too much for Lot's wife - she looked back and became a pillar of salt.

Jesus warned us when he said *"Remember Lot's wife"* (Luke 17:32). The lesson is simple, but demanding - when a person accepts the challenge of living a Godly life, it is unacceptable to look back toward their former lifestyle.

The sin of Sodom is described by Ezekiel as *"arrogance, abundant food and careless ease, but she did not help the poor and needy."* (Ezek. 16:48,49). Alongside extreme wealth there was unrelieved poverty - and so it is today. The days of Lot were said by the Lord to be just like what the days of his second coming will be like. (Luke 17:28-30). So preoccupied were they with the pursuit of material things, that all thoughts of God were pushed aside. So it is today, for the world beckons men to indulge their fleshly appetites to the exclusion of God. Accordingly there i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we are living on the eve of the Lord's second coming.

The chapter closes with the story of the lustful conspiracy of Lot's two daughters who both became pregnant by their father after they tricked him into becoming intoxicated. The children of the two daughters became, in time, the two nations of the Moabites and the Ammonites. These two nations inhabited the area to the east and south of the Dead Sea.

제 15 단원

아브라함의 여행과 둘째 아들

창세기 20 장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생활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그의 아내 사라가 약속된 자손을 조만간 잉태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원을 떠나 남쪽으로 향해 ‘그랄’ 지방에 거하게 된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다. 아마도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때처럼 (창 12:10) 다시 기근이 있었던 것 같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범했는데, 사라를 아내라 말하는 대신에 자기 누이라 말했으므로, 애굽의 바로왕은 사라를 자신의 왕비로 삼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재앙을 내리시므로, 바로왕은 사라를 놓아주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면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하였다. 사라의 나이는 거의 90세에 가까웠으나 여전히 무척 아름다웠었던 것 같고, 왕은 그녀에게서 매력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다시 임신이 가능하도록 그녀의 신체를 마련해가는 도중이기에, 아마도 그녀의 외모에서도 노년의 모습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랄 지방의 악한 분위기를 느낀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기로 하였고, 사라도 이에 동조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지간이었으므로(12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누이 사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2 절)”. 하지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는 욕구가 실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그녀를 건드린다면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다(3절). 또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 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4절에서 말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이 사건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인간적인 관점의 기록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이 주어진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라가 처한 위난에서 그녀를 보호하셨다.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4:7). (우리가 문젯거리가 되는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둘째, 5, 6절을 통해 보면, 아비멜렉은 아마도 의로운 행동을 해온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큰 실수를 범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막으신 것으로 보인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가고(2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경고하시기까지는 (3절) 분명히 얼마간의 기간이 흐른 뒤였다.

SECTION 15

ABRAHAM'S JOURNEY AND SECOND SON

Genesis 20

This chapter notes an incident in Abraham's life, not long after the promise that Sarah herself was to bear the promised seed within a year.

We're not told why Abraham left the plains of Mamre to travel south to Gerar. Perhaps there was a famine as there was when he went down into Egypt (12:10). On the previous occasion when Abraham went to Egypt, Abraham made a mistake by saying that Sarah was his sister, not wife, and subsequently Pharaoh wanted to take Sarah to be his wife. God plagued Pharaoh because of this, and Pharaoh returned Sarah to her rightful husband. And this time, we find the very same thing happened again, when the king of Gerar, Abimelech, took Sarah. She was approaching 90 years old but was obviously beautiful and still attractive to a king. God would have been preparing her body to conceive, and possibly in the process, she lost the appearance of old age.

Seeing the wickedness of the area, Abraham feared his life might be in danger by his wife's beauty, so they agreed that she should pose as his sister. This was half true as they shared the same father. She was his half-sister (v. 12). *"Abimelech, king of Gerar sent and took Sarah"* (v. 2). But before he was able to put into effect his desire toward her, God warned him in a dream (v. 3), that he would be a dead man if he touched her, as she was a married woman. Also later God said in verse 6: *"Yes, I know that in the integrity of your heart you have done this, and I also kept you from sinning against Me; therefore I did not let you touch her"*.

Paul informs us in Romans 15:4 *"For whatever was written in earlier times was written for our instruction, so that through perseve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These incidents were not written as human records are written - merely for their historic interest. There are two lessons to be taken from this incident:

Firstly, God invisibly protected Sarah in the dangerous position she was placed in.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rescues them"* Psalms 34:7 (even if our situation is from our own questionable actions).

Secondly, . because Abimelech seems to have been a righteous man v. 5,6, God prevented him from making a great mistake that would have resulted in his own death. Evidently a period of time transpired between the time when Abimelech took Sarah from Abraham (v 2) and the time when God appeared to Abimelech in a dream to warn him that Sarah is in fact married to Abraham (v3).

이 기간 동안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 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6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불드셨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혼인하고자 한 의도는 법률적으로 보아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결과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이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해를 지나며 더욱 발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 약속하셨다.(창 12:3). 그 땅에 머무르는 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였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종의 아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창 15: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은 그의 몸에서 날 것이라 하였고(15:4), 그 수가 하늘의 별 만큼이나 많게 될 것이라 하셨다.(15: 5).

창 16장에는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기록이 있다. 사라는 이렇게 해서 약속의 자손을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려고 했었으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손일 뿐이었다. (갈라디아서 4:29).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나이가 훨씬 지나버려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손이었다. (창 17:15-22).

모든 상황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드리는데까지 이르렀다. 그의 믿음에 보응하여 이삭이 태어났다. (로마서 4:17-22).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 혹은 ‘기쁨’이라는 의미로서, 약속의 자손이었으며, 이삭의 탄생은 부모들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삭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다. 이삭이 젖을 떼게 되어 축하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되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청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내자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21:12)*”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고 하셨다. 갈라디아서 4:24-31에 바울은 말하길, 아브라함의 참 자손만이 유업을 받을 자이며,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라 하면서, 과거의 사건은 이것을 예시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During this period there would have been ample opportunity for Abimelech to make Sarah his wife, but God ensured that events in his life were such that he was unable to carry through his intention - "I (God) did not let you (Abimelech) touch her" (v6). God was withholding him and he did not know it. While his intention to marry Sarah was legitimate from his own point of view it would have been wrong from God's point of view and he would have ended up making a great mistake. Hence this teaches us that if we earnestly desire to follow God's righteous ways, and pray for God's help to "deliver us from evil", then God can answer, not by miraculously intervening in our lives, but rather by indirectly organizing the ordinary events of our life in such a way that will prevent us from falling into evil in the first place.

The promise of the seed (Genesis 21)

Abraham's faith was developed over many years, and with God appearing to him from time to time. God had promised that He would make of him "a great nation" Gen. 12:3. During the early stages of his sojourn in the land, Abram was concerned as to how his seed would be developed. Because he was childless, he even thought of making his heir one of his servant Eliezer's children (15:2-3). But God spoke to him that his seed would proceed from his own body (v. 4) and would become as numerous as the stars (v. 5).

Genesis 16 records the birth of Ishmael to Hagar, Sarah's maid. This was an attempt by Sarah to speed up the promise of the seed. Abraham set his heart on Ishmael as the seed of the promise, but he was born **after the flesh** (Gal. 4:29).

The seed of promise was to be born by the power of God, and was to be the seed, not only of Abraham, but also of Sarah, who was now barren, and past the age of child-bearing. (Gen. 17:15-22)

Abraham, despite the fact that all outward appearances were against it, came to the point of accepting God's promise. He was rewarded in the birth of Isaac (Rom. 4:17-22). Isaac means "happiness" or "joy", and as the Son of Promise, his birth brought happiness and joy to his parents.

But there were two of his household who did not joy in his birth - Hagar and Ishmael. When Sarah made a feast to celebrate the weaning of Isaac, she found Ishmael mocking him. Sarah asked Abraham to send Ishmael away and God confirmed that this was necessary, *"for"*, He said, *"through Isaac your descendants shall be named"*. In Gal. 4:24-31, Paul sees this incident as an illustration of how the true seed of Abraham would inherit the promises, while the natural seed, Israel after the flesh would be cast out.

제 16 단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창세기 22장

도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극한의 시험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뒤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암시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독생자’ 또는 ‘사랑하시는 자’라 부른 것처럼, 이삭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것은 잔인한 행사를 거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삼고자 하시는데 대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다. 우리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몰면서 겪으신 번민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2-14에서의 사건을 보면,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받고자 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3절)”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환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한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브리서 11:19절을 보라.

이삭이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은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는(요한복음 19:17)” 모습과 특히 유사하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6절)”라는 모습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신 모습과 동일하다. (요한복음 12:27,28; 마태복음 26:36-39; 히브리서 10:5-7).

이삭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지적하면서 답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이삭은 충분히 자란 청년이었으므로, 이삭이 불순종한다면 희생의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다.

SECTION 16

A PROPHECY OF CHRIST

Genesis 22

The challenge

Abraham's faith was now to be tried to the utmost, as God sought Abraham's co-operation in a mission which would foreshadow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His own son.

As Jesus is described as God's *"only begotten son"* and His *"beloved son"*, so Isaac is described as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Abraham was told to take him *"to the land of Moriah,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of which I will tell you."*

God was not asking Abraham to do something barbaric, but to co-operate with Him in showing how sin would be overcome in His own dear son. Abraham was called upon to do what God Himself would do in the future in offering His only begotten Son as a sacrifice for the sins of the world. Seeing the trial from Abraham's viewpoint, one can understand the pain and anguish endured by the Father when His son was put to death.

The events of Genesis 22:2-14 illustrate the great love which existed between God and His Son which enabled the sacrifice for sin to be willingly offered. Abraham showed no hesitation in service to God, but "rose early" (v. 3) and made the journey to Mt. Moriah.

Abraham's faith in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is seen in his statement to his servants, *"I and the lad will go over there; and we will worship and return to you."* Abraham knew that Isaac must live and knew that God would preserve his son in any event. See Heb. 11:19.

The action of laying the wood on Isaac's shoulders was remarkably like Jesus *"bearing his own cross"* (John 19:17). So also the statement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 for Jesus worked in harmony with his Father to bring about man's salvation. John 12:27,28; Matt. 26:36-39; Heb. 10:5-7.

Isaac now speaks. He has noticed one important omission from the things they have taken. *"My father - where is the lamb?"* Abraham replies in significant terms: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the lamb"*, so pointing forward to Jesus. Provision of the sacrifice seems to have required the co-operation of father and son, for Abraham was old and may not have been able to compel obedience from Isaac who was a full grown youth.

믿음을 통한 승리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하였고, 사실상 이삭은 죽음을 맞이한 것과 다름없었다. 절대 절명의 이 순간에,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삭은 죽음을 면했고, 비유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히브리서 11:19).

아브라함은 수풀 가운데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였고, 이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5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방금 일어난 일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고보도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그를 감동시켜 일하게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야고보서 2:22).”*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표현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지로 행동과 함께 하는 믿음이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

The victory of faith

When Abraham took the knife and raised it to slay his son, Isaac was as good as dead. At this crucial point the voice of God came clearly to him and prevented him from slaying Isaac. Isaac was released; he had virtually been raised from the dead (Heb. 11:9).

Abraham was shown a ram caught in a thicket and this he offered up as a burnt offering. Abraham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what had happened because Jesus said in John 8:56,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A very powerful testimony is given by James in Jas. 2:22 *"You see that faith (based on the promises God made to him) was working with his works (co-operated with or motivated him) and as a result of the works, faith was perfected."* His faith was not just lip service, it was an active faith; *"Faith without works is dead"* (James 2:26).

제 17 단원

사라가 죽다

창세기 23 장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녀의 나이는 65세였고(12:4와 17:17을 비교해 보라),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 사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살았으나, 아브라함은 자신들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 칭했고, 자기 소유로서 아내를 매장할 땅조차 없었다(4절).

아브라함은 헤브론 가까운 곳 마므레 평원에 있는 동굴과 그 밭을 매입하여 그곳에 사를 매장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전에 그 땅을 받지 아니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창세기 15:13-16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400년 동안 타 민족의 압제 하에 있을 것과 그들이 번성하여 탈출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평화롭게 죽을 것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다. 히브리서 11:8-16을 보면, 그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절-19절을 보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임을 믿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서에서도 사라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담긴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7:5 “그러나 여기서 밭불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히브리서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야곡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39-40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SECTION 17

DEATH OF SARAH

Genesis 23

Sarah was 65 years old when she entered the Land of Canaan with Abraham, (Compare 12:4 with 17:17), and died when she was 127 years old. The important point to notice in this statement is that even after living there for 62 years, Abraham still described himself as a *"stranger and a sojourner"*, and had to request a piece of that land as a burying place for his wife (v. 4).

This chapter describes the purchase by Abraham of a field and a cave in the plains of Mamre near Hebron, in which he buried Sarah.

But though God had promised Abraham and his seed that he would inherit the Land of Canaan for an everlasting possession, he knew that he would not receive an inch of it during his lifetime! In Gen. 15:13-16, God told Abraham about the immediate future of his descendants during the next 400 years - the judgment of the nation that should oppress them, their subsequent exodus from bondage with great wealth, his own peaceful death in a good old age, and the return of his descendants into the Land of Canaan again.

Now if Abraham was sentenced to die, how could this promise be fulfilled? Abraham was being shown that he would be resurrected from the dead at some future time, and also be changed to be immortal and incorruptible. He understood this, as a reading of Heb.11:8-16 will show. That he believed in a resurrection from the dead, verses 17-19 prove.

This teaching, which the death of Sarah brought to light, is so important that the New Testament writers comment upon it more than once:

Acts 7:5 *"But He gave him no inheritance in it, not even a foot of ground, and yet, even when he had no child, He promised that He would give it to him as a possession, and to his descendents after him".*

Heb. 11:13 *"All these died in faith, without receiving the promises, but having seen them and having welcomed them from a distance, and having confess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

Heb. 11:39-40 *"And all these, having gained approval through their faith, did not receive what was promised, because God had provided something better for us, so that apart from us they would not be made perfect".*

제 18 단원

이삭의 아내를 구하다

창세기 24 장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적절한 배필을 구해주려고 열망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많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받은 약속에 따르면 자신의 혈통을 잇는 자손이 있어야 했으므로, 이삭이 아내를 맞아 자손을 보아야 함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삭이 태어나고 40년이 경과하였으나(창 25:20), 이삭은 아직 아내를 맞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땅에서는 적당한 아내감을 찾을 수 없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아내가 필요했으며, 이삭의 영적인 성장을 함께 도우며, 또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 아내가 필요하였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창 24:3).

아브라함이 이같이 지시한 데 대하여, “왜 가나안 지방의 여인은 이삭의 아내로 적절치 못할까?”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지역, 즉 지중해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이삭의 아내감을 고를 만 했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보아 분명히 드러난다.

“고대 가나안의 종교 활동을 보면,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다.... 가나안 지방의 종교 활동은 잔인하고 비속한 천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그리아 족(Ugarian)의 출전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뉴 바이블 성서 사전).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손”의 시조로 삼고자 하여 택하셨으며, 이 “혈통”은 이질적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찾더라도, “일족”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일화는 세상의 사람들과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생활원리를 보여주는 초기사건 중의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14-18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6:14-18)

SECTION 18

A WIFE FOR ISAAC

Genesis 24

Abraham was anxious that Isaac should have a suitable wife. But Abraham was growing old and he thought that he would soon die. Since the promises made to him depended on him having descendants, it was vital that Isaac should marry and have children.

Forty years had passed since the birth of Isaac (Gen. 25:20), but he had not married, and a suitable wife had not been found for him in Canaan. He needed a wife who would respond to the things of God, be a help to him in his spiritual growth, and bring up his children right. *"you shall not take a wife for my son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among whom I live"*. Gen. 24:3.

This specific instruction of Abraham begs the question "why were Canaanite women unsuitable candidates as a wife for Isaac"? Abraham and his family lived in the region of the Canaanites; in the coastal area at the east end of the Mediterranean Sea and one would assume there were lots of women from whom to choose a wife for Isaac. But Abraham is quite clear in his instructions *"you shall not take a wife for my son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and the reason becomes clear from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records.

"Human sacrifice in second millennium Canaanite religion has not yet been isolated archaeologically with any certainty,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it was customary. ... That Canaanite religion appealed to the bestial and material instincts in human nature is clearly evidenced by the Ugaritic texts" (The New Bible Dictionary)

God had chosen Abraham to begin a "godly seed" and it was essential that that "seed" should not be mixed with foreigners. It was necessary to select a wife for Isaac from the "family" even if that required going some distance to find a suitable wife.

This is an early demonstration of the Divine Principle of separation from worldly people. The Apostle Paul makes this point very strongly:

"Do not be bound together with unbelievers; for what partnership has righteousness and lawlessness Therefore, come out from their midst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and do not touch that which is unclean..." (2 Corinthians 6:14-18)

성서는 말하기를 악한 자와 교류하게 되면 선한 예절이 부패된다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종에게 명하여 이삭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아내감을 찾도록 하였다. 여기에 담긴 삶의 원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염려하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떠나보내어 자기 일족으로부터 이삭의 아내감을 찾도록 하였다.

심부름꾼을 보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본향과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위임하였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맹세케 하였다. 그는 또한 엄격하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땅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 다시 들어가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중에게 축복하실 것이라 말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우물가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지시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며,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신 배필이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아버지 베두엘의 집으로 초대되었으며, 그곳에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다.

혼인의 영적인 의미를 예시하다

아름다운 이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연합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비유 같은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대표함)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앞둔 “정결한 처녀”들이다. (고리도 후서 11:2).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은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 그와 함께 연합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멋진 혼인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계시록 19:7,9).
-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창세기 24:16)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그러하다. (에베소서 5:25-31).
- 리브가가 “강을 건넌”에 따라, 그녀도 마침내 히브리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실한자들도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강을 넘어간”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신부” 리브가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다. 그녀가 자신이 살던 이전의 생활모습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기꺼이 집을 떠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전에 살던 생활모습을 버리고 다가올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The scriptures make the point that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1 Cor. 15:33). Knowing this, Abraham instructed his servant to find a wife whose aims and objectives in life would compliment those of Isaac and not distract him from serving God. This principle had real value then and still does today. Abraham demonstrated his concern for his family's spiritual wellbeing above his concern for other things. Therefore he sends his servant to seek a wife for Isaac from among the family.

The messenger

Abraham commissioned Eliezer, his eldest servant, to return to his country and relatives, and to find a wife for Isaac. He made Eliezer swear to him that he would not take for Isaac a wife "of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He sternly forbade Eliezer to take Isaac out of the land of promise, for God had told him to remain there as a stranger and pilgrim. He told him also that God would bless his mission.

His mission

Eliezer asked God for a sign which was granted in a remarkable way as Rebekah came to the well to draw water. He learned that she was a niece of Abraham. The sign was complete. He was conducted to the house of Bethuel, Rebekah's father, where he told Laban, her eldest brother of his mission.

Eliezer presented the family with gifts from Abraham and obtained permission for Rebekah to return with him. Thus Rebekah came into the land of promise as a wife for Isaac.

A foreshadowing of the spiritual marriage

There are some wonderful lessons in this beautiful story which illustrate the union of Christ and His Bride. The story is like a parable, pointing forward to the time when Jesus Christ (of whom Isaac was a type) will be united with those who have lived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 They are likened to a "pure virgin" engaged to be married. (2 Cor. 11:2)
- When the Lord Jesus returns to the earth, these faithful ones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given eternal life and united with him. This coming together is likened to a wonderful marriage. (Rev. 19:7,9)
- As Rebekah was beautiful, (Gen. 24:16) so also will be Christ's Bride. (Eph. 5:25-31).
- As Rebekah "crossed over" the river, and thus became a Hebrew, so the faithful become "Israelites indeed" when they "cross over" from the world to Christ. And in doing so, the "bride" came out of her country into a new country. Her willingness to leave behind her former lifestyle is a lovely example for all who wish to be among "the bride of Christ", who also leave behind their former lifestyles and seek the country to come.

-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기 위하여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 (고린도 후서 6:17).
- 리브가가 자신의 면박(베일)을 취하여 얼굴을 가린 것은 자신이 이삭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자들이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얼굴에 베일을 가리는(덮는, 또는 물에 담그는) 것은 그들의 주에게 복종하며 종속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 창세기 24:18-20 에는 그녀의 자애로운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나 있다. 생명의 물을 구하는 나그네에게, “예비 신부”였던 그녀는 신속하게 그리고 값없이 물을 길어 주어 마시게 하는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또한 나그네와 함께 한 약대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던 것으로 보아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이며 따뜻한 성품을 지녔음이 분명하다.
- 마침내 리브가는 저녁 무렵에, 이삭을 처음 보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예식에 따라 그와 혼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마지막 때에,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29).
- 58 절을 통해서 리브가의 고운 성품을 살펴볼 수 있다. 그녀는 신부가 되기로 마음에 정하였느냐를 물어보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마도 이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이미 결정한 듯, 즉답했다. “*가겠나이다.*” 그녀가 이처럼 기꺼이 그의 신랑을 맞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할 태세가 되어있어야 하는 본보기를 보여준다.
- 이삭은 단지 한 사람의 아내만을 취하였으며, 이 모습은 우리에게 흥미로움을 준다. 당시의 부족장들은 아내를 여럿 두고 있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와의 관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결혼 결정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고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일족 가운데서 고르게 하였다.
- 신부감을 구하고자하는 임무가 기도 가운데 현명하게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축복하시고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마련해 주셨다.
-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은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에클레시아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다.

- As Rebekah separated herself from her people to marry Isaac, so the faithful come aside from the world to marry Christ. (2 Cor. 6:17)
- As Rebekah veiled herself, showing her subjection to Isaac, so the faithful are veiled (covered or immersed) at baptism, this being a symbol of their subjection to their master and lord.
- In Genesis 24:18-20 there are lovely clues as to her generous character. This “bride-to-be” showed her generosity when she freely and hastily offered the water of life. Her magnanimous spirit was even evident in the fact she hastened to give the animals drink. She obviously had a hospitable nature.
- Finally, at evening time, Rebekah first saw Isaac, and, marrying him, was placed in charge of Abraham’s house. So in the last days of the Gentiles, the faithful will see Christ, and as Abraham’s seed, will “inherit the promise”. (Gal. 3:29)
- Verse 58 also gives a perspective of Rebekah’s fine character. When it came time to determine if she was willing to be a bride, the question is put to her *“Will you go with this man?”* It appears there was not a moment’s hesitation; she had previously considered the matter, looked at the risks and advantages and immediately she said *“I will go”*. Her ready willingness to be joined to her bridegroom provides an example for us that we, as the Bride of Christ, should always be ready to be joined with Christ.
-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Isaac took but one wife. None of the other patriarchs had only one wife. Isaac and Rebekah are, therefore, types of the one Bride Christ takes to himself.

Lessons For Us

- If Abraham’s descendants were to hold fast to God, it was essential that they make wise marriages.
- Abraham charged Eliezer to find a wife for Isaac from among his own people, and not among the Canaanites.
- This mission was carried out in a wise and prayerful way, and so God blessed what was done, and provided Rebekah.
- The marriage of Isaac and Rebekah is a pattern of the Church’s (Ecclesia’s) union with Christ, the true Bridegroom.

제 19 단원

죽음 그리고, 가족 간의 대립

창세기 25 장

이삭과 이스마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까지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루한 내용이라고 평할지도 모르지만, 이 구절들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다. (연구생들은 제 1단원의 끝부분에 있는 가계도를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대립의 씨앗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 이 구절을 통해 보면 가족 내에 대립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와 같이 분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는 달리 예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계시며, 심지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들을 알고 계신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반역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을 우선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다. 반면, 야곱의 경우처럼,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고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이어지는 성서의 장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 둘 사이의 대립은 갈수록 명백해진다.

팔레스타인(블레셋) 땅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

제 1단원의 후반에 있는 가계도를 보면, 아랍 족속은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족속도 이삭(야곱)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아랍 족속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다), 지중해 동부의 땅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것은 옳지 못한 주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들(창세기 12:1-3; 13:14-17; 15:17,18; 17:7,8; 18:18; 22:16-18)은 이스마엘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의 특별한 축복이 이삭에게는 전해졌으나, 이스마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머물게 되었음을 18절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창세기 25:7-9절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 죽었고, 그의 아내가 묻힌 곳에 함께 장사되었다. 그가 장사되어 묻혔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13-16절에서 성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 거의 2000년 이후에 글쓰기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하였다.

SECTION 19

DEATH AND FAMILY CONFLICT

Genesis 25

Isaac and Ishmael

The opening 18 verses of Genesis 25 are verses which contain what some may consider dry reading, but they are important as they provide the list of the children of the two most important sons of Abraham; Ishmael and Isaac. (It would be helpful for the student to review the family tree at the end of Section 1.)

The seeds of conflict

A very significant statement is made in v5 "*And Abraham gave all that he had unto Isaac*". The seeds of the subsequent conflict within the family are found in this verse. From a human perspective, one would think this to be a very in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heritage of Abraham, but God's perspective is more penetrating than man's. God knows the interest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before they are even born. There are those whose personality tends to rebellion, to a "me first" attitude; such as Ishmael as we shall see later in the chapter. There are those whose personality tends towards spiritual things; such as Jacob, as we shall also see later in the chapter. And the conflict becomes apparent as we read the chapter.

Claims to the land of Palestine

The family tree at the end of Section 1 shows that the Arabs are descended from Abraham through Ishmael, and the nation of Israel from Abraham through Isaac (through Jacob). This accounts for the fact that the Arabs claim (rightly so) that their father is Abraham and that the land at the end of the eastern end of the Mediterranean Sea is theirs (not so). The promises God gave to Abraham of a land and people in Genesis 12:1-3; and 13:14-17; and 15:17,18; and 17:7,8; and 18:18; and 22:16-18 were NOT passed on to Ishmael. God knew his personality was not suitable to receive such a great blessing, consequently the blessing of a land and people went to Isaac. Clearly, the special blessing was not passed from Abraham to Ishmael, but from Abraham to Isaac. The sons of Ishmael gravitated to the region of the Arabian Peninsula; verse 18 informs us of that, but it is not a region which has been promised to them by God.

Abraham's death

Genesis 25:7-9 tells us Abraham was 175 years old when he died and he was buried in the same cave as his wife. This act of burial is a demonstration of the fact that the promises which God had made to him had not been fulfilled. In Hebrews 11:13-16 the writer assures the reader almost 2000 years after Abraham's death that he "*died in faith, without receiving the promises ...*"

그러므로 “언제 그 땅과 그 자손들에 관한 약속들이 성취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르게 되며, 이의 해답은 히브리서 11:39-40에서 주어진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그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믿음의 남녀들이 그 약속을 성취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히브리서 12:28).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22절),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두 아이가 태어날 것과 두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녀가 두 아이를 낳을 터인데 이들은 두 민족이 될 것이며, 그 둘의 성격이 크게 다르고,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다. 보통은 어린 자가 장자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경우에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다.

큰 아이의 이름은 에서라 하였고, 어린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다. 에서는 에돔이라 불리는 족속의 부족장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장이 되었다. 훗날에 있을 일을 미리 살펴보자면, 에서와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엮으리라.” (에스겔 25:13).

육신적인 일이 영적인 일보다 앞서다

두 아이의 탄생과 그들의 생활 속에는 “비유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지향하려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그 둘 사이에는 항상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장자인 에서는 성장하면서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자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야곱은 “중용한 사람(히브리 말로는 완벽하다는 의미를 내포함)”이었으며 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성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자라면서 1) 에서는 점점 더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되었고, 2) 야곱은 점점 더 영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들을 영적인 일들보다 우선시하며, 영적인 일들은 뒤로 미루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소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This begs the question, "when will the promise of the land and people be fulfilled?" and the assurance is given in the same chapter at verses 39, 40 *"And all these, having gained approval through their faith, did not receive what was promised, because God had provided something better for us, so that apart from us they would not be made perfect"*.

God will fulfill his promise at an appropriate time for our God is a faithful God and when that happens,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s to Abraham will include all who, like Abraham, are men and women of faith. *"Therefore, since we receive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let us show gratitude, by which we may offer to God an acceptable service with reverence and awe."* (Hebrews 12:28).

Twins are born to Isaac and Rebekah

Rebekah was pregnant with twins boys (v22) and because she was a spiritual woman she enquired of God as to the meaning of the struggle that was taking place even before the two boys were born. Verse 23 provides God's answer by telling her she would give birth to two children who would begin "two nations" and that their personalities would be very different and that the elder would serve the younger. Normally the younger child served the older one, but this was to be reversed in this instance; *"the older shall serve the younger"*.

The older child was called Esau and the other Jacob; Esau became the patriarch of the nation called the Edomites and Jacob of the nation of Israel. To anticipate the end result a little, history shows that Esau and the Edomites were not interested in spiritual things and as a result God consigns them to judgment;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I will also stretch out My hand against Edom and cut off man and beast from it. And I will lay it waste..."* (Ezekiel 25:13).

The natural precedes the spiritual

In the birth and life of these two boys there is what is called an "enacted parable". The one individual was oriented towards natural things and the other toward spiritual things and as such displayed for all tim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They also displayed the fact that the natural precedes the spiritual. The child who grew to manhood and displayed natural tendencies was the eldest. Esau was the firstborn and had an interest in natural things; v27 *"Esau became a skillful hunter, a man of the field"*, whereas Jacob *"was a peaceful (hebrew word meaning complete) man"* and more interested in spiritual matters. The Bible record of these two men shows they grew either i) more carnally or naturally minded as happened to Esau; or ii) more spiritually minded as happened to Jacob. The natural precedes the spiritual; men and women today are inclined toward natural things first with the potential towards spiritual inclinations following. These two children enacted this principle in their lives.

붉은 색깔로 상징되는 에돔

육신의 사람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붉은 색깔의 음식 한 그릇에 팔았다. (30절). 성서는 여기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대부분의 성서 관주를 살펴보면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색깔과 관련이 있다고 나온다. 고고학적인 사실에서 흥미로운 점은 고대 에돔(아마도 주요한 도시였을 것이다)성은 페트라(요르단 지방의 고대 산악도시, 영국의 시인 존 윌리엄 버건은 '영원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미 빛 같은 붉은 도시'라고 노래하였다) 성읍이었는데, 붉은색 사암 가운데 건설된 도시이다. 이 도시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붉은색은 이 도시를 상징하는 색깔이다. 성서를 통해 볼 때, 붉은색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말하거나 육신적 사람 또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에서(에돔)를 붉은색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하찮은 이익과 맞교환할 만큼 가볍게 여겼으며 그것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34절에서 말하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라고 하였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팔죽*”을 받고 팔았다.

창세기 26장 - 이삭에게 약속이 재확인되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 이제 그와 동일한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진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투가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삭에게는 형제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오직 이삭의 자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었다. (차후에 이 약속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만 전해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삭 역시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땅에 관한 약속과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임이라*”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약속은 그 후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21세기를 맞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다

창세기 26장에는 육신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대표한 에서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의 고집 센 모습과 반역의 모습은 3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헷 족속(히타이트족)의 여인을 그것도 두 명 씩이나 아내로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지시하기를 결혼의 상대자를 자기 일족에서 고르라고 하였고, 이삭과 리브가도 이것을 반복하여 전했건만 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에서는 헷 족속의 여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인들은 혐오스러운 헷 족속의 문화에서 자란 여인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의 부모들에게 “*마음의 근심이*”(35절) 되었다.

Edom and the colour red

The natural man, Esau, sold his birthright to Jacob for a dish of food (v30) which had a characteristic red colour. Because of this the Bible notes that Esau's "name was called Edom" (v30). Most Bibles with a marginal reference inform the reader that the word "Edom" is associated with the colour red. It is an interesting archaeological fact that one of the main cities in ancient Edom (perhaps the major city) was the city of Petra; a city which was hewn out of the native red rock of the area. The remnants of that city are still visible and the colour red is its most pronounced characteristic. Red in scripture always represents rebellion against God, or the natural man, or sin. Thus Esau (Edom) is rightly represented in the Bible by the colour red. He had such little regard for the advantages associated with being the firstborn that he was prepared to sell the advantages of his birthright to Jacob; v34 "*thus Esau despised (hebrew, undervalued) his birthright*" and he sold it for "*bread and lentil stew*"!

Genesis 26 – The Promises are renewed to Isaac

The student has already noted how frequently the Promises were made and renewed to Abraham. Now, the same Promises are made to his son Isaac. Notice the language is consistent with the promises made to Abraham. Thus, although Isaac had a brother Ishmael, the promises come down only through the children of Isaac. (In a later lesson, the promises once again come down through one of two sons, Jacob and not through Esau, his brother.)

The student is urged to read verses 3 and 4 where, although Isaac too was only a sojourner and not a resident, he receives the promise of a land, a numerous people and that through him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This recurring theme cannot be overlooked for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eaching of Jesus, his disciples and the Apostles two millenia later. And it is an important theme for u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too!

Grief to Isaac and Rebekah!

The notes on chapter 24 pointed out that Esau represented those whose focus in life was centered on natural or fleshly things. His waywardness and rebellion are obvious in verse 34, where the fact is recorded that he married not one Hittite woman, but two! This was a direct violation of Abraham's instructions to marry within the family, a principle that Esau would have heard repeated time and time again by his parents Isaac and Rebekah. And so Esau marries Judith and Bashemath, both Hittite women who undoubtedly had been brought up in all the abominations common to the Hittite nation. This action "*brought grief*" to Esau's parents (v35).

제 20 단원

축복을 간청하다

창세기 27 장

야곱 - 장자의 명분과 축복

지난 단원에서 말했듯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들이다. 형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로 차려준 음식을 특히 좋아했으며, 에서를 사랑하였다.

동생인 야곱은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였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고 있었다. 창세기 25:27절을 보면, “중용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 뜻은 욕기 1:1절 에 있는 바와 같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금 즉시 성구사전을 찾아 다음의 낱말들을 찾아보기 바란다.

- 완벽하다.
- 경건하다. 또는 올바르다
- 고상하다.

야곱은 신중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그를 무척 사랑했다.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다.

로마서 9:10-13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점에 유의하고 있다. 그 두 아들의 이후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말라기 1:2,3을 살펴보자.

리브가는 그녀의 두 아들이 “각각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두 민족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에서가 기진맥진한 가운데 사냥터에서 돌아왔다. 아마도 집을 멀리 떠나 사냥하려고 나섰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먹을 것이 없자 그는 굶주린 나머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는 음식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하였다.

육신의 사람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그는 말했다. 야곱은 항아리에 붉은 팔죽을 쑤고 있었다. 히브리어로 붉다‘는 말은 ‘에돔’이다 그러므로 에서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SECTION 20

SEEKING THE BLESSING

Genesis 27

Jacob - the birthright and the blessing

As has been pointed out in the previous section, Esau and Jacob were the twin sons of Isaac and Rebekah. Esau, the elder was a cunning hunter, a man of the field. Isaac loved Esau, particularly for the venison he caught and prepared for him.

Jacob, the younger, was an upright, sincere man, dwelling in tents. He was impressed with the things of God. Note that in Gen. 25:27, the Hebrew word for “plain” or “peaceful” is the same word rendered “perfect” in Job 1:1. The student is urged to verify this statement by using a concordance. It means:

- complete
- pious or upright
- gentle

He was a prudent, peaceful man, greatly loved by his mother. Before their birth, God told her that *“the older shall serve the younger”*.

Paul in Romans 9:10-13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Jacob was God’s choice. In the following history of the two sons, God is seen to be right. Also note Mal. 1:2,3.

Rebekah was told that her two sons represented *“Two nations ..and two peoples”*; that is, two people of fundamentally different outlooks.

Esau sells his birthright

Esau returned faint from hunting. He had been long away from home and perhaps had caught nothing. Thus without food, he was famished, and appeared on the point of death. He demanded food and was prepared to sell his birthright to get it.

The spiritual advantages of the birthright mean nothing to this man of flesh. *“Quick, let me have some of that red stew!”*(NIV), he demanded. Jacob’s stew consisted of lentils. The word “red” in Hebrew is “Edom”, and it is because of this that his name was changed to Edom.

장자의 명분

장자라는 위치는 큰 존경을 받는 위치이다. 에서는 집안의 장자였고, 형제들 가운데 머리였다. 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할 자였으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두 배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장자의 권리는 양도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그 권리를 보류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에서는 자신이 가진 고귀한 권리를 한 그릇의 죽을 받고 팔아 버렸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장자”로 세우신 것에 유의하라. (시편 89:27). 예수는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로 높임을 받았다. 첫째 아담은 죄로 인해 그러한 자격을 상실하였다. (골로새서 1:15; 고린도전서 15:45)

야곱의 축복과 그에 따른 결과

창세기 27장에는 리브가의 부추김을 받아 야곱이 그의 아비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낸 장면이 기록되어있다. 창세기 25:23절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으므로, 야곱은 진정 그 축복을 받을 명분이 있었고, 또한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바도 있었으나,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보다는 자신이 나서서 처리하려 하였다.

에서는 들에 나가 사슴을 잡아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드리면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리브가는 따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속여 형 대신 나가게 하였다. 이삭은 나이 많아 기력이 없었으므로, 그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침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

히브리서 11:20절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 기록되어 있으나,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삭이 축복하고자 한 아들은 분명 다른 아들이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을 향해 응당 화를 낼 법 하지만 단지,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고 한다.(33절). 이삭은 자신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었으며, 결국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고, 대신 이삭을 축복의 대상자로 선택한 일이 벌어졌음을 받아들였다.

크게 실망한 에서를 앞에 두고, 이삭은 믿음에 차서 말하기를 “*야곱이 분명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 후, 이삭은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종류의 축복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서의 분노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축복을 받아가려고 하였다. 에서는 질투심과 부러움에 눈물이 나기까지 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12:17).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다시 먹는다”는 뜻이다. 에서는 말 그대로의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울음을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동생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The birthright

The eldest son's position was one of great respect. He was the firstborn, the head of his brethren. He succeeded to his father's official authority and had a special claim to his father's blessing, receiving a double portion of his father's goods. This birthright could be transferred, or withheld by the father for a just cause. Esau surrendered his priceless birthright for a pot of stew!

Notice God's intention to "make" Jesus "His firstborn" (Psa. 89:27). He has been elevated to that position although he is the "second Adam". The "first Adam" was disqualified because of sin (Col. 1:15; 1 Cor. 15:45).

Jacob's blessing and the result

Genesis 27 shows how Jacob, at the instigation of Rebekah, deceived his father and obtained the blessing. According to the message given by God to Rebekah in Gen. 25:23, he was really entitled to this, and he had already obtained Esau's birthright, but Rebekah took matters into her own hands instead of leaving them to God.

While Esau was out hunting deer to make venison for his father, preparatory to receiving the blessing, Rebekah prepared a suitable dish and disguising her son, pretended that he was Esau. Isaac was so old and feeble, he didn't detect the deception, so Jacob received the blessing.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Hebrews says: *"By faith Isaac blessed Jacob and Esau, even regarding things to come"* 11:20. Yet the record in Genesis makes it quite clear that Isaac intended to bless the wrong son!

The explanation can be seen in what follows. When the deception was discovered, Isaac did not vent his anger on Jacob as might have been expected, but *"trembled violently"* (v. 33). It's obvious that Isaac knew he was in error, and although he wanted to bless Esau, he accepted that Jacob was the one whom God had chosen. God had overridden his natural desires.

Isaac's faith then rose to the fore, and with Esau looking on with utter dismay, he said referring to Jacob, *"Yes, and he shall be blessed"*. He then gave a blessing to Esau, but not in the terms of the Abrahamic promise. Thus he acted "by faith".

Esau's hatred

Esau tried to kill Jacob in order to obtain the blessing for himself. He was moved by envy and jealousy, even to tears, but *"found no place for repentance"* (Heb. 12:17). The word "repentance" means "change of mind". Esau did not repent, in the ordinary sense of the word; he wept before his father trying to change his father's mind, but his own mind was already plotting the murder of his brother!

에서의 마음을 눈치 챈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 있게 하였다. 리브가는 에서가 현명치 못한 결혼을 한 것을 이삭에게 상기시키면서, 야곱을 그의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어 일족 가운데서 배필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26:34,35) 야곱이 떠나기 전, 이삭은 야곱을 불러 다음과 같이 축복하였다.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이삭에게 내리실 것.
- 이삭이 큰 무리의 조상이 될 것.
- 나그네로 지내왔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 (28:3,4).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 수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사실을 보면서, 야곱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제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으며, 장자인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었고, 반면 야곱은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
2.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각기 다른 성품의 사람”일 것을 알려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며, 에서는 이방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들의 자손들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3. 그들이 태어날 당시에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욱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16:19; 스가랴 8:23.
4.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었던 것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대했다. 아담이 가졌던 장자의 명분을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처럼, 야곱도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취했다. 시편 89:27; 골로새서 1:15.
5. 에서는 장자의 권리 뿐 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축복도 잃었다. 그는 현재만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Knowing this, Rebekah urged Jacob to leave home. She reminded Isaac of the unwise marriage of Esau, and suggested that Jacob should be sent to her brother Laban's home to obtain a wife of her own kindred (26:34,35). Before he left, however, his father blessed him again and expressed the desire that:

- God would give him the blessing of Abraham
- He would develop into a multitude of people
- He would inherit the land in which he was a stranger (28:3,4)

In this prayer, the Abrahamic promise was conferred on him. We should remember that Jacob died in Egypt, so that he has not yet inherited these promises.

So Jacob left his father's house and started a journey that took him back to the family of Laban.

Lessons For Us

1. Jacob and Esau were twins, Esau was the firstborn and a man of the flesh, while Jacob was an upright, sincere person.
2. Rebekah was told they were "two manner of people": Jacob represented God's people, and Esau represented the Gentiles. History has shown their seed to be different types.
3. At their birth it was said that the elder should serve the younger; but this will not happen fully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Jer. 16:19; Zech. 8:23.
4.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as did Adam, God's firstborn in the garden of Eden. Jacob succeeded to the birthright of Esau as Christ succeeded to that of Adam. Psa. 89:27; Col. 1:15.
5. Esau lost both birthright and blessing, things which relate to the future, because he was a man who lived for the present.

제 21 단원

야곱의 아내

창세기 28 장 그리고 29 장

베델에서 꾸 꿈과 경배의 절

야곱은 북쪽으로 길을 떠나 가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꿈에서 보니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계단이 보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계단 꼭대기에 서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직접 재확인하였다. -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며, 그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

하늘과 땅이 계단으로 연결된 모습은 그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항상 돌보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15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 크게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벧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엄숙한 서원(맹세) -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그의 조상의 집에 다시 평화롭게 불러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을 하나님께 드렸다. 야곱의 믿음은 뿌리를 박게 되었고, 이제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타향살이하는 야곱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그는 마침내 여행을 끝내고 그의 외삼촌의 집에 초대되었다. 라반은 딸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였고 다른 하나는 라헬이었다. 라헬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야곱은 그녀에게 반해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혼인하기 위하여 7년을 봉사하기로 작정하였다. 7년이 지난 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 속임수의 희생자가 되었다. 라반은 말하기를 동생이 형의 앞서서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레아를 그의 아내로 주었던 것이다. 야곱은 또다시 7년을 기약하여 라반에게 봉사하기로 하였다.

레아와 라헬에게는 각각 ‘질바’와 ‘빌하’라는 몸종이 있었다. 이렇게 모두 4명의 여자들에게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들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다. 제 1단원의 끝 부분에 도시되어있는 이들의 족보를 보기 바란다.

르우벤	잇사갈	단
시므온	스불론	납달리
레위	요셉	갓
유다	벤야민	아셀

SECTION 21

A WIFE FOR JACOB

Genesis 28 & 29

The dream and vow at Bethel

On his way north, Jacob slept, and in a dream saw a vision of a staircase linking heaven and earth, with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upon it. God, who in the dream, stood above the staircase, spoke and directly confirmed His promise made to Abraham and Isaac - the land upon which Jacob lay would be given to him and through him would come the seed in whom all families of the earth would be blessed.

As the staircase joined heaven and earth, so heaven would join with earth in this see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Moreover, the staircase served to illustrate God's constant care of Jacob: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v.15)

Jacob awoke in great fear with the words on his lips, *"How awesome is this place"*. Knowing God's presence had been there, he named it "Bethel" (House of God). There he made a solemn vow - if God would preserve and provide for him and bring him back to his father's house in peace, *"then Yahweh will be my God"*. Faith had begun to take root, and Jacob began the road of self-denial and reliance upon God.

Jacob in exile

By the hand of providence, Jacob met Rachel beside a well as she came to water her father's sheep. God had prospered his journey and he was invited to his uncle's home. Laban had two daughters, Leah and Rachel. Rachel was beautiful and Jacob loved her deeply, and agreed to serve Laban seven years for her. At the end of this period, however, he was the victim of the same deceit he had first practiced against his father - Leah was given to him, for, said Laban, the younger should not be given before the elder! In this way, Laban was able to retain Jacob for another seven years.

Leah and Rachel were given handmaids, Zilpah and Bilhah. From these four women soon came the twelve sons of Jacob amidst considerable domestic upheaval and rivalry. The geneology chart at the end of Section 1 should be reviewed.

Rueben	Issachar	Dan
Simeon	Zebulon	Naphtali
Levi	Joseph	Gad
Judah	Benjamin	Asher

야곱은 큰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라반을 떠나려고 마음먹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라반의 생업은 번성하게 되었으나, 라반은 아랫사람을 엄하게 부리는 주인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은 임금을 받고 라반을 위하여 일하기로 하였는데, 그는 태어나는 양과 가축 중에서 열등한 것들을 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어 야곱의 몫이 더 많아지도록 하셨다. 라반과 그의 친 아들들은 이런 결과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라반에게서 떠나다 (창세기 31장, 32장)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뜻을 따라, 아버지 라반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떠나는데 동의하였다. 3일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자신의 형제들을 보내어 야곱을 추적하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하셔서 라반을 경고하시면서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야곱이 길을 떠나 가다가, 새로운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했었다. 그러던 중 앞서서 보낸 사자가 돌아와서 말하길,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청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압복 강을 건너가게 하였고, 자신은 강 이편에 혼자 남았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다 (창세기 32:24-32)

그날 밤새도록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였다. 새벽이 되자, 천사는 떠나가고자 했으나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천사는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넓적다리뼈)를 찼는데, 야곱의 넓적다리뼈가 탈골되었다. 하지만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천사에게 자신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호세아 12:3,4절을 살펴보고,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여 이겼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과연 그리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야곱이 간청함에 따라 천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서, 이름을 바꾸어 축복하였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룬 일인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인간의 자부심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나중에 얻은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하나님(히브리어 엘로힘은 곧 천사를 의미하기도 한다)과 겨루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과 겨룬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그는 에서와 함께 다가오는 400명의 사람들 앞에 당당히 다가갈 수 있었다. 약한 모습의 절름발이가 되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의 이름 ‘이스라엘’에 그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었기에, 그 장소를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는 천사를 만난 것이다. 호세아 12:3,4; 요한복음 1:18; 디모데전서 6:16절들을 비교하여 보라.

Jacob was now a man with large responsibilities, and he wanted to leave Laban now, to provide for his own. Laban had prospered as long as Jacob worked for him, but Jacob found him a hard taskmaster. Despite this, Jacob agreed to stay on and work for wages - the inferior sheep and cattle would be his. But God so blessed Jacob that his portion was more than Laban's. This aroused the envy of Laban's sons.

Departure from Laban (Gen. 31 and 32)

The time had come to leave and God advised Jacob to return to his father's house. Rachel and Leah appreciated the problem and agreed to leave secretly so that Laban couldn't interfere with their plans. Three days later, when Laban realized what had happened, he took his brethren and pursued and overtook Jacob. But God intervened and warned Laban to do Jacob no harm.

Jacob went his way, but new fears bothered him; he would soon have to meet his brother Esau! And then his messengers returned with the startling news that his brother Esau was coming to meet him with 400 men! But Jacob was learning to trust in God. In great humility he pleaded for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promises God had given to him. Jacob sent his family over the brook Jabbok and remained alone.

Jacob becomes Israel (Gen. 32:24-32)

All night Jacob wrestled with an angel. At the break of day, the angel sought release but prevailed not. He touched the hollow of Jacob's thigh as they wrestled and put it out of joint. But still Jacob would not let him go. He greatly desired the angel to bless him in this, his hour of fear and need. Read Hosea 12:3,4 to see how Jacob could "prevail" with God and we can do the same.

Divine blessings only come to those who persistently seek them. In reply to Jacob's request, the angel asked him his name. The blessing was contained in a significant change of name: from **Jacob** (supplanter) to **Israel** (a prince with God).

The former spoke of human self-sufficiency, the latter of dependence on God. In these words he was told that as he had prevailed with God (Heb. - Elohim, i.e. the angel), he would certainly prevail with men.

This answered his immediate need. He could now approach Esau with his 400 men in confidence. In any case what could he do now that he was crippled and his flesh was weak? This is the significance of the name "Israel".

Jacob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Peniel" (the face of God) because he had seen God face to face. Actually he saw the angel, for no man can see God. Compare Hos. 12:3,4; John 1:18; 1 Tim. 6:16.

해가 떠오르고 나서, 야곱은 뒤쳐졌지만 빨리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그의 가족을 따라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가고자 하였지만,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의 형 에서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야곱은 두려워하며 에서에게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위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5).
2.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썼다. 그러나 그도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했다. (갈라디아서 6:7).
3. 야곱은 에서와 함께 다가오는 400 명의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가 밤새 씨름했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육신”에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다.

When the sun arose, Jacob was late but couldn't hurry. He hobbled as best he could to catch up with his family, knowing now that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in his own strength to protect them. But without fear now, he saw Esau approaching. Esau was pleased to see him! Surely God was with Jacob as He had promised.

Lessons For Us

- 1.** In fear Jacob fled from Esau, but God comforted him and promised to be with him. God is with all those who serve Him (Heb. 13:5).
- 2.** Jacob had deceived his father to obtain the blessing, but he became in turn the victim of deceit from Laban (Gal. 6:7).
- 3.** Jacob feared Esau's approach with 400 men, but the angel who wrestled with him taught him to rely on God and not "the flesh".

제 22 - a 단원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 장 - 45 장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세겜 지역에 거하고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벧엘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야곱이 더 멀리 남쪽인 마므레를 향하여 이사하던 도중, 라헬이 출산 중에 숨을 거두었다. 야곱은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아들 열둘과 딸 하나를 키웠다. 야곱은 죽은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그녀가 낳은 특출한 아들인 요셉을 친애하게 되었다.

요셉에 대한 사랑과 시기심 (창세기 37장)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특별한 돌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그가 입은 채색 옷 또는 겂옷이었다.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다. 요셉이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형제들의 미움이 증폭되게 만드는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두 개의 꿈으로서,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의 꿈이었다. 창세기 37:5-11.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세겜 가까이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다. 형제들은 저 멀리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를 살해하기로 하고 계락을 꾸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은 죽음만은 면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고자 하여,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하였다. 그러던 중 유다가 제안하기를 그를 구덩이에서 죽게 하는 대신에 노예로 파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미디안 족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겼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취하여 짐승의 피를 묻힌 뒤 야곱에게 보여주며, 들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다고 하였다.

여러 해가 흘렀다. 요셉은 이제 30세가 되었고 바로 앞에 서있었다.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다. 신실했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낸지 오래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 닥친 역경과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던 이상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현실로 이뤄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 (창세기 39장)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성과 자애로운 성품을 지켜보았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안 관리자로 임명하였으며,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준수한 용모에 반했다.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려했으나, 요셉은 그녀의 남편이 자신에게 보내는 큰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세기 39:9).

SECTION 22 – a

THE LIFE OF JOSEPH

Genesis 37 - 45

Jacob dwelt at Shechem, until the slaughter of the Shechemites by Simeon and Levi caused him to leave in shame. He moved to Bethel where God confirmed His word to him. Rachel died in childbirth as Jacob traveled farther south to Mamre where he reunited with Isaac. Jacob settled in Hebron and there his family of twelve sons and one daughter grew up. Jacob's affections turned to Joseph, the outstanding son of his cherished Rachel.

Love and Envy of Joseph (Gen. 37)

Being the favorite, Joseph was granted special privileges, among them a coat of many colours, or long tunic, as another version calls it. This made the brothers envious. When he was seventeen, an event happened that increased their hatred: God revealed to Joseph two dreams which spoke of them bowing down to him. Gen. 37:5-11.

One day Jacob sent Joseph to his brethren as they grazed the sheep near Shechem., They saw him afar off and conspired to murder him. But God was with Joseph and intervened. The pleas of Reuben to cast him into a pit instead was heeded, but finally Judah's counsel prevailed - that it was better to profit by selling him into slavery than merely to kill him! So they sold him to a band of Midianites for twenty pieces of silver. They dipped his coat in animal blood and showed it to Jacob as evidence that he had been killed.

The years passed. Joseph was thirty when he stood before Pharaoh. Much of the intervening years Joseph spent in prison. Though separated from family and the godly influence of his father, his faith remained strong. He believed God, and through all the injustices and reverses that came to him, he never doubted that the vision of his brethren bowing before him would be fulfilled, He had to wait upon God until faith gave way to sight.

Potiphar's House and Prison (Gen. 39)

In Egypt, Joseph was purchased by Potiphar, an Egyptian officer of Pharaoh, captain of the guard. God made all that Joseph did to prosper in his hand. This was soon observed by Potiphar, as was Joseph's grace and integrity. He was soon made overseer of all his house, and implicit trust was put in him. But Joseph was handsome and this attracted the notice of Potiphar's wife. She tried to seduce Joseph, but he steadfastly refused her and pointed out the great trust her husband had placed in him. *"How then could I do this great evil and sin against God?"* (39:9).

그러나 그녀는 계교를 꾸며 요셉을 올라미에 걸어 넣으려 했으며, 만약 요셉이 그녀를 거절한다면 요셉은 그 올라미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다. 마침내 요셉은 무고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의 성실성에 감동을 받은 감옥의 전옥(관리자)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꿈 해몽으로 유명해지다 (창세기 40:1 - 41:45)

그러던 와중에,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일을 맡던 자 둘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고민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는데, 요셉의 해몽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술 맡은 자는 복직되었으나, 떡 굽는 일을 맡은 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간청하여, 그가 복직되거든 자신을 기억하여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 두었으나, 그는 이 일을 잊어버렸으며 요셉은 또 다시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일을 진행하셨다. 바로가 꿈을 두 개 꾸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자 하여 번민하였다. 술 맡은 관원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요셉을 부르도록 하였다. 바로의 전갈을 받은 시종이 감옥으로 급히 달려갔다. 요셉은 덩수룩했던 수염을 말끔히 깎아 단정하게 하고, 좋은 의복으로 갈아입은 후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시편 34:15).

바로 앞에서 요셉은 말하기를,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대답했다. (창세기 41:16).

그 꿈은 바로에게 경고하는 것으로서, 애굽 지역에 7년 동안은 풍년이 들다가 다음 7년간은 흉년이 들어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현명한 사람을 뽑아 양식을 관리하게 하여, 닥쳐올 기근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바로는 이 제안에 무척 감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제안을 수행할 책임자는 누구이겠는가? 마침내 요셉은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오직 바로 왕만이 그보다 높은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사의 첫 단계가 이루어졌다. 창세기 45:5 그리고 15:13 - 16.

기근의 여파 (창세기 41:53 - 57)

7년 동안의 풍년이 다가왔다. 요셉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충분히 만들었고,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애굽의 곡식창고는 모두 곡물로 가득 차 있었다. 기근은 가나안 지방에도 닥쳐왔으며,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기근에 시달렸다. 야곱의 가족들은 식량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기로 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남겨두고 그의 형제들만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핏줄은 베냐민 뿐이었다.

But she was determined and contrived a scheme whereby Joseph, if he failed to yield, would become the victim of her vengeance. As a result, Joseph was cast into prison. But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the prison guard was impressed by his integrity and put him in charge of the prisoners.

Elevation by Interpretation (Gen. 40:1 - 41:45)

In time, two notable servants of Pharaoh, his butler and his baker, were cast in to prison. These two had dreams which troubled them. Joseph invited their confidence, and they told him their dreams. In the name of God, he interpreted their dreams, and his words were fulfilled. The butler was reinstated but the baker was hanged. Joseph asked the butler to remember him when he was restored but he failed to do this and Joseph was left in the dungeon to serve two more years!

But God did not forget, and He acted. Pharaoh himself was troubled by two dreams which defied interpretation. Circumstances forced the butler to remember and he told Pharaoh about Joseph. The servants of Pharaoh were hastily sent to the prison. Shaved and clothed in fine garments, Joseph was taken to the palace. *"The eyes of the LORD are toward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cry"*. (Psa. 34:15).

Before Pharaoh, Joseph denied that he had any special ability but said that *"God would give Pharaoh a favorable answer"*. (Gen. 41:16).

The dreams warned Pharaoh, that Egypt was about to experience seven years of great plenty followed by seven years of famine. This called for foresight and organization. Joseph suggested the appointment of a wise man over Egypt to store food for the time of famine. Pharaoh was impressed. Who could perform this task better than the one before him? Accordingly Joseph was promoted to second in the land. As Prime Minister of Egypt, only Pharaoh was greater than him. The first great step had been taken for Israel's salvation and als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of Israel in a strange land. Gen. 45:5 and 15:13 - 16.

Effects of Famine (Gen. 41:53 - 57)

Seven years of plenty came and went. Joseph made ample provision for the storage of grain, and so, when the famine started, the granaries of Egypt were full. The famine spread to Canaan also, and Jacob and his family were affected. They decided to go to Egypt. Jacob refused to allow Benjamin to go with his brothers in case mischief befell him. In Jacob's mind, Benjamin was his sole surviving link with his beloved Rachel.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다 (창세기 42:1 - 43:14)

어느 날, 애굽에 있는 요셉의 앞에 열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양치는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셉은 애굽의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왕족의 옷에다 수염을 깎은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형제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은 뒤 노예로 팔아먹은 그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요셉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듯이, 통역을 앞에 두고 그들과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요셉은 그들을 통명스럽게 대했다. 형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을 염탐하러 온 첩자라는 누명을 씌운 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명했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애굽 왕자의 엄한 모습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지고 간 곡식자루에는 자신들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가진 곡식이 다시 떨어졌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에 반대했다.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했으나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막내 동생을 무사히 데리고 오겠노라고 하였다.

애굽에 두 번째로 내려가다 (창세기 43:15 - 44:34)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나면서 선물을 준비했고, 두 배의 돈도 마련했으며, 야곱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43:14).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그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이 옥에서 풀려나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들을 환대했으며, 요셉은 특히 베냐민을 환대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마련한 잔치상에서 이상하게도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자루에는 곡식들이 그득했으며, 그들은 의아해 하면서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고,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은 자신의 특별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았다. 요셉은 형제들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들이 길을 떠나가던 도중에, 애굽의 기병이 그들을 쫓아가서 말하길, 당신들은 애굽의 총리대신의 물건을 훔쳐가고 있다고 하였다.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씩 풀어 검사하던 도중에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다. 그들은 급히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요셉의 앞에 엎드리며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청했다. 유다가 나서서 말하길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고 아버지께 거짓말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Joseph's Brothers Visit Egypt (Gen. 42:1 - 43:14)

Thus one day, ten men appeared before Joseph in Egypt. They had bearded faces and were dressed as shepherds. He instantly recognized them as his brothers, but they didn't recognize him. This stately prince of Egypt, with royal clothes, shaven face and grand appearance, in no way resembled the young shepherd boy they had thrown in the pit and sold to slavery. In addition, there was a language barrier. Joseph's use of an interpreter made it appear that he did not speak Hebrew. To Joseph it was an exciting moment for as they bowed before him, his dream of earlier years was fulfilled. The hand of God was evident before his very eyes.

Joseph treated them abruptly. His purpose was to humble them so that they might realize the error of their previous ways. He accused them of being spies, and demanded that they return home and bring Benjamin back as proof of their honesty. Meanwhile, he would hold Simeon as hostage. They started for home in fear of the rough prince of Egypt. To their amazement they found the money they had given to Joseph returned in their sacks of corn.

Time passed by and it wasn't long before the food was exhausted again. They would have to return to Egypt. But Jacob still refused to let Benjamin go. Reuben tried to pacify Jacob without result. Finally Judah persuaded his father and promised to guarantee the welfare of his youngest brother.

Second Visit to Egypt (Gen. 43:15 - 44:34)

They left for Egypt with presents, double money, and the prayer of Jacob. *"God Almighty grant you compassion in the sight of the man"* (43:14). In Egypt, they were directed to Joseph's house where strange events awaited them. Simeon was restored to them. They were honoured by Joseph, especially so Benjamin. They were astonished at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seated, from the eldest to the youngest. Their sacks were filled and they started for home greatly wondering at the strange events.

But Joseph was master of this situation, and he imposed a further test on them. He had hidden his special cup in the sack of Benjamin. He would test their affection for Rachel's son and for their father; had their attitude changed? On their return trip an Egyptian rode after them and accused them of stealing the Prime Minister's cup! The sacks were searched beginning at the eldest! At the end Benjamin's was opened and of course there was the cup. Hastily returning to Egypt they pleaded the mercy of Joseph. Judah personally appealed to Joseph to be punished in the place of Benjamin for the sake of his father. Here was true repentance - a vast change in a man who had earlier sold his younger brother with no regard for the effect upon his father.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다 (창세기 45:1-46:7)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요셉은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 놀랍게도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혔다. “내가 요셉이요.” 형제들은 말문이 막힌 채 어리둥절했다. 요셉은 크게 흐느끼면서,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형제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45:5).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다. (45:7),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동생이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을 알고 나서, 요셉은 가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가족을 돌볼 목초지를 이곳 애굽에 마련해 줄 테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했다.

형제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믿지 못한 나머지 마음이 혼미해 졌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호하시고 애굽으로 떠나도록 조언하셨다. (46:1-4).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에베소서 3:20).

Joseph Reveals Himself (Gen. 45:1 - 46:7)

Joseph could contain his feelings no longer. He commanded all Egyptians to leave the room, and then, to the utter astonishment of his brothers, he revealed his identity. *"I am Joseph"*. They were dumbfounded and troubled. Joseph wept aloud and calmed their fears. He had no plan or desire for vengeance. *"Now do not be griev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45:5).

Joseph explained God's purpose in the matter. He had been sent to *"preserve for you (Israel) a remnant in the earth"*, and to *"keep you alive by a great deliverance"*. (45:7). As they began to perceive that this lordly young prince was indeed their brother, he told them to hurry home and bring his beloved and aging father back to Egypt that he might care for him, and provide food and pasture for their cattle in the years of famine.

The brothers hurried home and told Jacob the good news. *"Jacob's heart fainted, for he believed them not (KJV)"*. With thankfulness and great joy he worshipped God in Beersheba. God comforted him and advised him to depart. (46:1 - 4). *"God is able to do far more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Eph. 3:20).

제 22 - b 단원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다

지금까지는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추적해 보았다. 요셉이 그의 형제로부터 겪은 고난과 이방 나라에서 겪은 고난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게 하였고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요셉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교하여 보면, 그 둘 사이는 놀랄만하게도 일치하는 모습들이 많이 존재한다. 요셉의 생애는 비유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주의 깊게 통제하시는 가운데,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 것과 자세히 닮은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형이 되는 지,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이란, 실재를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림자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듯이, 구약성서의 구절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묘사하는 것들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라고 말했다.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 즉, 장막, 유월절, 희생의 제물 등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전 예고편이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모형 또는 본보기이다. 그러나 이 모형들은 단지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아니다. 어떤 것의 모형은 그 형상의 윤곽을 그릴뿐 진정한 세부적 묘사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모형들은 개략적인 윤곽을 말할 뿐이며, 실제의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유사점에 착안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요셉의 고난은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4:25-27). 예수께서는 아마도 요셉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설명하셨을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도표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SECTION 22 – b

JOSEPH AS A TYPE OF CHRIST

Joseph as a “Type” of Christ

The previous comments traced the major events in Joseph’s life. The sufferings he experienced at the hand of his Brethren and those of the other nations finally gave way to the glory of being Prime Minister of Egypt and the Preserver of Life.

When the lives of Joseph and Christ are compared, the parallel is striking. It is apparent that the life of Joseph is a dramatic enacted parable. It was carefully supervised by God, so as to set forth in detail His plan with His Son for the benefit of Israelites with spiritual vision. We will see now how the events in Joseph’s life foreshadowed those in the life of the Lord Jesus Christ.

A “type” is a shadow of an approaching reality. As the purpose of God in creation centered in Christ,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are largely concerned with portraying God’s purpose with him. Paul could say in Gal. 3:24 that *“The Law was our schoolmaster to bring us unto Christ”* (KJV).

Everything in the Law - the tabernacle, feasts, sacrifices, etc. all prefigured principles to be revealed in Jesus Christ. Many other famous leaders in the Old Testament were in certain respects examples or types of what would be seen in fullness in the Lord Jesus Christ. But the types were “shadows” and not the “substance” or the real thing. The shadow of something outlines the image but lacks the details. Thus the Old Testament types are broad outlines, and care should be taken when comparing the similarities to remember the differences.

Joseph’s suffering prepared him for glory. On the road to Emmaus, Jesus said, *“O foolish men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in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Was it not necessary for the Christ to suffer these things and to enter into His glory?”* Then beginning with Moses and with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 (Luke 24:25 - 27). He may well have spoken of the life of Joseph, which demonstrates the suffering and the glory. The following chart lists some of the incidents in which Joseph foreshadows Christ, and Joseph’s brothers, the nation of Israel.

예수의 초림 (처음 나타나심)

요셉	예수
1. 그는 목자였다.	그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11,14)
2. 그의 이름은 ‘증대되다’이다.	요한은 예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 하였다. (요한복음 3:30),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라 하였다. (이사야 53:10; 22:21 을 참조할 것).
3. 요셉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창세기 37:2)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으로다.”라고 하시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하셨다. (마태복음 23:31-32; 요한복음 8:37,40, 44, 54-55 참조).
4. “그의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창세기 37: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7).
5.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창세기 37:8).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누가복음 19:14).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Caesar)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15).
6.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8)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요한복음 15:25).
7.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창세기 37:8)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45).
8.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창세기 37:13).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마태복음 21:37).

THE FIRST ADVENT

JOSEPH	JESUS
1. He was a shepherd. 2. His name means "The Increaser" 3. Joseph brought unto his father a "bad report" about his brothers (Gen. 37:2). 4. His "father loved him more than all his brothers" (Gen. 37:4). 5. "His brethren said: 'Are you actually going to reign over us?'" (Gen. 37:8). 6. "They hated him" (Gen. 37:8). 7. "Because of his dreams" (Gen. 37:8) 8. "I will send you unto them" (i.e. your brothers) (Gen. 37:13)	He is the Good Shepherd (John 10:11, 14). John said of Jesus: "He must increase" (John 3:30). Isaiah said, "He shall see his offspring" (Ch. 53:10; cf. Ch. 22:21). Jesus challenged Israel's leaders as being "the sons of those who murdered the prophets"; and he added: "Fill up, then, the measure of the guilt of your fathers" (Matt. 23:31-32; cf. John 8:37, 40, 44, 54-55).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 3:17). "We do not want this man to reign over us" (Luke 19:14). "We have no king but Caesar (John 19:15).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John 15:25).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eard His parables, they understood that He was speaking about them" (Matt. 21:45). "He sent His son to them" (Matt. 21:37)

배반당함 그리고 죽음

요셉	예수
1.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창세기 37:18).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마태 26:4).
2.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창세기 37:19).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마태 27:29).
3. “자 그를 죽여...” (창세기 37:20).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마태 21:38).
4.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창세기 37:23).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요한 19:24).
5.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창세기 37:24, 28).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시편 40:1-3). “저가 음부(무덤)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행전 2:31).
6.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24).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스가랴 9:11).
7.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창세기 37:26, 27).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책을 의논하매.” (누가복음 22:4).
8. “은 이십 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창세기 37:28).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스가랴 11:12; 마태 26:15).
9.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창세기 37:31).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요한계시록 19:13), 주 예수께서 하나의 희생 제물임을 상징한다. (요한 19:34).
10.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야곱을 속이다).” (창세기 37:32).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마태 28:13).
11.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마태 27:26).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버림받다.
12. 술 말은 관원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은 처형되다.	강도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나, 한 강도는 용서하심을 받았다.

부활하심

요셉	예수
“만 이년 후에...” (창세기 41:1).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4).
“그 옷을 갈아입고...” (창세기 41:140)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임모탈리티의 상징)을 입히리라..” (스가랴 3:4).

BETRAYAL AND DEATH

<i>JOSEPH</i>	<i>JESUS</i>
1. "they plotted against him to put him to death" (Gen. 37:18).	"they plotted together to seize Jesus by stealth and kill Him" (Matt. 26:4).
2. "Here comes this dreamer!" (Gen. 37:19).	"They mocked him" (Matt. 27:29).
3. "Let us kill him" (Gen. 37:20).	"Let us kill him" (Matt. 21:38).
4. "They stripped Joseph out of his tunic" (Gen. 37:23)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John 19:24).
5. "Threw him into a pit - lifted up out of the pit" (Gen. 37:24, 28)	"He brought me up out of the pit of destruction" (the grave - Ps. 40:1-3). "He was not abandoned in hades(the pit, or grave) neither did his flesh suffer decay" (Acts 2:31).
6. "The pit was empty – without any water in it" (Gen. 37:24).	"The waterless pit" (i.e. the grave - Zech. 9:11).
7. "Judah said...'Come, let us sell him' (Gen. 37:26, 27).	"Judas (Greek for Judah) discussed how he might betray him" (Luke 22:4).
8. "Twenty pieces of silver" (Gen. 37:28).	"Thirty pieces of silver" (Zech. 11:12; Matt. 26:15)
9. "They dipped Joseph's tunic in blood" (Gen. 37:21).	"He is clothed with a robe dipped in blood" (Rev. 19:13), a symbol representing the sacrifice of the Lord (Jn. 19:34).
10. "This blood-stained coat have we found (so deceiving Jacob - (Gen. 37:32).	"You are to say, 'His disciples came by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were asleep" (Matt. 28:13).
11. Imprisoned in Egypt.	"He (Pilate)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Matt. 27:26), rejected by both Jew and Gentile.
12. Butler (restored) - Baker (executed)	"Two thieves crucified with him" - one forgiven

RESURRECTION

<i>JOSEPH</i>	<i>JESUS</i>
"At the end of two full years" (Gen. 41:1).	"He rose again on the third day" (1 Cor. 15:4).
"Changed his clothes" (Gen. 41:14)	"I will clothe thee you with festal (new) robes" (symbol of immortality) (Zech.3:4)

높임을 받음

요셉	예수
1.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창세기 41:38-40).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2:35).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히브리서 3:6).
2.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창세기 41:43).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25:?)
3.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42:6).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39)

재림

이스라엘이 예수를 저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

요셉	예수
1.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창세기 42:8).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이냐 하면...” (스가랴 13:6). “영광의 왕이 뉘시뇨?” (시편 24:8).
2.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2:2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 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신명기 30:1).
3. “요셉이 ...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창세기 45:1).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스가랴 12:10).
4.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창세기 45:3).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10).
5. “근심하지 마소서.” (창세기 45:5).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2; 61:3, 로마서 11:26 참조).
6. “하나님이 ...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창세기 45:7).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28).
7.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 (창세기 45:7).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사야 49:6).
8.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창세기 45:7).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26).
9.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8).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42).

ELEVATION

JOSPEH	JESUS
1. "You shall be over my house" (<i>Gen. 41:38-40</i>) 2. "Made him ruler" (<i>Gen. 41:43</i>). 3. "Joseph's brethren came and bowed down to him" (<i>Gen. 42:6</i>).	"Sit at My right hand" (<i>Act 2:34</i>) "As a son over God's house" (<i>Heb. 3:6 R.V.</i>) "All power is given unto me" (<i>Matt. 28:18</i>). "you will not see Me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i>Matt. 23:39</i>).

SECOND ADVENT

WHEN ISRAEL WILL RECOGNIZE JESUS AS THEIR MESSIAH

JOSPEH	JESUS
1. "His brethren did not recognize him" (<i>Gen. 42:8</i>). 2. "We are guilty; therefore this distress has come upon us" (<i>Gen.42:21</i>) 3. "Joseph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s" (<i>Gen. 45:1</i>) 4. "They were troubled at his presence" (<i>Gen. 45:3 KJV</i>) 5. "Do not be grieved" (<i>Gen. 45:5</i>) 6. "God sent me before you"" (<i>Gen. 45:7</i>) 7.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in the earth" (<i>Gen. 45:7</i>) 8. "to keep you alive by a great deliverance" (<i>Gen. 45:7</i>) 9.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i>Gen. 45:8</i>)	"One shall say, what are these wounds in thine hands?" (<i>Zech. 13:6 KJV</i>). "Who is the king of glory?" (<i>Ps. 24:8</i>). "You will call to mind (your sins) in all the nations where the LORD your God has banished you" (<i>Deut. 30:1</i>)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have pierced" (<i>Zech. 12:10</i>). "and they will mourn for Him" (<i>Zech 12:10</i>) "He will comfort all who mourn" (<i>Isa. 40:1, 2; 61:3, cf. Rom. 11:26</i>). "will appear a second time for salvation without sin, to those who eagerly await Him" (Both national and individual) (<i>Heb. 9:28</i>). "My Servant To raise up the tribes of Jacob and to restore the preserved ones of Israel" (<i>Isa 49:6</i>). "The deliverer will come from Zion"(<i>Rom 11:26</i>)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this became the chief corner stone; this came about from the Lord" (<i>Matt. 21:42</i>).